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2024.9.27–10.1

도전! APR1400

새울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새울본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1. 새울원자력본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2. “도전!APR1400”이벤트 릴스 본인계정 스토리 공유하기
3. 스티커(게임 참여권) 수령 후 게임 참여

타이머 APR1400에 정확히 멈추면 성공!

Clear 상품 Fail

새울본부X OXFORD 블럭

3D입체퍼즐

새울원자력본부×UMFF 새울본부와 함께 도전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Ford

MAKE YOUR WILD WITH BRONCO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의전차량 공식스폰서 프리미어모터스

송 파	02-6928-3000	평 택	031-647-4044	울 산	052-261-3388
영등포	02-6941-3000	해운대	051-741-5114	제 주	064-759-9881
평 촌	031-425-2212	창 원	055-715-5000		
부 천	032-710-3355	포 항	054-285-8899		

www.premiermotors.co.kr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불어와요
"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갈 자신감으로부터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NH 농협

KOLPING

Chapter 1

갓 GOD 벽한 가을산행

K-OUTDOOR

박지현

홍지윤

KVJ6356M 데비스
COLOR [M] KHAKI
SIZE [M] 95-120
BIOTEX
생활 방수 및 방풍 기능의 안감 자켓.
가슴 지퍼와 소매 포켓장식,절개라인 적용으로 활동성을 최적화함.

KVJ6355W 코 어
COLOR [W] CREAM
SIZE [W] 90-110
활동성 및 심플한 외관을 살린 기본 절개형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홈페이지 www.kolping.co.kr 쇼핑몰 www.ekolping.co.kr www.instagram.com/kolping_official www.facebook.com/kolping1983

ARC'TERYX
arcteryx.co.kr

Karnik
ITALIAN OUTDOOR SPIRIT

주최 · 주관
Presented by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후원
Supportor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울주군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
울주군의회
Embassy of Italy Seoul
140 ITALIA-COREA 1884-2024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협찬
Premiere Sponsor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Leadership Sponsor

KOLPING 콜핑
BTR 비티알
Ford Premier Motors
Biostar 네이처셀
ARC'TERYX
SCARPA

Festival Sponsor

울산농협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Karnik
BRITA
L.prime
NOMINATION ITALY
NOWWEATHER
TSINGTAO
언양전통식품
roséel
한국동서발전(주)
하루재클럽
소월당
eugene farm
(주)한울
등억꽃향
Best&Co 베스트앤코
PURE COCONUT WATER
DUTCH Style
DAMP
그린F&B

목차 Contents

인사말 / 축사	Greetings / Congratulations	8
포스터 / 움피니스트	Poster / UMFFinist	15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17
경쟁부문 및 시상안내	Competition & Awards	20
상영 및 티켓 안내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30
행사일정표	Festival Schedule	36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42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46
산	Mountain	68
자연	Nature	82
인간	Human	90
올해의 산 / 돌로미티 - 이탈리아	Guest Country / Dolomite - ITALY	102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116
투게더	Together	132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152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168
조직 /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186
도움주신 분들 / 관객리뷰단	Acknowlegement / Audience Reviewer	188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189
색인	Index	192

이순걸
Lee Soon-geol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UMFF Chairman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주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울주 영남알프스에서 산과 자연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올해로 9번째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산악영화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경이로운 자연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28개국의 다양한 영화 97편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산악영화제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울산대공원에도 상영공간을 마련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 외에도 클라이밍 체험과 오리엔티어링 체험, 마리오네트 체험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도전을 시도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도전 정신을 느끼고,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악영화제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여러분 모두 올 가을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가득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We sincerely welcome you to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Set against the beautiful autumn backdrop of the Yeongnam Alps, UMFF, Korea's only film festival dedicated to mountains and nature, is opening its curtains for its 9th season.

Under the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this year's festival will present 97 films from 28 countries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together amidst a majestic nature.

This year, we have expanded our venues. In addition to th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Ulsan Grand Park will also provide screenings, making the festival more accessible and convenient for our visitors.

Beyond film screenings, we have also prepared a variety of family-friendly programs, including climbing, orienteering, and marionette experiences, to create a happy festival for the whole family.

We hope that through the inspiring stories of people who push their limits and embrace challenges, you will feel the spirit of adventure and find comfort and strength away from the monotony of daily life.

Lastly, I want to express our heartfelt thanks to everyone who has joined us for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as our mountain film festival continues to grow and evolve. We hope that you can create many precious memories with UMFF this fall. Thank you.

엄홍길
Um Hong-gil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UMFF Festival Director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산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도전 정신을 담은 뛰어난 영화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막작 <눕체: 정상을 향해>에서부터, 티베트 설산을 배경으로 자연과의 존중과 조화에 대해 고찰하는 폐막작 <스노우 레오파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8개국에서 찾아온 97편의 영화가 관객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확장'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제의 외연을 넓혀 새로운 관객층을 발굴하고, 국제산악영화협회(IAMF) 총회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산악영화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돌로미티 - 이탈리아' 주빈국 프로그램을 통해 이탈리아의 빼어난 산악 문화와 영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문화원장을 비롯해 저명한 영화감독, 탐험가, 영화제 인사 등 다양한 이탈리아 게스트들이 참석하여 영화제의 국제적 색채를 한층 더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9회 영화제는 내년에 열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10주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영화제를 통해, 다가오는 열 번째 봉우리를 향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남알프스와 울산대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영화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extend our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shown unwavering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We are thrilled to once again bring you an exceptional selection of films that capture the spirit of mountains, nature, and human spirit of conquest. We eagerly anticipate sharing with you the 97 films from 28 countries, including the opening film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about the relentless pursuit of overcoming personal limits, and the closing film *Snow Leopard*, about respect and harmony with nat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Tibetan snowy mountains.

The keywords of this year's festival can be summed up as "expansion" and "growth." We are broadening the festival's scope to reach new audiences and strengthening our position as one of the top three mountain film festivals in the world by hosting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IAMF) General Assembly.

This year's guest country program, "Dolomite – ITALY," will spotlight Italy's remarkable mountain culture and cinema. Distinguished Italian guests, including the Ambassador of Italy, the Director of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renowned filmmakers, explorers, and film festival figures, will enhance the festival's international colors.

This 9th edition of the festival is also a crucial steppingstone as we prepare for next year's 10th anniversary of UMFF. Through this year's festival, we aim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reaching our tenth peak.

We hope you enjoy the beauty of the Yeongnam Alps and Ulsan Grand Park while immersing yourself in the joy cinema brings.

Thank you.

김두겸
Kim Doo-gyeom

울산광역시장
Mayor of Ulsan Metrocity

'세계인의 사랑받는 영화제로 성장'
반갑습니다.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엄홍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영화제 관계자와 출품 및 공모에 참여하신 영화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산악영화협회(IAMF) 총회 참석을 위해 울산을 방문하신 5대륙 20개국 26개 단체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국제 공모를 통해 엄선된 작품들과 산악영화제의 상징성, 차별성, 그리고 대중성까지 고려한 작품들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의 스크린을 수놓을 것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가족형 상영관 구성 등 대상과 장소에 맞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소년 심사위원, 시민 라이브 더빙 극장, 움프멘터리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이번 산악영화제를 통해 산, 자연, 인간을 담은 영화의 감동을 느껴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이 영화제가 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우리 울산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의 도시'이자 함께 행복한 '꿀잼 도시'입니다. 멋진 영화제를 준비하신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연과 영화를 통해 도시생활의 지친 심신을 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owing Into a Belov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Festival Director Um Hong-gil and all the festival organizers, as well as to the filmmakers who participated in submissions and competitions. I would also like to sincerely welcome the members of 26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across five continents who have traveled to Ulsan to attend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IAMF) General Assembly.

This year's festival will showcase films selected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well as a carefully curated selection of films that highlight the symbolic significance, uniqueness, and appeal of mountain films. These films will grace the screens at th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and the Youth Square at Ulsan Grand Park. In addition, to create a family-friendly atmosphere, we have introduced new programs tailored to different audiences and locations, including family-oriented screening venues.

We have also expanded opportunities for audience participation with programs like the Youth Jury, Citizen Live Dub Theater, and UMFFmentary.

We hope that you find happiness and enrichment in this diverse mountain film festival, through an array of films that capture mountains, nature and humans.

I promise to provide my unwavering support to ensure that this film festival, brought to life by your passion and dedication, continues to grow and move forward with greater dreams and expectations.

Our city of Ulsan, the city of UMFF, is a "City of Dreams" that promises a bright future and a happy "City of Fun". Once again, I extend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worked so hard to prepare this remarkable film festival. May you find peace and renewed energy through the beauty of nature and cinema.

Thank you.

에밀리아 가토
Emilia Gatto

주한이탈리아 대사
Ambassador of Italy

이탈리아 대사로서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름다운 돌로미티가 올해 영화제의 주빈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과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돌로미티의 문화적 중요성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의 활발한 협력으로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열정적으로 기여해 주신 주최 기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관점과 발견, 의미 있는 만남이 가득한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In my capacity as Ambassador of Italy, I am delighted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is year, the breathtaking Dolomite Mountains, an Italian UNESCO World Heritage Site, are highlighted as Festival's Guest of Honor. This will be a wonderful opportunity to showcase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Dolomiti" to the Korean audience, in the year we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taly and Korea as well as the Two-Year Cultural Exchange 2024-2025.

The active collaboration between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Embassy of Italy in Seoul and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deepens the enduring friendship between our two Nations.

Let me thank the hosting organization and its staff for their passionate contributions to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Korea. I am confident that this year's festival will be a resounding success, enriching us with discovery, new perspectives, and meaningful encounters.

Thank you!

축사 Congratulations

최길영
Choi Kil-yeong

울주군의회 의장
Chairman of Ulju Council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장 최길영입니다.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리는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 주신 여러분을 울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영화제 개최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과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이순걸 이사장님, 그리고 엄홍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제산악영화협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협회 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초의 산악 전문 국제영화제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영남알프스와 함께 국내 최고의 도심 속 자연테마공원인 울산대공원에서 펼쳐지는 5일간의 대장정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며,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울산 울주군이 국제적인 산악 문화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everyone!

This is Choi Kil-yeong, Chairman of Ulju Council.

On behalf of the Ulju Council,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everyone who has come to the beautiful Yeongnam Alps to enjoy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Mayor of Ulsan Kim Doo-gyeom for his unwavering interest and support in making this festival possible. I also want to thank Chairman Lee Soon-geol, Festival Director Um Hong-gil, and all the organizers who have worked tirelessly to ensure the success of this festival.

As a form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IAMF), UMFF is hosting this year's IAMF general assembly, as the first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Korea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 hope you fully enjoy the 5-day festival set in the breathtaking Yeongnam Alps and Korea's best urban natural theme park, Ulsan Grand Park. With the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I hope this 9th UMFF will prove to be a springboard for Ulsan and Ulju to further become a global hub of mountain culture.

Thank you.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포스터 Poster

지난 1회부터 8회까지의 UMFF포스터는 자연이 주는 서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산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9회 포스터는 산에 오르는 역동적이고 힘찬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영화제의 슬로건인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오르막을 연상시키는 타이포그래피로 시각적 재미를 주었고, 포스터 전체의 무게 중심을 잡는 산을 오르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러스트를 통해 역동성과 그 과정에서 오는 동지애, 성취감, 그리고 영화제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While the posters for the last 8 seasons of UMFF depi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s and people through lyrical and familiar images of nature, the 9th poster showcases an image of a dynamic and powerful "person" climbing a mountain, in an effort to reflect this year's festival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The typography, reminiscent of an uphill climb, creates a delightful visual to this poster focused on a mountain. The dynamic illustration of people climbing together emphasizes the camaraderie, sense of achievement, and the spirit of our film festival.

문수미
Moon Soo-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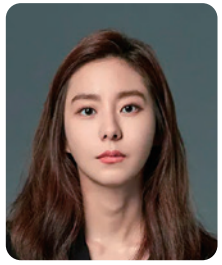
디자이너
Designer

움피니스트 UMFFinist

움피니스트는 영화제의 약칭인 움프(UMFF)와 알피니즘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등반인을 뜻하는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의미합니다.

역대 움피니스트로 배우 이다희, 클라이머 김자인, 배우 서준영, 산악인 김창호와 배우 예지원, 배우 안소희, 진기주, 소유진, 설인아, 박규리, 그리고 배우 고보결이 함께 영화제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움피니스트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는 배우 유이로 선정되었습니다. 배우 유이는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고스트 닥터」, 「효심이네 각자도생」 등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연기상',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멈추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움피니스트 유이와 함께,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루로 바꾸어 살아갈 힘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이
UIE

배우
Actress

UMFFinist stands for UMFF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with the basic meaning of public ambassador for UMFF.

Past UMFFinists included actress Lee Da-hee, climber Kim Ja-in, actor Seo Jun-young, mountaineer Kim Chang-ho, and actresses Ye Ji-won, An So-hee, Jin Ki-joo, So Yoo-jin, Seor In-a, Park Gyu-ri, and Go Bo-gyeol.

Actress UIE who conveys bright and cheerful energy is selected as UMFFinist of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She has been greatly loved as she naturally expresses various emotions and depictions of lives through steady works such as *My Only One*, *Ghost Doctor* and *Live Your Own Life*. UIE is recognized for her acting skills and star quality receiving "the Baeksang Arts Awards for Best New Actress - Television" and "Top Excellence Award, Actress at the KBS Drama Awards", and has more potential for the future. UMFF hopes to convey the strength to go on living to audiences of the festival by turning the ordinary day into a special day with the UMFFinist UIE who enjoys never-stop challenges.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학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 중 영화제 슬로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구의 아들' 릭 리지웨이, 2018년 '최초의 프로 산악인' 크리스 보닝턴 경, 2019년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딤베르거, 2020년 '락 퀸' 카트린 데스티벨, 2022년 '얼음의 전사'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 2023년 '산악문화의 전도사' 스티븐 베너블스에 이어 2024년에는 '평화의 탐사가' 하리시 카파디아가 선정되었습니다.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UMCA)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made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mountain culture, such as nature, environment, climbing films and literature.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was awarded to "son of earth" Rick Ridgeway in 2017, "a first professional mountaineer" Sir. Chris Bonington in 2018,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rock queen" Catherine Desitvelle in 2020, "ice warrior", Krzysztof Wielicki in 2022, "ambassador of mountain culture", Stephen Venables in 2023. For 2024, "explorer for peace", Harish Kapadia has been selected.

하리시 카파디아
Harish Kapadia

UMCA 전시 UMCA Exhibition

일시 Date/Time	9. 5.(목) ~ 10. 1.(화) 11:00 ~ 18:00 Sep. 5(Thu) ~ Oct. 1(Tue) 11:00 ~ 18:00
장소 Venue	코아갤러리(등억꽃향 2층) 2F, COA Art Gallery, Querencia

UMCA 강연 UMCA Lecture

일시 Date/Time	9. 28.(토) 13:30 Sep. 28(Sat) 13: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구성 Content	UMCA 수상자 강연(60분) + 질의응답(30분) UMCA Lecture (60min) + Q&A (30min)

* 강연이 끝난 후 핸드프린팅 행사가 진행됩니다.
* The hand-printing event will be held after the lecture.

영화 <시아첸, 얼음 전쟁> 상영 FILM Screening *Siachen, A War for Ice*

일시 Date/Time	9. 29.(일) 10:30 Sep. 29(Sun) 10: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구성 Content	영화 상영(82분) + 게스트와의 만남(30분) Film Screening (82min) + Q&A (30min)

* 영화 <시아첸, 얼음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북 72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o find out more about the film *Siachen, A War for Ice*, Please check the 72 pages of this book.

2024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하리시 카파디아

하리시 카파디아(Harish Kapadia·79)는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 천착해 탐사 지식의 축적과 분석, 보급은 물론 산악 분쟁 지역의 평화운동에까지 큰 공로를 한, '평화의 탐사가'입니다.

카파디아는 현장에서 활동하던 40여 년 동안 30여 개의 고산을 등정했고 170여 곳이 넘는 인적 드문 산악 고개를 탐사했으며, 총 18권의 탐사지리 서적을 펴냈고, 이어 권위 있는 「히말라야 저널」의 편집장을 35년 동안 역임하며 한평생 탐사 지평의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반세기 넘게 국경분쟁으로 유혈 사태가 이어진 카라코람산맥 일대와 이를 대표하는 시아첸 빙하 주변의 평화운동에도 앞장서서, 이곳 일대를 '시아첸 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평화운동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탐사에서 세운 지대한 공로는 영국 국왕이 재가하는 왕립지리학회의 '패트론 메달', 인도 대통령이 수여하는 '텐징 노르가이 국립 모험상', 스위스의 '킹 알베르트 금메달', 아일랜드의 '조스 리남 메달' 등의 수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특히 2017년에는 '산악등반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황금피켈상 아시아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내한한 바 있습니다.

카파디아의 한결같은 탐사 열정과 그로부터 이어진 평화를 향한 신념은 온갖 갈등과 환경파괴로 신음하는 온 인류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2024년 슬로건인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은 카파디아의 탐사 일생을 통해 더욱 그 의미가 뜻깊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최중기 (위원장) 한국산과등산학회 회장
안치운 前 호서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오영훈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정일근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실무위원

배경미 (사)대한산악연맹 부회장
이영준 알피니스트코리아 발행인

UMCA 2024 Harish Kapadia

Harish Kapadia(79) is an "explorer for peace" who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ccumula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the exploratory knowledge in the Himalayas, as well as to peace efforts in mountain conflict zones.

During his 40-some years of explorations, Kapadia has climbed more than 30 high peaks and crossed over 170 remote mountain passes. He has also authored 18 books on exploration geography and served as the editor of the prestigious *Himalayan Journal* for 35 years, dedicating his life to expanding the horizons of exploration. Particularly noteworthy is his pioneering of the peace efforts surrounding the Siachen Glacier in the Karakoram Range, a region marred by violent border disputes persisting over half a century, leading the campaigns for the "Siachen Peace Park" initiative. He has been recognized for turning a personal tragedy into a catalyst for peace activism after his soldier son died while serving in that region.

Kapadia has been widely recognized for his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 Himalayan explorations through prestigious award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s "Patron's Medal" bestowed by the reigning monarch of the United Kingdom, the "Tensing Norgay National Adventure Award" awarded by the President of India, the "King Albert Gold Medal" from Switzerland, and the "Joss Lynam Medal" from Ireland. In 2017, he visited Korea to be awarded with the "Piolets D'or Asia",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Oscar award of mountaineering.

Kapadia's unwavering passion for exploration and the ensuing faith in peace resonates deeply in a world full of conflic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slogan for the 2024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e up higher, Cinemountain", will undoubtedly find even deeper significance through his lifelong journey of exploration.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Committee

UMCA Committee

Choi Joong-ki (Chairman of UMCA Committee) Chairman of 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Ahn Chi-woon Former Professor, Hoseo University, Theater Critic
Oh Young-hoon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Young-mok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Chung Il-keun Chair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UMCA Administrative Committee

Christine Kyung-mi Pae Vice President of Korea Alpine Federation
Albert Lee Publisher of Alpinist Magazine in Korea

경쟁부문 및 시상안내 Competition & Award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 Grand Prize	트로피, 상금 10,000,000원	Trophy, 10,000,000 KRW
작품상 Best Film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감독상 Best Director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촬영상 Best Cinematography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Prize	트로피, 상금 3,000,000원	Trophy, 3,000,000 KRW

* 국제경쟁 본선 진출작은 국제경쟁 섹션 4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finalist films are introduc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on pages, 48.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넷팩상 NETPAC Award	넷팩 공인상장, 부상	NETPAC Certificate, A prize gift
청소년심사위원상 Youth Jury Award	UMFF 공인상장, 부상	UMFF Certificate, A prize gift

산 섹션 관객상 Audience Award of Mountain section

관객상 Audience Award	UMFF 공인상장, 부상	UMFF Certificate, A prize gift

경쟁부문 예심위원 Preliminary Jury

산까치
H. Jay

영화학 박사과정 수료 후 한 대학의 영화연구소에서 영화의 창조적 의미화에 관심을 갖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그 원리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창작자의 꿈을 이루고자 모든 걸 정리하고 히말라야 발치에서 2년여를 보냈다. 현재까지도 창작자의 꿈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다.

H. Jay worked at a university institute of film in Seoulafter completing a doctoral degree in film aesthetics. He had an interest in unique ways to create themeaning of film and through his studies and his time at the institute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signification using conceptual blending theory. However, all of a sudden, he left to the Himalayasso as to pursue his old dream as a film creator. After coming back to Korea, he is still seeking to fulfill his dream.

오영훈
Oh Young-Hoon

산악스포츠를 연구한 인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이다. (사)대한산악연맹과 국제산악연맹(UIAA)에서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셰르파, 히말라야 등반가』, 역서는 『클라이밍 트레이닝: 등반력 향상을 위한 훈련법 가이드』,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산 등산의 생명정치」, 「설악산의 이단자들」, 「일제 강점기 한국의 전문등반 정착과 전개 과정 연구」 등이 있다.

Oh Young-Hoon is anthropologist, mountaineer, and administator. He has climbed extensively, from rocks and ice in South Korea to Mount Everest in Nepal, and now serves at both of the Management Committees for Korea Alpine Federation and for International Climbing and Mountaineering Federation. He is currently a researcher in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송이
Han Song-yi

영화평론가. 영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오랫동안 영상제작과 시나리오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도 서울에서 영화제작을 가르치는 중이다. 과거 산악동호회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

A film critic, Han Song-yi has completed a PhD degree in film studies and has created films and instructed scenario writing over several years and is still teaching filmmaking in Seoul. She takes a part in preliminary jury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 of climbing club years ago.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하비에르 바라야사라
Javier Barayazarra

2008년 빌바오영화제를 창립했으며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와 남미의 20개국을 대표하는 26개의 산악영화제 및 산악박물관으로 구성된 국제산악영화협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산악인이면서 카메라맨이자 감독인 그는 포우 형제가 출연한 다큐멘터리들로 잘 알려져 있다.

Javier Barayazarra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the Bilbao Mendi Film Festival which he founded in 2008. He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an association composed of 26 Festivals of Mountain Film and a Mountain Museum, which represent 20 countries of Europe, Asia, Oceania and North and South America. He is a mountaineer, cameraman and director. His documentaries with Eneko and Iker Pou are some of his most well-known works.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Francesco Clerici

밀라노대학교 미술사 전공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대학교수. 그의 첫 번째 영화인 <손의 제스처>는 2015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들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빈국제영화제, 사라예보영화제, 런던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Graduated in Art History at the Università Statale in Milan, he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director and a university professor. His first film, *Hand Gestures*, was presented at the Berlin Film Festival in 2015 where it won the FIPRESCI award. His works have been presented in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Viennale, Sarajevo film festival, London Film festival.

김혜나
Kim Hye-na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졸업. 영화 <꽃섬>(2001)으로 데뷔했다. <수영제과>(2024) 외에도 <그녀의 취미생활>, <말임씨를 부탁해>, <긴 하루>, <더 씨엠알>과 드라마 「보이스 3」,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등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연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편 <시기막질>(2023)을 연출하면서, 감독으로 첫발을 디뎠다.

Kim Hye-na graduated from the Acting Departmen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debuted in the film *Flower Island* (2001). She has been active in a variety of genres, appearing in works such as *Suyeong Bakery* (2024), *Take Care of My Mom* (2022), *A Long Day* (2021), *The CMR* (2020), *Voice 3* (2019) and *Psychopath Diary* (2019). She directed the short film *Errand* (2023), her first directorial work.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전진수
Chun Jin-su

철학을 전공하고, 조감독, 음악 프로듀서로 일한 뒤,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다. 2000년부터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KBS와 MBC 등 여러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2005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이다.

Chun Jin-su majored in philosophy and worked as a assistant director, music producer before studying Documentary at the University of Paris 8 in France. In 2005, he started working as a programmer at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orked as a programmer at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from 2006 to 2019. Since 2020, he has been working as a programmer at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하찬수
Ha Chan-soo

등반과 산악문화에 관심있는 산악인으로 대학 및 등산학교에서 캠핑과 스포츠클라이밍을 가르쳤다. 매킨리 신루트를 개척했고 칸첸중가, 가셔브룸 2 · 4봉, 안나푸르나, 초오유, 시샤팡마, 초모롱마, 탈레이사가르 등 등반 경험이 풍부하다. 계명대학교 산악회와 한국산악회 회원이다

As an enthusiast of climbing and mountain culture, Ha Chan-soo has taught camping and sport climbing at universities and mountaineering schools. He pioneered the new route on McKinley and has extensive climbing experience on Kanchenjunga, Gasherbrum II and IV, Annapurna, Cho Oyu, Shishapangma, Chomolungma, and Thalay Sagar. Ha is a member of the Keimyung University Mountaineering Club and the Corean Alpine Club.

아시아경쟁 - 넷팩 심사위원 Asian Competition - NETPAC Jury

바산타 타파
Basanta Thapa

아시아 최초의 산악영화제로 2000년 설립되어 21회를 맞이한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의 창립 의장이자 고문. 네팔 유명 잡지의 칼럼니스트였으며 편집장이기도 했다. 작가이자 번역가이며 출판사 대표인 그는 카트만두에 살고 있다.

Basanta Thapa is the Founding Chair and now Advisor of the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KIMFF), the pioneering mountain festival of Asia that debuted in 2000 and twenty first editions of the festival have been held so far. Thapa used to be the editor and later a columnist of a popular Nepali magazine. A well-known writer, translator, and book publisher, Thapa lives in Kathmandu.

칼라시 난다 쿠마르
Kalash Nanda Kumar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화제작자이자 비평가 겸 언론인. 영화제작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주요 제작사에서 일했다. 2022년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의 말레이시아 최초 회원이 되었고 최근 골든글로브시상식의 국제 투표자로 선정되었다. 칼라시는 다양한 지역 영화제와 국제영화제에 심사위원, 프로그래머, 진행자로 참여해왔으며 언론인으로서 자국 내 여러 매체에서 시사 문제를 보도했다.

Kalash Nanda Kumar is a filmmaker, critic and journalist from Malaysia. 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filmmaking and has worked on several major productions. In 2022, he became the first Malaysian member of FIPRESCI and was recently selected as an international voter for the Golden Globe Awards. Kalash has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regional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erving as juror, programmer, and facilitator. As a journalist, he covered current affairs with bylines in various national outlets.

공민정
Gong Min-jeung

대한민국의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허물며 종횡무진하고 있다. 「갯마을 차차차」,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작은 아씨들」, <82년생 김지영>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관객의 마음에 스며드는 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다. 연기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연기가 하고 싶은 배우이다.

Korean actress performing actively in TV series and films, appearing in many works such as *Hometown Cha-Cha-Cha*, *Marry My Husband*, *Little Women*, and *Kim Ji Young: Born 1982*. She is beloved for her natural and sincere acting and hopes to continue to act as she loves to act.

최진영
Choi Jin-young

전주 출생, 사회학을 공부하고 전주에서 꾸준히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마리와 레티>, <낙원동>, <반차>, <연희동>, <태어나길 잘했어>의 각본, 연출, 편집, 제작을 했으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했다. <태어나길 잘했어>는 2022년에 개봉하였다.

Born in Jeonju, Choi Jin-young majored in sociology and has been involved in filmmaking. She is the director, producer, writer and editor of her works *Mary & Retty*, *Nagwondong*, *The Half-day*, *Yeonhuidong*, and *The Slug* which were screen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nd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The Slug* was released in 2022.

아시아경쟁 - 청소년심사위원 Asian Competition - Youth Jury

2019년부터 울산지역 청소년과 함께하고자 시작된 청소년심사위원은, 아시아경쟁부문 후보작을 심사하여 그 중 한 작품을 시상한다. 올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의 참여로 넷팩상과는 또 다른,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역 청소년에게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감성을 영화를 통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풍성하고 참신한 영화제가 되고자한다.

The Youth Jury was established in 2019 to engage with young people in Ulsan. The jury is responsible for judging and awarding one of the films competing in the Asian Competition section. This year, jury members were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nd will select the winning film with a fresh and creative perspective, distinct from the NETPAC Award. UMFF aims to provide the local youth with the opportunity to explore diverse Asian cultures and emotions through cinema, thereby creating a fuller and richer festival experience.

청소년심사위원
Youth Jury

김도예, 김무진, 김미형, 윤아정
Kim Do-ye, Kim Mu-jin, Kim Mi-hyeong, Yoon A-jeong

아시아경쟁 후보작 Asian Competiton Nominees

산 Mountain	눈이 녹은 후에 After the Snowmelt	뤄 이산 Yi-Shan Lo	Taiwan, Japan | 2024 | 111min | Color, B&W | Documentary
	로프 Rope	와다 모에 Moe Wada	Japan | 2023 | 30min | Color | Documentary
자연 Nature	대장부 아티르큘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자닐 주습잔 Janyl Jusupjan	Kyrgyzstan, France, Czech Republic | 2023 | 65min | Color | Documentary
	디예의 시간 Dhye Dreams	샨타 네팔리 Shanta Nepali	Nepal | 2023 | 28min | Color | Documentary
	총을 든 스님 The Monk and the Gun	파우 초이닝 도르지 Pawo Choyning Dorji	Bhutan, USA, France, Taiwan | 2023 | 107min | Color | Fiction
인간 Human	행복 검침 왔습니다! Agent of Happiness	아룬 바타라이, 도로티야 주르보 Arun Bhattarai, Dorottya Zurbó	Bhutan, Hungary | 2024 | 94min | Color | Documentary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 Bok-soon's One-day Class	최범찬 Choi Beom-chan	Korea | 2023 | 38min | Color | Fiction
	트랙_잉 Track_ing	이찬열, 조한나, 삼갈 락힘, 알리 티니베코브 Lee Chan-yeol, Cho Han-na, Samgar Rakym, Ali Tynybekov	Korea, Kazakhstan | 2024 | 23min | Color | Documentary, Experimental
	해야 할 일 Work to Do	박홍준 Park Hong-jun	Korea | 2024 | 101min | Color | Fiction
투게더 Together	TV가 사라진 세상 Things Unheard Of	라마잔 클루치 Ramazan Kılıç	Türkiye | 2023 | 16min | Color | Fiction

2024 움프서밋 UMFFsummit 2024

움프서밋은 국내 산악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 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3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4편을 선정했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추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UMFFsummit is a program that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has supported since 2015 to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s with the theme of Mountains. The festival selects around three titles every year and supports them. This year, 4 films were chosen from the submissions. The selected projects for UMFFsummit 2024 will be world-premiered at UMFF.

* 2024 움프서밋 상영작은 움프 프로젝트 섹션(15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screening films list of this year are introduced on the UMFF project pages, 152.

2024 움프서밋 지원작 UMFFsummit 2024 Projects

도반 Do-ban	감독 신나리 Director Seen Na-ri	장편 다큐멘터리 Feature Documentary
메마른 판타지아 the HOLE	감독 이지원 Director Lee Ji-won	단편 극영화 Shorts Fiction
무진 Mu jin	감독 김전한 Director Kim Jeon-han	장편 극영화 Feature Fiction
엔드 오브 바르도 End of Bardo	감독 김한범, 김예겸 Director Kim Han-bum, Kim Ye-gyem	단편 실험영화 Shorts Experimental

움프서밋 예선 심사위원 UMFFsummit Preliminary Jury

김영조
Kim Young-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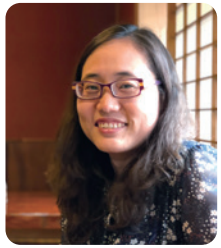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을 설립하여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하였고 현재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im Young-jo graduated at the University of Paris 8 in France majoring in film. He founded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and produced and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Currently he teaches students at the Digital Content Department of Dong-eui University.

이지현
Lee Ji-hyun

1978년생으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박사를 졸업했다. 제13회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해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사 롱메트라지필름의 대표이다. 제작한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2014), 미디어아트 <70mK-Just simply Korea>(2018), 극영화 <세상의 아침>(2020),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2021) 등이 있다.

Born in 1978, Lee Ji-hyun graduated with a doctorate in Theater and Film at Hanyang University. She debuted as a critic at the 13th Cine 21 Film Criticism Awards and is the CEO of Longmetragefilm production. She produced *Winter Garden*(2014), *70mK-Just simply Korea*(2018), *Mornings of the World*(2020), *Chasing Wires*(2021), among others.



최유진
Choi Yu-jin

2007년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문화연구전공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졸업. 2006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국에 들어와 2007년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사무국장을 거쳐 2017년부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립애니메이션 관련 상영 및 배급, 교육, 정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Yu-jin graduated from University with a Bachelor of History and obtained her master degre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Cultural Studies in 2007. As a professional, Yu-jin had been invited as committee member of several film festivals and writes articles and reports regularly. She was general manager of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from 2007 to 2023. She has been festival director of Indie-AniFest since 2017.

움프서밋 본선 심사위원 UMFFsummit Final Jury

김일권
Kim Il-kwon

독립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시네마 달의 대표로, <잡식가족의 딜레마>, <당신의 사월>, <야간비행>, <만인의 연인> 등을 작품들을 제작 배급하였다.

Kim Il-kwon is the CEO of Cinema Dal producing and distributing independent films such as *An Omnivorous Family's Dilemma*, *Yellow Ribbon*, *Night Flight*, and *Nobody's Lover*.

김희영
Kim Hee-young

㈜케이드래곤 대표. 2023년 드라마 「핀란드파파」를 제작했다. 2022년 장편영화 <심야카페:미씽허니>를 제작, 하와이국제영화제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부문에 초청되었다. 2020~21년 드라마 「심야카페」 시리즈를 제작, 독일 디제리알레 등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케이드래곤 설립 전, VFX스튜디오, ㈜매크로그래프의 기획이사와 ㈜서울경제신문의 영화산업담당 취재기자를 했다. 2024년 현재, 스릴러영화 <원정빌라(가제)> 개봉을 준비 중이다.

Head of K-Dragon Pictures. Kim Hee-young produced the drama *Finland Papa* in 2023. She produced the feature film *Cafe Midnight: Missing Honey*, which was invited to the Spotlight on Korea section of the Hawaii IFF in 2022. Her drama series *Cafe Midnight* won the best director and best picture awards at Die Seriale and other drama festivals in 2020~2021. Now in 2024, she is preparing to release the thriller film *VILLA Wonjeong*. Prior to found K-Dragon Pic, she was an executive producer at the Korean VFX studio, Macrograph and worked as a film industry reporter at the Seoul Economic Daily Newspaper.

최윤
Choi Yoon

최윤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교장,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다수의 영화에 프로듀서 및 제작자로 활동하였으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화제와 기관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유비콘텐츠2 대표이자 ㈜바른손랩스 콘텐츠 총괄 이사로 재직 중이다.

Choi Yoon was Director of the Busan Film Commission, Director of the Busan Asian Film School, and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Department of Film Studies). He has worked as a producer and executive producer in a number of films, and has been a judge at various film festival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24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EO of Ubicontent2 and the general director of contents at Barunson Labs.

2024 움프멘터리 UMFFmentary 2024

'움프멘터리(UMFFmentary)'는 움프(UMFF)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합성어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 움프멘터리에 선정된 팀은 4팀이며 멘토와 함께 울산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진행한다. 팀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15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된다.

UMFFmentary is a combination of the two words: UMFF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roduction of films. 4 teams were selected for UMFFmentary 2024 for a chance to work with mentors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Ulju. Each team will be given 1.5 million won in production costs, and will produce a short film around 15 minutes. Completed films will be formally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 2024 움프멘터리 상영작은 움프 프로젝트 섹션(15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screening films list of this year are introduced on the UMFF project pages, 152.

2024 움프멘터리 프로젝트 UMFFmentary 2024 Projects

제작기간 Production Period	2024. 2. ~ 2024. 7.
공동주최 Joint Hosting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munity Media Foundation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움프멘터리 멘토 UMFFmentary Mentor

김영조
Kim Young-jo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을 설립하여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하였고 현재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im Young-jo graduated at the University of Paris 8 in France majoring in film. He founded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and produced and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Currently he teaches students at the Digital Content Department of Dong-eui University.

김도희
Kim Do-hee

2005년 '이스크라21'에서 영상을 시작, 2009년부터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항로-제주, 조선, 오사카>(2015)에 조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에 관한 기록 및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우토로 마을을 기억합니다>(2020)를 연출했으며, <차별>(2023)을 김지운 감독과 공동연출하며 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아시아발전재단상를 수상한 바 있다.

Kim Do-hee began working on films with ISKRA21 in 2005. In 2009, began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Koreans living abroad and participated as an assistant director on *Course – Jeju, Joseon, Osaka*, and continues to document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Kim directed *I Remember the Village of Utoro*(2020), and co-directed *Discrimination*(2023) with director Kim Ji-woon, receiving the Asia Development Foundation Award at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문창현
Moon Chang-hyeon

2011년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을 만들었다. 영화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출작으로 20대 후반, 흔들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 <나와 나의거리>, 영주댐으로 수몰되는 할머니 집을 기록한 장편 다큐 <기프실>이 있다. 현재 장편 다큐 <구미의 딸들>, <#with you>를 연출 중이며,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영화상영기획,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Moon Chang-hyeon founded the documentary creative community Ozifilm in 2011 in Busan and identifies himself as a Cine Activist. Her main works include *Between Me and I*, a short biographical documentary about his turbulent 20s, and *GIPEUSIL*, a documentary about a grandmother's house that was submerged by the Youngju Dam. She is currently direct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Daughters of GUMI* and *#with you*, while she is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lm screening planning and media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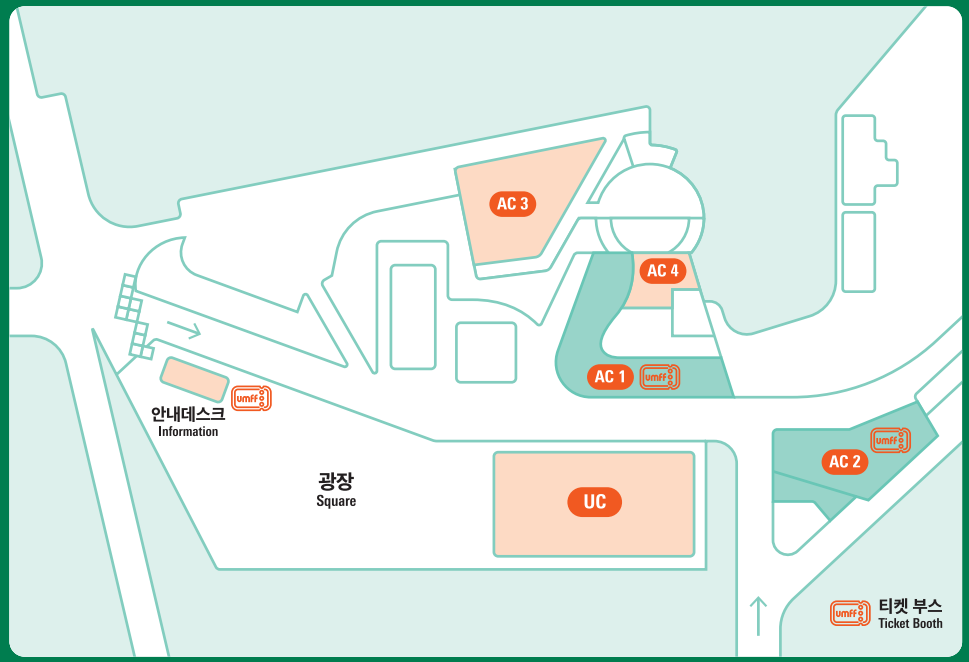
신나리
Seen Na-ri

신나리는 삶과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심도있게 풀어내는 감독이다. 영화 <그 자리>(2015)로 FishEye 국제영화제 나의 도시부문 1등 상을 수상했고, <천국 장의사>(2015), <9월>(2017)은 전 세계 14곳의 영화제에 소개되었으며, <붉은 곡>(2018)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녹>(2018)은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Seen Na-ri's documentaries provide an in-depth look into the hidden stories in life and cities. Her first short *That Place* won first place in the My City section at the Fish Eye Festival. Seen's other films are *Heaven's Touch*, *September* which was introduced at fourteen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The Red Cave* which was shown at UMFF 2018, and *The Rust* which received the Special Jury Prize at the Busan Independent Film Festival.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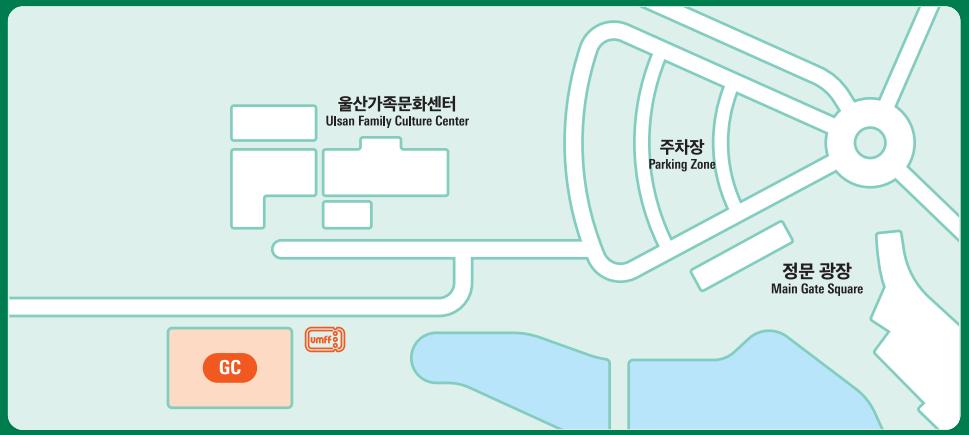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Address: 103-8, Alpeuseuoncheon 5-gil, Sangbuk-myeon, Ulju-gun, Ulsan, Korea



상영관 코드 Theater Code	상영관 명칭 Theater	위치 Venue	좌석제 Seating
UC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광장 Square	비지정 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AC 1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산악문화관 Moutain House	지정 좌석제 Designated Seats
AC 2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영상체험관 Experience House	지정 좌석제 Designated Seats
AC 3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피크닉장 Picnic Zone	비지정 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AC 4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비지정 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 Ulsan Grand Park Youth Plaza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94
Address: 94, Daegongwon-ro, Nam-gu, Ulsan, Korea



상영관 코드 Theater Code	상영관 명칭 Theater	위치 Venue	좌석제 Seating
GC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 Ulsan Grand Park Youth Plaza	비지정 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온라인 상영관의 상영작을 영화제 기간동안 무제한 관람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구매 이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10. 1.(화)까지 언제든지 온라인 상영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The ticket gives access to UMFF on Air screenings during the film festival.
After purchasing and simple verification, enjoy UMFF on Air anytime through Oct.1(Tue)

관람 방법	How to View
①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 상영관 접속	Official Website(Umff.kr) > UMFF on Air
②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구매 후 본인 인증	Purchase the UMFF on Air Ticket, make verification
③ 온라인 상영작 관람 - 재입장 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바로 관람 가능 - 무단 촬영 및 영상 캡처 시 저작권법 제104조 6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View online screenings - Upon re-entry, make simple verification before viewing - Unauthorized filming and/or video capture may result in imprisonment of up to 10 million KRW pursuant to Article 104, item 6.

티켓 Ticket Information

종류 Type	가격 Cost	안내 Guide
영화 / 페스티벌 **Film / Festival**	3,000 KRW	영화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티켓 Tickets for films and various festival programs
비박 상영 **Bivouac Screening**	10,000 KRW	- 알프스 시네마 3에서 비박을 하며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의 티켓 - 비박 상영은 움프 패스로 예약 불가 - Tickets for watching films while Bivouacking at Alps Cinema 3 - Bivouac Screenings cannot be reserved using the UMFF Pass.
움프 패스 **UMFF Pass**	15,000 KRW	- 영화 프로그램 + 페스티벌 프로그램 + 온라인 상영관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형 티켓 (1인 1매 구매 가능) - 영화 + 페스티벌 프로그램 1일 최대 5회차까지 예약 가능 - 9. 26.(목) 24:00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 - This integrated ticket allows booking of film programs + festival programs + online screenings(Limited to use by a single person). - Up to 5 sessions of film + festival programs can be reserved per day. - Cancellation and refunds are not available after Sep. 26(Thu) 24:00.
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 Online Screening**	5,000 KRW	- 온라인 상영관의 상영작을 영화제 기간동안 무제한 관람할 수 있는 티켓 - 9. 26.(목) 24:00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 - Ticket provides unlimited access to all online screenings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film festival. - Cancellation and refunds are not available after Sep. 26(Thu) 24:00.

예매 Booking

	온라인 예매 Online	현장 예매 On-site
예매 기간 **Booking Period**	8. 26.(월) 14:00 ~ 10. 1.(화) 해당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까지 Aug. 26(Mon) 14:00 - Oct. 1(Tue) From 2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program	9. 27.(금) ~ 10. 1.(화) 09:00 ~ 20:00 Sep. 27(Fri) - Oct. 1(Tue) 09:00 - 20:00 * 현장 예매는 당일 프로그램에 한해 예매 가능합니다. * On-site tickets are available for same-day program.
예매 방법 **Booking Method**	공식 홈페이지 > 예매/상영 Official Website(Umff.kr) > Ticket/Screening	광장 티켓부스, 알프스 시네마 1, 2 티켓부스 Square Ticket Booth, Alps Cinema 1, 2 Ticket Booth * 비지정석 상영관은 각 상영관 입구에서 결제 후 입장 가능합니다. * Non-designated seats theater can be accessed after purchase at the entrance of each theater.
결제 수단 **Payment Method**	신용/체크카드, 문화누리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울산페이 Credit Card, Munhwa Nuri Card, Mobile Pay, Ulsan Pay	

* 모든 상영은 정시 이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After program begin, no cancellation or refund.

관람 유의사항 Screening Rules

비박 상영

* 비박: 텐트를 치지 않고 지형과 지물을 활용해 야영하는 일
- 비박 상영은 24:00부터 인터미션 없이 연속 상영됩니다.
- 비박을 위한 침낭, 돗자리 등은 개별로 준비하셔야 하며, 전열기구는 불가합니다.
- 비박 상영이 있는 알프스 시네마 3은 오픈된 야외공간으로 비박 물품 설치 시 다른 관람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시상영이 원칙이며 22:00부터 입장을 시작해 23:30까지 비박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페스티벌 프로그램

-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온라인 매진 시 현장 예매가 불가합니다.
- 자연에서 채우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작 20분 전까지 도착 바랍니다.
- 자연에서 노래하다는 해당 영화를 예매하면 공연까지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움프 패스

- 온라인 예매 시 움프 패스 소지자는 예매하기 클릭 후 결제없이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 영화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합해 1일 최대 5회차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각 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램 당 1인 1매만 예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 모두 가능합니다.
- 움프 패스로만 입장은 불가하며, 예매를 통해 티켓을 소지하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 수칙

- 모든 영화와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정시에 시작됩니다.
- 움프 시네마와 대공원 시네마는 정시 30분 전, 알프스 시네마 1~4관은 정시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예매한 지정 좌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트레일러, 엔딩 크레딧을 포함하여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재입장 시 티켓 재확인을 진행하오니 티켓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본 행사장에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하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Bivouac Screening

* Bivouac: camping outdoors without a tent, using natural terrain and landmarks
- Bivouac screenings will run continuously without intermission beginning at midnight.
- Please bring your own sleeping bags and mats; electric appliances are not allowed.
- Bivouac screening will take place in Alps Cinema 3, an open outdoor space. When setting up your bivouac gear, please make sure that you don't disturb other viewers.
- Screenings will start on time. Entry will begin at 10PM, and bivouac preparations must be completed by 11:30PM.

Festival Program

- If a festival program is sold out online, on-site purchasing will not be available.
- For a seamless experience of Playing in Nature, please arrive at least 20 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 Your ticket to films in Singing in Nature includes access to the performance.

UMFF Pass

- When booking online, UMFF Pass holders can make reservations without making payments.
- Up to 5 reservations can be made per day, including both films and festival programs.
- An UMFF Pass holder can only make a reservation for one person per film/festival program.
- Both online and on-site reservations are available.
- The UMFF Pass alone does not grant entry into a program; you must make a reservation and have a ticket to gain entry.

Screening Rules

- All films and festival programs will start on time.
- Doors to UMFF Cinema and Grand Park Cinema will open 30 minutes before start of program, and Alps Cinemas 1-4 will open 15 minutes before start of program.
- We cannot guarantee that your reserved seats will remain vacant if you are late.
- All photography and video recording are prohibited, including that of trailers and ending credits.
- Tickets will be checked upon re-entry, so please make sure to have your ticket if you need to leave.
- Photos and recordings from this festival area may be used for promotional purposes by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온라인 상영관 작품리스트 UMFF on Air Films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온라인 상영관은 22편으로 운영되며, 폐막 전 경쟁부문의 수상 후보작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The UMFF on Air of the 9th UMFF will have 22 films, and candidates for awards in the competition category may be added before closing.

온라인 상영작 UMFF on Air Films

작품명	Title
디어 마더	Dear Mother
디예의 시간	Dhye Dreams
라스트 스키어	The Last Skiers
로프	Rope
마지막 관찰자	The Last Observers
마지막 빛	Last Ray
바다의 딸	Daughter of the Sea
바디 오브 라인	Body of a Line
빈센트	Vincent
사솔의 오디세이	Sasol Odyssey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숲 속의 저녁	Even Tide
아이스 빌더	The Ice Builders
어떤 기상관측카메라의 기록	Recordings of a Weather Camera
에베레스트 1924 - 2024	Everest Revisited 1924 - 2024
엑스칼리버	Excalibur
열일곱	Seventeen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Keep It Burning
재탄생	Continuum
크로노셉션	Chronoception
클라이머 프레데릭	Climbing for Gold
탈론과 리키의 도전	Slides on the Mountain

상영
Screening

상영 +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Screening + Talking in Nature

상영 + 자연에서 노래하다
Screening + Singing in Nature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Talking in Nature

등급 Ratings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극장 Theaters

UC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AC1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AC2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AC3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AC4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GC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코드 Codes

Q&A	게스트와의 만남	Q&A session
TALK	움프 토크	UMFF Talk
PF	공연	Performance
BF	배리어프리 상영	Barrier-free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히말라야 쏘롱라, 5,416m>, <총을 든 스님>, <3일의 휴가>, <퍼펙트 데이즈>, <여덟 개의 산>은 영어 자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프스 시네마 1, 2관의 모든 상영작에는 상영 전 해설이 제공됩니다.
자연에서 이야기하다(게스트와의 만남, 움프 토크)는 상영 이후 30분 정도 진행되며,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박 상영은 상영작 간 인터미션이 없습니다.

All films in foreign language have Korean subtitles.
Except for *Himalayas Thorong La, 5,416m*, *The Monk and the Gun*, *Our Season*, *Perfect Days*, and *The Eight Mountains*, all films in non-English have English subtitles.
All screenings in Alps Cinema 1 and 2 are accompanied by a pre-screening commentary.
The pre-screening commentary, Korean film Q&As, and some UMFF Talk does not offer English interpretation.
Talking in Nature(Q&A, UMFF Talk)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Talking in Nature(Q&A, UMFF Talk) will be for 30 minutes after the screening.
There is no intermission between the Bivouac Screening films.

9.27. (Fri)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8:30
개막식
눕체: 정상을 향해
Opening Ceremony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67min Ⓖ 44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투게더 1
Together 1
41min Ⓖ 134p
Q&A

13:00
대장부 아티르큘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65min Ⓖ 84p

16:00
눈이 녹은 후에
After the Snowmelt
111min ⑫ 70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투게더 2
Together 2
42min Ⓖ 138p
Q&A

13:30
와일드 패밀리
A New Kind of Wilderness
84min ⑫ 56p

16:30
양치기 펠릭스
A Shepherd
71min Ⓖ 55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4:00
산 1
Mountain 1
65min Ⓖ 75p

23:59
비박 상영 1
Bivouac Screening 1
284min ⑫ 49p, 48p, 107p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10:30
투게더 3
Together 3
46min Ⓖ 142p
Q&A

13:30
투게더 4
Together 4
48min Ⓖ 146p
Q&A / PF

16:00
3일의 휴가
Our Season
105min ⑫ 92p
BF

18:30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86min ⑫ 121p
Q&A / PF

9.28. (Sat)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1:30 투게더 2 Together 2 42min Ⓖ 138p TALK		15:30 꿈을 향한 트레일 Trail of Dreams 91min Ⓖ 50p PF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국제경쟁 1 IC Films 1 66min Ⓖ 58p Q&A	13:00 보이지 않는 봉우리 Invisible Summit 89min Ⓖ 52p Q&A	16:00 자크, 여기 있다 Jacques 91min Ⓖ 57p Q&A	19:00 여름이 지나가면 When This Summer is Over 115min Ⓖ 96p Q&A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돌로미티 - 이탈리아 1 Dolomite - ITALY 1 28min Ⓖ 110p Q&A	13:30 UMCA 강연 UMCA Lecture 90min 17p	16:30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91min Ⓨ 124p Q&A	19:30 장손 House of the Seasons 121min Ⓨ 97p Q&A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1:00 오직 물과 바람만이 It's Just Water and Wind 54min Ⓖ 107p TALK	14:00 소풍 Picnic 115min Ⓨ 94p Q&A	17:00 산 2 Mountain 2 59min Ⓖ 77p Q&A	19:00 수영제과 Suyeong Bakery 95min Ⓖ 95p Q&A	23:59 비박 상영 2 Bivouac Screening 2 241min Ⓖ 61-63p, 51p, 54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8:30 엑스칼리버 Excalibur 28min Ⓖ 105p TALK / PF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11:00 히말라야 쏘롱라, 5,416m Himalayas Thorong La, 5,416m 55min Ⓖ 74p TALK	13:30 자연 Nature 63min Ⓨ 86p TALK	16:00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 Bok-soon's One-day Class 38min Ⓖ 118p Q&A / PF	19:00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 87min Ⓖ 93p PF	

9.29. (Sun)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1:30 총을 든 스님 The Monk and the Gun 107min Ⓖ 85p		17:00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78min Ⓖ 53p PF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내가 만난 사람들 People I Meet 105min Ⓑ 154p Q&A	13:00 흙의 숨, 진도이야기 A Breath of Earth, Jindo Story 65min Ⓖ 155p Q&A	16:00 희망의 발견 Looking for Hope 101min Ⓖ 156p Q&A	19:00 움프서밋 UMFFsummit 58min Ⓖ 157p Q&A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시아첸, 얼음 전쟁 Siachen, A War for Ice 82min Ⓨ 72p Q&A	13:30 아시마 Ashima 87min Ⓖ 54p Q&A	16:30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86min Ⓨ 121p Q&A	19:30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92min Ⓖ 126p Q&A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1:00 거대한 백경 The Great White Whale 105min Ⓨ 49p Q&A	14:00 로프 Rope 30min Ⓖ 71p TALK	16:30 국제경쟁 2 IC Films 2 77min Ⓖ 61p Q&A	19:00 양치기 펠릭스 A Shepherd 71min Ⓖ 55p Q&A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9:30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 87min Ⓖ 93p PF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11:00 해야 할 일 Work to Do 101min Ⓨ 120p Q&A		15:00 국제경쟁 3 IC Films 3 77min Ⓖ 64p Q&A	18:00 퍼펙트 데이즈 Perfect Days 125min Ⓨ 98p PF
세미나실 Seminar Room	11:00 한국 젊은 산악인들: 현재와 미래 Korea's Young Mountaineers: present and future 60min 171p			

9.30. (Mon)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 10:00 **투게더 3** Together 3 46min Ⓖ 142p
- 14:00 **투게더 5** Together 5 56min Ⓖ 149p **Q&A / PF**
- 19:00 **행복 검침 왔습니다!** Agent of Happiness 94min Ⓖ 99p **Q&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 10:00 **마르몰라다 - 마드레 로차** Marmolada - Madre Roccia 77min Ⓖ 51p
- 13:00 **허밍버드** The Hummingbird 126min Ⓑ 108p
- 16:00 **돌로미티 - 이탈리아 2** Dolomite - ITALY 2 95min Ⓨ 112p
- 19:00 **부모 바보** Heritage 101min Ⓨ 119p **Q&A**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 10:30 **눕체: 정상을 향해**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67min Ⓖ 44p **Q&A**
- 13:30 **돌로미티 - 이탈리아 3** Dolomite - ITALY 3 90min Ⓨ 114p
- 16:30 **홈 프론트** The Home Front - A Journey in Italy with Domenico Quirico 110min Ⓨ 109p
- 19:30 **움프멘터리** UMFFmentary 70min Ⓖ 160p **Q&A**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 14:00 **블라레** Flying 100min Ⓨ 104p
- 17:00 **대장부 아티르쿨**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65min Ⓖ 84p
- 19:30 **국제경쟁 3** IC Films 3 77min Ⓖ 64p **Q&A**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 18:00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77min Ⓨ 128p **Q&A**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 11:00 **투게더 2** Together 2 42min Ⓖ 138p **TALK / PF**
- 13:00 **투게더 1** Together 1 41min Ⓖ 134p **Q&A**
- 15:30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78min Ⓖ 53p
- 18:30 **크로노셉션** Chronoception 54min Ⓖ 73p **PF**

세미나실 Seminar Room

- 10:00 **국제산악환경포럼** International Forum for Mountain Environment 120min 172p

10.1. (T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 18:30 **폐막식** **스노우 레오파드** Closing Ceremony Snow Leopard 110min Ⓨ 45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 13:00 **꿈을 향한 트레일** Trail of Dreams 91min Ⓖ 50p
- 16:00 **보이지 않는 봉우리** Invisible Summit 89min Ⓖ 52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 10:30 **자크, 여기 있다** Jacques 91min Ⓖ 57p **Q&A**
- 13:30 **와일드 패밀리** A New Kind of Wilderness 84min Ⓨ 56p
- 17:00 **500일의 다이앤** 500 Days in the Wild 125min Ⓨ 48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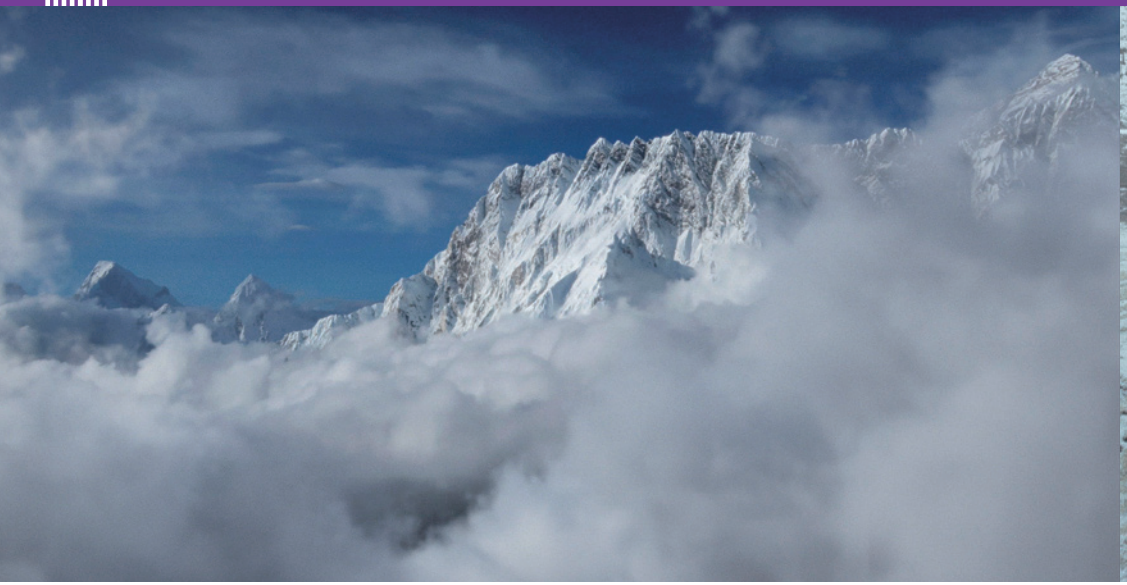
- 14:00 **국제경쟁 1** IC Films 1 66min Ⓖ 58p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 13:30 **산 3** Mountain 3 68min Ⓨ 79p
- 15:30 **눕체: 정상을 향해**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67min Ⓖ 44p **Q&A**
- 18:30 **여덟 개의 산** The Eight Mountains 147min Ⓨ 106p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9TH ULSAN ULJU MOUNTAIN umff FILM FESTIVAL



UC 09.27 18:30
AC2 09.30 10:30 Q&A
GC 10.01 15:30 Q&A

눕체: 정상을 향해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France | 2023 | 6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헬리아스 밀레리우, 프레데릭 드구레, 벤자민 귀고넷은 전설의 눕체 남벽에 극한의 신루트를 개척할 꿈을 꾸고 있다. 히말라야의 중심부 8,000미터에 달하는 벽. 눕체, 무형의 감동 혹은 정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세 프랑스 산악인의 강박적인 탐구.

Hélias Millerioux, Frédéric Degoulet, and Benjamin Guigonnet are dreaming of opening a new extreme route on the legendary south face of Nuptse. A wall approaching 8,000 m in the heart of the Himalayas. Nuptse: touching in the intangible or the obsessive quest of three French mountaineers trapped in their desire for a summit.

이 영화는 네 명의 등반가의 독특한 눕체 등반을 따라가며 그들의 열망과 불안, 연대를 탐구한다. 2018년 황금피켈상으로 조명 받은 인간적인 모험 이야기. **프로듀서 파스칼 바내빌**

Hugo Clouzeau's film follows the unique ascent of four climbers on Nuptse, exploring their aspirations, uncertainties, and solidarity. A human adventure highlighted by the prestigious Piolet d'Or award in 2018. **Pascal Barneville, Producer**

휴고 클루조

다양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탐구했던 방송 편집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2016년 감독으로 데뷔하여 강에 대한 열정으로 <화이트 워터>와 <아푸리막강의 부름>을 만들었다.

Hugo Clouzeau

Hugo began his career as a television editor, where he explored different documentary styles. Through his passion for rivers, he became a director in 2016 and made the adventure documentaries *Les Eaux Blanches* and *Apurimac l'appel de la rivière*.

스노우 레오파드

Snow Leopard

UC 10.01 18:30

China | 2023 | 110min | Color, B&W | Fiction

눈표범이 양 우리에 침입해 숫양 9마리를 죽인 뜻밖의 사건은 한 지역의 양치기 가족을 휘저어놓다 못해 TV 제작진까지 마을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An unexpected incident of a snow leopard breaking into the sheep pen of a local herder and killing nine rams not only causes a stir in the family, but also attracts a TV crew into the village...

비할 데 없는 연민, 배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눈표범(혹은 다른 생명체들)이 결국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럴싸한 판타지 영화가 아닌 진정한 마술적 리얼리즘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감독 페마 체덴**

It is a story about unparalleled compassion, solicitude, and love. It is also a story that discusses how people and snow leopards (or other living beings) eventually get along. I hope this is a true work of magical realism and not a specious fantasy movie.
Pema Tseden, Director

페마 체덴

중국 티베트 출신 감독이자 각본가 겸 작가로 티베트 뉴웨이브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소개되어 4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

Pema Tseden

Pema Tseden is a Tibetan director, screenwriter, and author, widely recognized as a pioneer of the Tibetan New Wave. His films have been selected at many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inning over forty international prize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올해 국제경쟁 섹션에는 총 75개국 752편의 출품작 중에서 산, 자연, 인간을 담은 19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가는 인물들, 자연과 인간의 경계, 공존의 가능성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수작들입니다.

먼저, 도전과 응전의 이미지로 점철된 탐험의 스토리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산악영화제에서 인정받은 화제작 <거대한 백경> 외에도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을 카누와 스키, 자전거로 횡단한 다이앤 웰란의 여정 <500일의 다이앤>이나 달리기로 페루 횡단의 꿈을 실현하는 <꿈을 향한 트레일>은 우리에게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봉우리>, <사운드스케이프>, <클라이머 프레데릭>은 고산 등반과 클라이밍에서 신체적 제약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돌부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클라이머 사치 암마의 사유의 여정을 따라간 <진심의 여정>, 10년 전 신동 클라이머로 주목받았던 아시마 시라이시의 이야기 <아시마>, 그리고 입양아로 혼돈의 젊은 날을 보내고 클라이밍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코디 캐멀런의 이야기 <디어 마더>는 강력한 주인공들의 매력으로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알프스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펠릭스의 순수하지만 진심 어린 삶 <양치기 펠릭스>, 야생 수달이 가족처럼 다가오는 감동의 이야기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부여잡으며 홀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자크, 여기 있다>, 일기예보 관측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다룬 <마지막 관찰자>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 속 사람들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In this year's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19 films speaking of mountains, nature and humans were selected from among 752 entries from 75 countries. They approach in various ways the pressing issues of life we face today, such as people who push their limits to the extreme, the boundary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the possibilities of coexistence.

First, there are stories of exploration filled with images of people facing challenges head on, as they put forth heartfelt efforts to accomplish their goals. They include *The Great White Whale*, which was recognized at many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s; *500 Days in the Wild*, about Dianne Whelan's journey across the vast Canadian wilderness by canoe, ski, and bicycle; and *Trail of Dreams*, which depicts the realization of the dream to cross Peru by running. There are also films like *Invisible Summit*, *Soundscape*, and *Climbing for Gold*, that prove that physical limitations are no longer insurmountable obstacles in high-altitude climbing.

Films with strong characters and their stories include: *Reel Rock: With My Heart*, following climber Sachi Amma's reflective journey; *Ashima*, a story about Ashima Shiraishi, who was recognized as a climbing prodigy a decade ago; and *Dear Mother*, the story of Cody Kaemmerlen, who was adopted as a child and overcame his chaotic youth to begin a new life through climbing.

There are also moving films only available at UMFF: *A Shepherd*, about the pure and heartfelt life of shepherd Félix from the French Alps;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where a wild otter becomes family; *Jacques*, who is holding on to past memories and living alone; and *The Last Observers*, about the final journey of weather forecasters.

9TH ULSAN ULJU MOUNTAIN umff FILM FESTIVAL

AC3 09.27 23:59
AC2 10.01 17:00

500일의 다이앤

500 Days in the Wild

Canada | 2023 | 12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트랜스 캐나다 트레일의 도전적인 지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험 서사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화 제작자 다이앤 웰란이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 패들링을 시도하고 캐나다의 동해안과 북극, 태평양을 연결하는 24,000km의 오래된 무역로를 촬영하는 것을 함께 따라가는 예술적인 장편 다큐멘터리다.

An epic adventure that showcases the natural beauty and challenging terrain of the Trans Canada Trail, *500 Days in the Wild* is an artful feature documentary that follows award-winning filmmaker Dianne Whelan as she attempts to hike, bike, paddle and photograph 24,000 km of old trading routes that now connect the country's East Coast to its Arctic and Pacific Ocean.

다이앤 웰란의 6년에 걸친 캐나다 횡단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세계에서 가장 긴 24,000km의 이 트레킹은 산 넘고 물 건너며 모험과 자아성찰, 멋진 풍경과 야생동물을 함께 엮어낸다. **감독 다이앤 웰란**

500 Days in the Wild is a documentary film following Dianne Whelan's 6-year journey across Canada. This 24,000km trek of the world's longest trail through land and water weaves together adventure, personal reflections, stunning landscapes and wildlife.
Dianne Whelan, Director

© oisinmchughphoto

다이앤 웰란

수상 경력이 있는 캐나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뛰어난 사진작가이자 예술가, 스토리텔러, 작가이며 강연가이다. 30년의 경력 동안 장편 다큐멘터리 <40 데이즈 엣 베이스 캠프>, <이 땅, NFB>를 비롯한 작품으로 수상한 바 있다.

Dianne Whelan

Canadian based Dianne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and accomplished photographer, author and public speaker. Dianne's illustrious 30-year career, includes two award-winning films including *40 Days at Base Camp*, and *This Land with the NFB*.

AC3 09.27 23:59
AC3 09.29 11:00 Q&A

거대한 백경

The Great White Whale

Australia | 2023 | 10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호주와 아프리카 사이 남극해 깊은 곳에 높이가 3,000미터에 달하는 눈 덮인 화산이 흰고래처럼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이 흰고래 같은 산에 처음 도전한 팀은 다섯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세계 최악의 바다를 뚫고 계속 도전했고 이번에는 전설적인 빌 틸먼이 대장으로 함께 한다.

Deep in the wild Southern Ocean, halfway between Australia and Africa, a snowy volcano, almost 3,000 meters high, rears up from the sea like a Great White Whale. Five times that Great White Whale of a mountain tried to kill the first team that attempted it. Yet back they sailed, through the worst seas in the world to try again, this time with the legendary Bill Tilman as the skipper.

허드섬의 빅벤이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사실은 호주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려는 용감한 시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감독 마이클 딜런**

It is little known even in Australia that Big Ben on Heard Island is Australia's highest mountain. And few know of the brave attempts to climb it. **Michael Dillon, Director**

마이클 딜런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의 작업으로 수상했던 경력을 포함하여 50년 넘는 탐험 영화 촬영 경력을 가졌다. 국제산악영화협회에서 2022년 대상을 수상했다.

Michael Dillon

Michael filmed expeditions for over 50 years, including award-winning collaborations with Sir Edmund Hillary. He received a Grand Prize in 2022 from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Mountain Film.

UC 09.28 15:30 PF
AC1 10.01 13:00

꿈을 향한 트레일
Trail of Dreams

Germany | 2023 | 91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브레멘의 어느 단조로운 교외 지역 출신인 사바스 코반은 꿈이 하나 있다. 터키 태생 가족의 전통적인 생각을 거스르고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위기에 처한 페루에서 눈 덮인 안데스산맥과 사막을 가로지르고 열대 우림과 인공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며 87일 동안 87번의 초장거리 마라톤을 뛴다.

A young man from a simple suburb of Bremen has a dream: Against the traditional ideas of his Turkish-born family, Savas Coban wants to achieve his goal to make a living as an extreme athlete. And so, he runs 87 ultramarathons in 87 days through crisis-ridden Peru - across the desert and the snow-covered Andes, through the rainforest and man-made barricades.

색다른 여정에 대한 기록이자 인정욕구와 자기 성취에 대한 모험 다큐멘터리. 이것은 평범한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의 집요한 결의를 느끼게 한다. **프로덕션 매니저 마리아 지글러**

Trail of Dreams is an adventure documentary that chronicles an extraordinary journey and the unwavering quest for recognition and self-fulfillment. It is not an ordinary sport documentation. It makes you feel his relentless determination that believing in oneself can overcome any obstacle. **Maria Ziegler, Production Manager**

도리트 제스너, 스테피 로스토스키

스테피 로스토스키는 Ravir Film의 미디어 학자이자 작가로 스토리텔링에 열정적이다. 상업영화와 다큐멘터리 연출, 제작 경력이 20년인 도리트 제스너는 Ravir Film GbR의 공동 설립자다.

Dorit Jeßner, Steffi Rostoski

Steffi Rostoski is a media scientist and author at Ravir Film, passionate about storytelling. Dorit Jeßner, co-founder of Ravir Film GbR, has 20 years of experience in directing and producing commercial and documentary films.

마르몰라다 - 마드레 로차
Marmolada - Madre Roccia

AC3 09.28 23:59
AC1 09.30 10:00

Italy | 2024 | 77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이 다큐멘터리는 세 명의 유명 산악인이 젊은 등반가 지망생의 도움을 받아 전설적인 '돌로미티의 여왕' 마르몰라다의 남벽을 오르는 모험을 따라간다. 마테오 델라 보르델라, 마우리치오 조르다니, 마시모 팔레티, 그리고 이리스 비엘리가 함께 모여 그들의 한계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산의 위험에 도전하며 신루트 개척에 나선다.

The documentary follows, the adventure of three renowned mountaineers, assisted by a young aspiring climber, on the south face of the Marmolada, the legendary "Regina della Dolomiti". Matteo della Bordella, Maurizio Giordani, Massimo Faletti, and Iris Bielli come together to open a new route, challenging their limits and the dangers of a mountain that has entered the debate on climate change.

이 영화는 열정과 탐험, 환경인식을 탐구하며 산악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감독 마테오 마지, 크리스티아나 페치

The film explores passion, explora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offering a compelling look into the world of mountaineering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our mountain ecosystems and the nature that surrounds us.
Matteo Maggi & Cristina Pecci, Directors

마테오 마지, 크리스티아나 페치

크리스티아나가 스페인에서 창의적인 다큐멘터리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마테오는 핀란드에서 산악 영화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2011년부터 핀란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Matteo Maggi, Cristiana Pecci

Matteo Maggi and Cristiana Pecci are a filmmaking duo. While Cristiana focused her studies and her work in Spain on creative documentaries, Matteo moved to Finland specializing his ability in action filmmaking. Since 2011 they have been based in Finland and in Italy working worldwide.

AC1 09.28 13:00 Q&A
AC1 10.01 16:00

보이지 않는 봉우리
Invisible Summit

China | 2024 | 8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불굴의 사나이 장홍은 시각 장애인으로 중국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다.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배우자와는 달리 그는 여전히 '성공'을 원한다. 이 45세의 맹인 안마사는 대운을 바꾸기 위해 에베레스트산에 오르고 싶어하지만 신체적 장애와 재정적 압박 그리고 가족의 걱정까지, 꿈을 향한 길 위 딜레마에 빠진다.

Zhang Hong is an eternal hustler coming from a poor family in China and who is blind. While his spouse aspires to a peaceful life he still want to "make it". Working now as a blind masseur, the 45-year-old wants to climb Mount Everest as he hopes to finally turn his luck around. Physical challenges,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cerns from his family are dilemmas on the road to his dream.

<보이지 않는 봉우리>의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적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해외 배급을 모색 중이다. **감독 판리신**

Invisible Summit's goal was to capture a feat that was thought impossible and is currently looking for international distribution. **Fan Lixin, Director**

판리신

중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불우한 사람들을 담은 장편 다큐를 만든다. 첫 번째 영화 <집으로 가는 기차>(2009)는 두 번의 에미상을 받았고 3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최신작 <보이지 않는 봉우리>를 만들었다.

Fan Lixin

Fan Lixin is chinese documentary director who focuses his feature doc film on unprivileged people who want a better lives for themselves. His first film *Last Train Home* (2009) won two Emmy Awards. *Invisible Summit* is his latest work. The team spent over three years creating this film.

UC 09.29 17:00 PF
GC 09.30 15:30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UK | 2024 | 7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실버백필름의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은 스코틀랜드의 외딴섬 셰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야생 수달과 한 남자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From National Geographic and Silverback Films,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is a heart-warming story of love between a wild otter and a man set in the remote Scottish islands of Shetland.

우연히 가족이 된 야생동물과의 공생과 우정, 쉽지않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를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귀여운 수달 몰리가 가정의 일원이 되어 가는 과정과 빌리의 일상을 대비한 씬 배치가 인상적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Symbiosis and friendship with a wild animal that accidentally became a family shows it is worth enduring even in difficult choices and decisions. It is impressive how scenes are arranged with contrasting between the process of lovely otter Molly becoming a family member and Billy's daily life. **Jinna Lee, Programmer**

찰리 해밀턴 제임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 겸 작가. 환경보호 문제와 야생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Charlie Hamilton-James

Charlie Hamilton-James is a world-renowned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filmmaker and author known for his captivating work on wildlife and conservation issues.

AC3 09.28 23:59
AC2 09.29 13:30 Q&A

아시마
Ashima

USA | 2023 | 8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3세 엘리트 암벽 등반가 아시마 시라이시. 명성과 경력, 그리고 평범한 아이가 되기 위한 노력 사이 그녀의 1년.

A year in the life of 13-year-old elite rock climber Ashima Shiraishi as she balances fame, career, and trying to be a regular kid.

<아시마>는 인내, 결단력, 가족의 이야기다. 우리가 열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교훈을 보여준다.
감독 켄지 츠카모토

Ashima is a story of perseverance, determination & family. Ashima represents what can be done when we put our all into our passions, and the sometimes difficult but worthwhile lessons learned along the way. **Kenji Tsukamoto, Director**

켄지 츠카모토
일본 후쿠시마 출생.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 전역을 자주 이사 다녔다. 제3문화 아이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라이머인 아시마 시라이시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다.

Kenji Tsukamoto
Born in Fukushima, Japan, Kenji moved to America as a child where his family relocated frequently across the country. As a third culture kid, Kenji found a kindred spirit in the world renowned climber Ashima Shiraishi.

AC2 09.27 16:30
AC3 09.29 19:00 Q&A

양치기 펠릭스
A Shepherd

France | 2024 | 71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프랑스 알프스 산맥. 펠릭스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늑대가 배회하는, 접근할 수 없는 세상에서 몇 달간 양 떼를 돌본다. 양 떼와 펜싱, 시로 채워진 산속. 고독이 그의 날들을 감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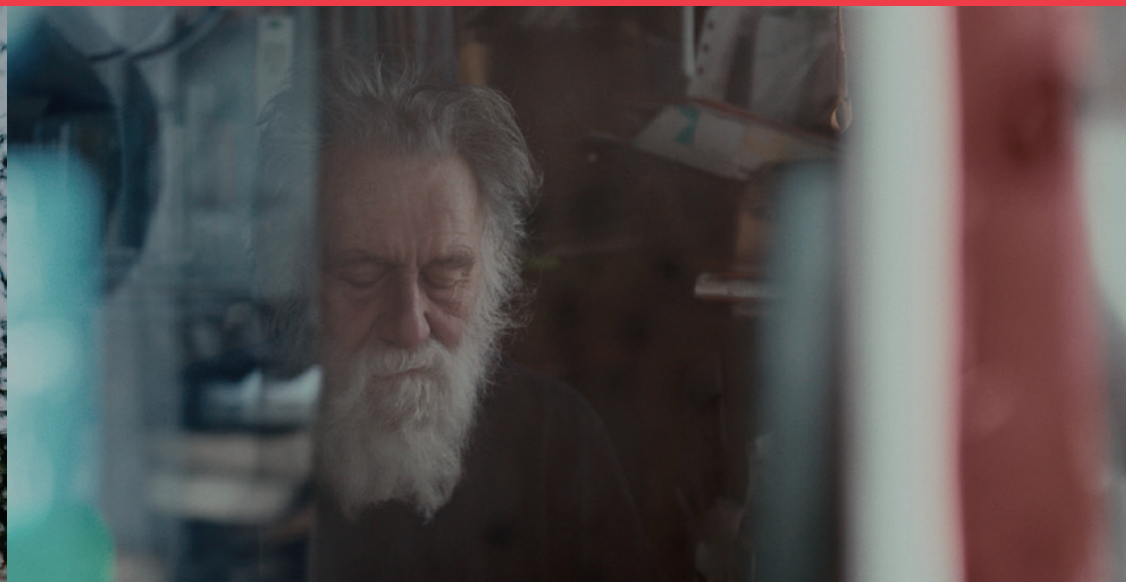
In the french Alps, far from everything, Felix looks after his herd, living for months in a mineral and inaccessible world where an invisible being prowls the wolf. Solitude shrouds his days in the mountains, filled with caring for lambs, fencing, and poetry

펠릭스는 프랑스 알프스의 높은 목초지에서 양 떼를 돌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와 비바람에 노출된 젊고 우울한 양치기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애쓴다. **감독 루이 안케**

Félix takes care of his flock in the high pastures of the French Alps. Exposed to the elements and the presence of an invisible enemy, the young and melancholic shepherd struggles to find inner peace. **Louis Hanquet, Director**

루이 안케
파리와 프랑스 남서부 사이에서 자랐다. 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다큐멘터리, <우주의 숲>, <푸른 빛>의 촬영감독이며 <양치기 펠릭스>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다.

Louis Hanquet
Louis grew up between Paris and the South-West of France. He's the director of photography for several festival awarded documentaries, *The Outer Space Forest* and *La lumière Bleue*. *A Shepherd* is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AC2 09.27 13:30
AC2 10.01 13:30

와일드 패밀리
A New Kind of Wilderness

Norway | 2024 | 84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노르웨이 숲속 어느 작은 농장의 한 가족이 야생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그들은 목가적인 농장에서 쫓겨나 현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On a small farm in the Norwegian forest, a family seeks a wild free existence. However, after a tragic event changes everything, they are forced from their idyllic farm and into the expectations of modern society.

2024년 선댄스영화제 수상 이후, 유수 다큐멘터리영화제에 소개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작품이다. 과연 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며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할까? 감독은 객관적 관찰자로서 이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After its award-winning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this film has been presented at numerous documentary film festivals and gained attention. Is it possible to raise children by homeschooling while being self-sufficient in wild nature? **Jinna Lee, Programmer**

실예 예븐스모 야콥센

지난 15년간 <팀 잉에브릭트센>,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크래프트/스파크>를 비롯한 다큐멘터리와 시리즈를 연출했다. <와일드 패밀리>는 그녀의 두 번째 장편이다.

Silje Evensmo Jacobsen

Silje has directed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s and series for the past 15 years. Among others: *Team Ingebrigtsen* (2016, 2018), *Faith Can Move Mountains* (2021) and *KRAFT/SPARK* (2022). *A New Kind of Wilderness* is her second feature.

자크, 여기 있다
Jacques

AC1 09.28 16:00 Q&A
AC2 10.01 10:30 Q&A

Canada | 2023 | 9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퀘벡 북부의 탐험가 자크 뒤후는 40년이 넘도록 우아피쉬카 산맥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제 85세가 된 만큼 자연스레 노쇠해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급자족의 삶을 이어 나간다. 북부 탐험의 진정한 기념비적 인물인 자크는 자연과 노화, 자유의 추구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보여준다.

For over 40 years, Jacques Duhoux, expedition pioneer in northern Quebec, has lived alone in the Uapishka(Groulx) Mountains. Now at 85 years old, he continues to live off the grid, despite the inevitable decline that comes with age. A tribute to a true monument of northern exploration, Jacques exposes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nature, aging, and the search for freedom.

꿈과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진정한 부는 여유와 고요함을 가지고 혼자 잘 지내는 것에 있지 않을까? 자유는 시간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감독 리산드르 르뒥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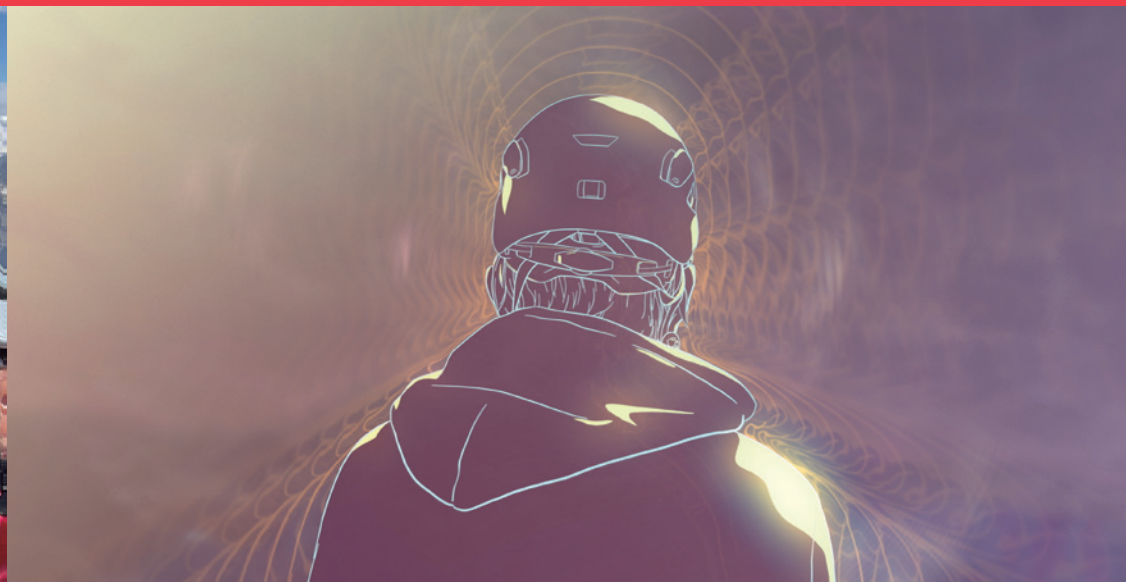
I wanted to talk about dreams and autonomy. Does true wealth consist in being well alone, having space and silence? Does freedom consist in possessing time?
Lysandre Leduc Boudreau, Director

리산드르 르뒥 보도

퀘벡의 다큐멘터리 감독. <내일을 위해>, <굳건히 서서>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에 감독, 자료조사, 스토리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자크, 여기 있다>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Lysandre Leduc Boudreau

Lysandre, a documentary filmmaker from Quebec, has worked as a director, researcher, and story producer on many projects, including *For Tomorrow* on Amazon Prime, short documentaries for Vice-Quebec including *De pied ferme*. *Jacques* is her debut feature-length film.



AC1 09.28 10:00
AC3 10.01 14:00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국제경쟁 1
IC Films 1

Keep It Burning

Spain | 2024 | 33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세계에서 가장 거친 산맥 카라코람. 이 발토로 빙하 주변 장관을 이루는 산 중 하나는 '네임리스 타워' 트랑고다. 홀로 우뚝 서있는 이 거대한 암벽은 단지 올라야 할 산일뿐이다! 에두 마린은 그의 형 알렉스와 아버지 노바토의 도움을 받아 이터널 플레임 루트의 두 번째 자유 등반을 시도한다.

The Karakorum is the wildest mountain range in the world. One of the spectacular moutains around this Baltoro glacier is the Trango "Nameless Tower". It's the biggest free-standing rock tower, and it's simply just a moutain to be climbed! Edu Marín, helped with his brother Alex and father Novato, attempts the second free ascent of Eternal Flame.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발할라> 이후 두 번째 소개하는 에두 마린의 등반 여정. 특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아들의 빌레이어 역할을 하는 노바토의 모습에서 강한 부성이 느껴진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is the second introduction to Edu Marín's ascent journey after *Valhalla, Rock Sky* at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film shows the strong paternal love of Novato, a grizzled veteran, who takes on the role as a belayer for his son. **Jinna Lee, Programmer**

© Jeremy_Bernard

기욤 브로스트

독립영화감독으로 아웃도어 다큐멘터리 전문이다. 20년이 넘는 경험으로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스키, 산악영화를 제작했으며 독특한 영화적 스타일을 만들었다.

Guillaume Broust

Guillaume, an independent director since 2018, specializes in outdoor documentari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he has produced films on climbing, paragliding, skiing, and mountaineering, creating a unique cinematic style.

AC1 09.28 10:00
AC3 10.01 14:00

사운드스케이프

국제경쟁 1
IC Films 1

Soundscape

USA | 2023 | 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세계적인 모험가, 운동선수이자 작가인 에릭 와이헨마이어. 맹인인 그가 시에라네바다 깊은 곳의 거대한 고산 암벽을 등반한다. 전문적인 카메라 작업과 감성적이고 참신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어댑티브 클라이밍의 선구자 티미 오닐의 발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이 영화는 놀랍고도 영혼이 충만한 모험 그 자체다.

Soundscape features Erik Weihenmayer, a global adventure athlete and author who is fully blind, as he ascends a massive alpine rock face deep in the Sierra Nevada. Using expert camera work and emotive, novel animation to bring to life a concept by adaptive climbing pioneer Timmy ONeill, the film is a surprising and soulful adventure.

<사운드스케이프>는 반향 탐지와 촉각, 상상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채로 산을 오르는 경험을 공유한다. **프로듀서 사라 리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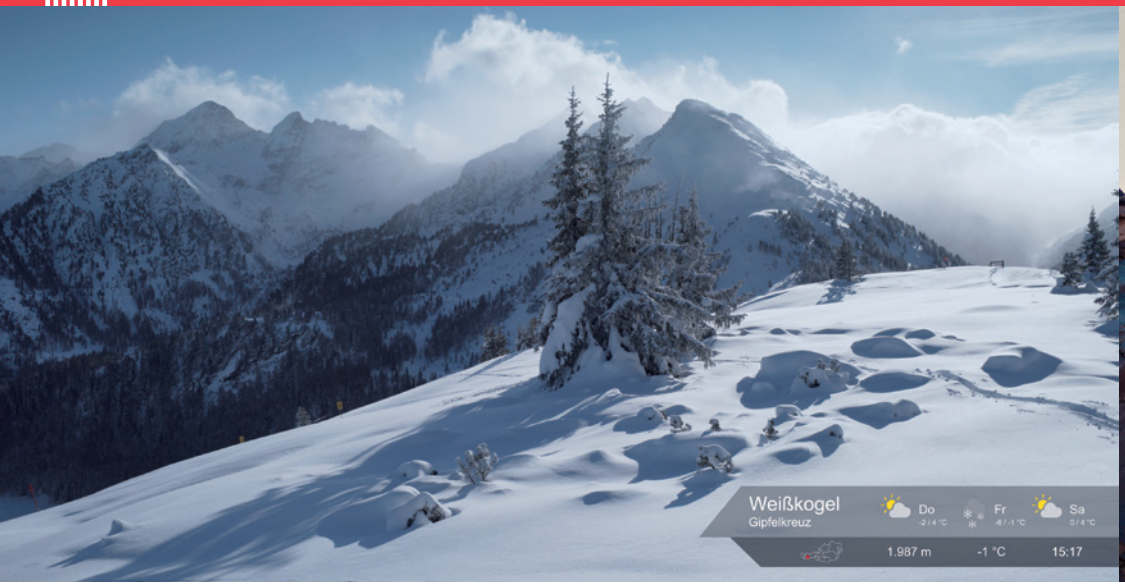
Soundscape shares the sightless experience of climbing a mountain via echo location, touch, and imagination. **Sarah Lee Steele, Producer**

티미 오닐

아웃도어 모험 및 사회문제 조합 adventure impact에 전념하는 암벽 등반가. 어댑티브 클라이밍 그룹 paradoxsports.org의 공동 창립자이며 <사운드스케이프>로 감독 데뷔를 했다.

Timmy ONeill

Timmy ONeill is a rock climber dedicated to 'adventure impact' - the combination of outdoor adventure and social impact. He is co-founder of paradoxsports.org, an adaptive climbing group, and *Soundscape* is his directorial debut.



AC1 09.28 10:00 Q&A
AC3 10.01 14:00

어떤 기상관측카메라의 기록

국제경쟁 1
IC Films 1

Recordings of a Weather Camera

Austria, Germany | 2023 | 19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경치 좋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한 스키 리조트. 장엄한 산의 전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기상 카메라가 인간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무심하게 포착한다. 프레임 라인이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프레임 안에서는 인간관계의 라인이 교차된다. 너무나도 흔한 만남, 그리고 겉으로 무해해 보이는 상호작용의 비극을 다룬 독특한 영화.

A ski resort in the scenic Austrian Alps. A weather camera installed to display majestic mountain panoramas, casually captures a panorama of human abominations. While the frame lines pan back and forth, inside the frame interpersonal lines are being crossed. A bizarre film about all too common encounters and the tragedy in seemingly harmless interactions.

스키 리조트의 기상 카메라가 앞뒤로 돌아다니며 경치 좋은 산의 전경과 대인관계의 비극적인 전경을 모두 포착한다. **감독 베른하르트 벵거**

A weather camera in a ski resort wanders back and forth, capturing both scenic mountain panoramas and a tragicomic panorama of interpersonal interactions.
Bernhard Wenger, Director

© Hannah Schwaiger

베른하르트 벵거

비엔나필름아카데미 출신. 그의 단편들은 여러 유수 영화제와 ARTE 채널에서 소개되었다. 73회 칸영화제의 시네파운데이션 레지던스에 선정된 극본인 <피콕>으로 장편 데뷔를 준비 중이다.

Bernhard Wenger

Bernhard studies at Film Academy Vienna. His shorts have screened at top festivals, aired on ARTE. He is working on his debut feature, *Peacock* - the screenplay selected for the Cinéfondation Residence at the 73rd Cannes Festival.

클라이머 프레데릭

국제경쟁 2
IC Films 2

Climbing for Gold

Belgium, USA | 2024 | 22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AC3 09.28 23:59
AC3 09.29 16:30 Q&A

<클라이머 프레데릭>은 벨기에의 장애인 클라이머 프레데릭 레이스의 세계 챔피언십 타이틀을 향한 여정을 따라간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시작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경쟁과 준비과정, 그리고 선수들 간의 동지애를 담아낸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의 열정과 기술은 2023 파라 클라이밍 세계 챔피언십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회복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Climbing for Gold follows Belgian para-climber Fréderik Leys on his quest for a world championship title. Starting in Salt Lake City, the documentary captures his competitions, preparations, and camaraderie among athletes. Despite challenges, Fré's passion and skill shine at the 2023 World Paraclimbing Championships, inspiring others with his resilience.

이 영화는 한 장애인 클라이머의 고무적인 여정을 담은 연대기로 그의 회복력과 선수들간의 동지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보여준다. **감독 뱅상 그호스**

The film chronicles a para-climber inspiring journey, showcasing his resilience, the camaraderie among athletes, and the daily challeng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Vincent Groos, Director

뱅상 그호스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추구하며 유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그의 졸업영화 <디어>는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Vincent Groos

Vincent writes about vulnerable humans, seeking visually strong, emotionally compelling projects. His graduation film, *Lieve*, received significant praise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C3 09.28 23:59
AC3 09.29 16:30

진심의 여정

국제경쟁 2
IC Films 2

Reel Rock: With My Heart

USA | 2024 | 23min | Color | Documentary

일본의 천재 클라이머 사치 암마. 세 번의 세계 챔피언을 통해 트래드 클라이밍 주의자로 떠오르고, 전설의 미즈가키산을 환상적으로 초등해 내며 정점을 찍은 그의 철학적 여정을 따라가 보자.

Follow the philosophical journey of Japanese climbing phenom Sachi Amma as he goes from three-time world champion to becoming a traditional climbing purist, culminating in a visionary first ascent on the mythical Mt. Mizugaki.

사치 암마, 그는 세 차례나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이 성과는 그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았다. 자연으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간 그의 클라이밍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던지는 여정이기도 하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Sachi Amma follows the three-time world champion but happiness doesn't necessarily accompany his accomplishment. His climbing, a return to nature and essence is also a journey to teach us a lesson. **Jinna Lee, Programmer**

안드레아 코수

이탈리아 출신의 창작가. 문화와 스포츠의 교차점에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Andrea Cossu

Andrea Cossu is a creative out of Italy, working on nonfiction stories at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sport, especially highlighting narratives that can inspire and strengthen the connection to the natural world.

히리샹카

국제경쟁 2
IC Films 2

Reel Rock: Jirishanca

USA | 2024 | 32min | Color | Documentary

AC3 09.28 23:59
AC3 09.29 16:30

유명 산악인 조쉬 와튼과 빈스 앤더슨은 페루 안데스산맥의 20,000피트 높이의 장엄한 봉우리 히리샹카의 자유 등반을 시도한다. 이 두 사람은 고산 모험에 대한 사랑으로 클라이밍 본연의 위험을 이겨내며 5.13급 직벽 등반, 수평의 얼음 루프, 기술적 혼합 지형, 불안정한 눈덩이들과 씨름해야 한다.

Renowned alpinists Josh Wharton and Vince Anderson attempt a free ascent of the Jirishanca, an epic 20,000-foot peak in the Peruvian Andes. The duo will have to tackle 5.13 face climbing, horizontal ice roofs, technical mixed terrain, and treacherous snow mushrooms as they reconcile the inherent risk of climbing with their love of alpine adventure.

페루 안데스의 거대 암벽 히리샹카에 도전하는 두 산악인의 등반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흥미롭지만, 등반에 대한 이들의 애정과 독특한 캐릭터가 더 매력적인 영화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t is a good opportunity to follow the journey of two alpinists who challenge the Jirishanca, an enormous rock wall in the Peruvian Andes. Moreover, unique characters and their love of alpine add zest to the film. **Jinna Lee, Programmer**

조쉬 로웰, 피터 모티머

피터 모티머는 센더 필름즈의 설립자이자 1999년 시작한 DIY 암벽등반 영상 제작 프로젝트, 릴락의 창립자다. 조쉬 로웰은 1997년 빅업프로덕션을 설립하고 획기적인 등반 영화를 제작해 왔다.

Josh Lowell, Peter Mortimer

Peter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and Reel Rock, which he started as a do-it-yourself rock climbing video production project in 1999. Josh Lowell founded Big UP Productions in 1997 and has been producing groundbreaking climbing films ever since.

GC 09.29 15:00
AC3 09.30 19:30

바디 오브 라인

국제경쟁 3
IC Films 3

Body of a Line

Canada, USA | 2023 | 1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3,500피트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암벽인 콜로라도의 롱스피크 던-웨스트 베이(5.14 a/b)에 오르기 위해 마들렌 소킨은 창의적인 여정에 착수한다. 전부 실생활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4,320프레임의 예술작품, 음악, 시를 담아냈다. 이전의 어떤 클라이밍 영화와도 다른 작품이다.

Madaleine Sorkin undertakes an intimate and creative journey to climb the most difficult rock climb above 13,500 feet in the world: the Dunn-Westbay Direct(5.14 a/b) on Longs Peak(Neniisoteyou'u) in Colorado. Captured entirely in real life, this film kaleidoscopes 4,320 frames of original artwork, music, and poetry. It's a climbing film unlike anything you've seen before.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밍 다큐멘터리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감독 헤나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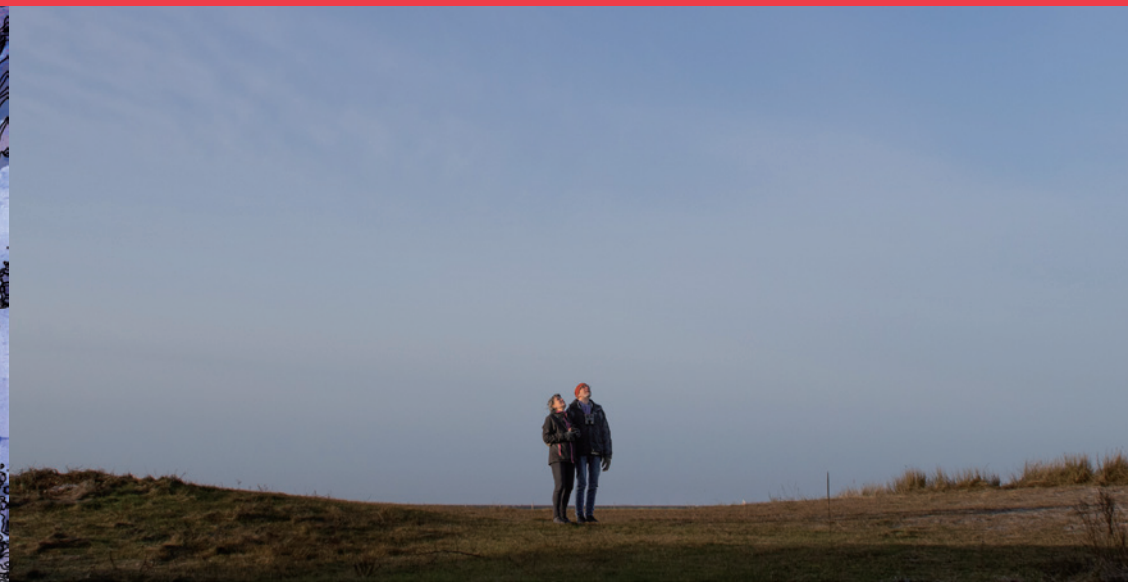
As I had not yet seen it done, I wanted to try to animate a climbing documentary to see if this technique would unlock new creative potential for how we tell these types of stories.
Henna Taylor, Director

헤나 테일러

캄보디아 여행 중 시골의 조산사를 촬영하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짧은 영상을 만들고 영화제작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계속 활동하고 있다.

Henna Taylor

Henna began making films during a trip to Cambodia, documenting midwives in rural areas. She created short videos. Intrigued by filmmaking, she continued upon returning to the US.



GC 09.29 15:00
AC3 09.30 19:30

마지막 관찰자

국제경쟁 3
IC Films 3

The Last Observers

Sweden | 2024 | 2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매일 3시간마다 카린과 레나르트는 날씨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마지막 수동 기상 관측소에는 쉬는 날도 없다. 수십 년 동안 이 커플은 기상 관측을 하고 팔스테르보 조류 관측소를 관리하며 나란히 일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을 오래도록 미소 짓게 한다.

Every third hour around the clock, every day, Karin and Lennart observe and record the weather. At the last manual weather station, there are no days off. For decades, the couple have worked side by side doing weather observations and managing Falsterbo Bird Observatory - a ringing station for birds. Their story invites us to reflect on what matters in life, and leaves the viewer with a long lasting smile.

이 이야기는 항상 다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일깨워준다. **감독 마야 칼슨 미켈슨**

This story is heartwarming reminder to cherish what we have, in a world that is always looking for the next thing. **Maja Karlsson Mikkelsen, Director**

마야 칼슨 미켈슨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밝고 새로운 목소리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녀의 데뷔작은 개봉 전부터 국제적인 관심 속에 호평을 받고 있다. 스웨덴을 기반으로 영화와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Maja Karlsson Mikkelsen

Maja K Mikkelsen is a bright new voice in documentary film, her award-winning debut film receiving high praise and international attention ahead of its release. Maja is based in Sweden where she works as an artist in both film and visual arts.

GC 09.29 15:00 Q&A

AC3 09.30 19:30 Q&A

디어 마더

Dear Mother

국제경쟁 3
IC Films 3

USA, Korea | 2023 | 41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미국으로 입양된 아시아계 미국인 클라이머 코디 캐멀런은 추락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심경의 변화를 겪고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Climber and transracial Asian-American, Cody Kaemmerlen, searches for connection with his birth parents after a near-death fall leaves him shaken and grasping for answers.

<디어 마더>는 다른 인종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준다. 코디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며 관객들은 코디가 친가족과 다시 만나기 위해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여정을 엿볼 수 있다. **감독 존 글래스버그**

Dear Mother helps define what it means to be transracial and adopted in America. Cody's story is vulnerable and exciting and the audience gets a peek behind the curtain as he makes a remarkable journey reconnecting with his birth family. **Jon Glassberg,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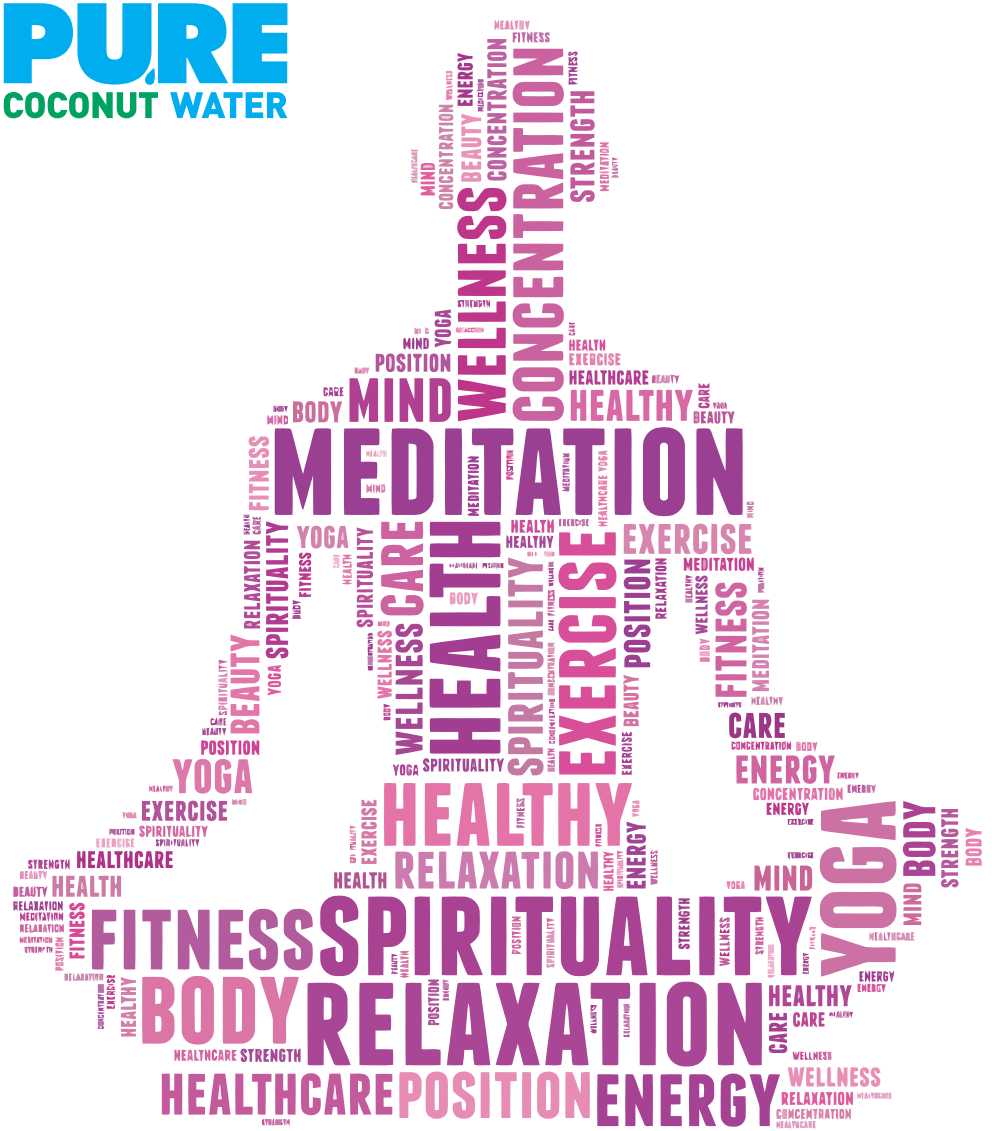
존 글래스버그

20년 경력의 프로 클라이머. 최대 5.14급, V15 등급에 이르는 암벽 등반을 하며 전 세계를 여행했다. 감독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최신 아웃도어 스포츠를 담아내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Jon Glassberg

A professional climber for 20 years, Jon has traveled the world climbing rocks up to 5.14 and V15. Recently his focus has shifted from the rock to the camera as a director who captures the heart and soul of cutting-edge outdoor sports.

Organic PURE COCONUT WATER



운동 후 마시는 오아시스!

100% Organic PURE Coconut Water

PURECOCONUTWATER

문의: 070.7502.8702 #올가닉퓨어코코넛워터 #퓨어코코넛워터

구매하기
할인코드: UMFF24

산
Mountain

올해 산 섹션에서는 아시아 전문 산악인의 경륜과 애정이 담긴 산에 대한 철학, 그리고 젊은 세대 산악인의 경쾌하고 흥미진진한 도전적 스토리가 교차합니다.
네팔 트레킹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감독의 독특한 스타일로 담아 낸 <눈이 녹은 후에>, 최근 K2 서벽 신루트 개척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일본의 알피니스트 히라이데 카즈야의 등반가로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로프>는 산을 사랑하다가 떠나간 이들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머 사솔과 이민영의 위기극복과 도전을 담아낸 <사솔의 오디세이>와 <마지막 빛>, 그리고 74세의 나이로 7대륙 최고봉 세계 여성 최고령 등정자 송귀화 산악인의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소개한 「영상앨범 산」 프로그램 에피소드 <히말라야 쏘롱라, 5,416m>를 통해 한국의 등반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 출신 4명의 스노우 보더와 2명의 가이드가 키르기스스탄의 산군 탐험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만나는 <크로노셉션>, 재활용이 불가능해보였던 스키복을 텐트로 만들어 낸 스키어들의 여정과 메세지 <재탄생>, 퍼스트네이션으로 자신의 문화 보존과 연결의 의지로 스키 등정을 시작한 <탈론과 리키의 도전>은 MZ세대의 등반과 탐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In this year's Mountain section, the philosophy on mountains by professional Asian mountaineers with experience and love for the mountain juxtapose with the vibrant and thrilling adventures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climbers.
Films about those who loved the mountains but are no longer with us include: *After the Snowmelt*, which captures the sorrow and longing for a friend who died during a trek in Nepal; and *Rope*, which showcases the life of Japanese alpinist Hiraide Kazuya, who wasn't able to return from pioneering a new route on the west face of K2.
Also, meet Korean climbers in *Sasol Odyssey* and *Last Ray*, where climbers Sa Sol and Lee Min-young overcome crises and face challenges; the *Video Album Mountain* program's episode *Himalayas Thorong La, 5,416m*, which introduces the Annapurna trekking by Song Gwi-hwa, who, at 74 years of age, became the oldest female to summit the highest peaks on all seven continents.
Showcasing the adventures and explorations by MZ generation climbers are films such as: *Chronoception*, where four European snowboarders and two guides cross paths with Central Asian culture while exploring the mountains of Kyrgyzstan; *Continuum*, with a powerful message from the journey of skiers who transformed seemingly non-recyclable ski gear into tents; and *Slides on the Mountain*, where some First Nation people begin ski mountaineering to preserve and connect with their cultur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C1 09.27 16:00

눈이 녹은 후에

After the Snowme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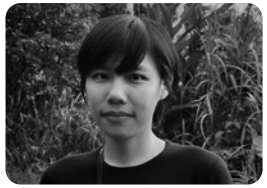
Taiwan, Japan | 2024 | 111min | Color, B&W | Documentary

절친한 친구가 고산에서 죽은 후, 젊은 영화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친구의 마지막 말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 몇 년 후, 그녀는 그들이 언젠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After her best friend died in the wilderness, the young filmmaker takes up the camera and decides to live her life according to his last words. Years later, she returns to the accident scene to honor the promise they once made to each other.

트라우마에서 수용으로 가는 여정을 만들고 싶었다. 젠더, 교육, 자연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으며,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울려 퍼진다. **감독 뤄 이산**

I want to create a journey from trauma to reconciliation. It resonates not only with themes of gender, education, and nature but also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resilience of life, and the realization that life is not just about surviving, but about truly living and loving.
Yi-Shan Lo, Director



뤄 이산

독립영화제작자이자 작가. 십 대부터 대만 아열대 산지의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얽히고설킨 관계에 매료되어 왔다. <눈이 녹은 후에>는 그녀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다.

Yi-Shan Lo

Yi-Shan Lo is an independent filmmaker and writer. Since her teenage years, she has been fascinated by the intertwined relationships connecting humans and non-humans in the Taiwanese subtropical mountains. *After the Snowmelt* is her debut documentary feature.

로프

ON

AC3 09.29 14:00 TALK

Rope

Japan | 2023 | 3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카메트와 시스파레, 라카포시의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해 황금피켈상을 세 번 수상한 히라이데 카즈야가 티리치미르 북벽에서 이상적인 등반 루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후로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티리치미르를 주시해왔다. 누구도 등반한 적이 없는 루트로 어떤 정보도 없다. 히라이데와 나카지마는 그들이 어떤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Kazuya Hiraide, three times Piolets d'Or winner by conquering unclimbed routes of Kamet, Shispare, and Rakaposhi, discovered the ideal climbing route on the north face of Tirich Mir. Since then, he has had eyes on Tirich Mir until the right time comes. No one has climbed their route before and there is no information. Hiraide and Nakajima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kind of danger they face.

두 명의 일본 등반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배우고 도우며 7,700미터 산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고자 한다. **프로듀서 카와바타 코헤이**

Two Japanese climbers try to conquer the unexplored route of a 7,700m high mountain with trust in each other, while they also help and learn from each other.
Kohei Kawabata, Producer

와다 모에

15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본에서 30편이 넘는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첫 장편 영화 <존재>(2020)로 일본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뤘으며 히라이데 카즈야에 관한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Moe Wada

A 15-year experienced documentary director Moe Wada has created over 30 documentaries for TV stations and public TV in Japan. The first feature film *Being*(2020) is about the LGBTQ community in Japan. She has created three documentaries about Mr. Kazuya Hiraide.

© jeremy-bernard.com

AC2 09.29 10:30 Q&A

시아첸, 얼음 전쟁

Siachen, A War for Ice

Switzerland | 2005 | 82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풀비오 마리아니

1958년 스위스 라쇼드퐁 출생. 로몰로 노타리스와 함께 첫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그의 신작 <파타고니아의 거미>의 촬영지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촬영지인 파타고니아에서 수년간 촬영해오고 있다.

Fulvio Mariani

Born in La Chaux-de-Fonds in 1958. He shot his first documentaries with Romolo Nottaris. He has filmed for years in his favorite hunting ground: Patagonia, where he is still shooting his new film, *The Spider of Patagonia*.

이 군인들의 삶과 역사는 덜 알려졌으나 가장 터무니없는 전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쟁터와 관련이 있다. 이 갈등은 1984년 인도-파키스탄 국경 최북단의 시아첸 빙하에 대한 주권 다툼에서 시작됐다. 수백 킬로미터 평방의 얼음과 바위의 점유권을 둘러싼 20년간의 갈등은 히말라야산맥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The history and life of the soldiers involved the world's highest, less known and most absurd war. This conflict began in 1984, a battle for the control over the Siachen glacier located at the extreme northern edge of the Indian-Pakistan border. Twenty years of conflict to maintain sovereignty over a few hundred square kilometres of ice, rock lost somewhere in the middle of the Himalayas.

2000년도에 히말라야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지역 중 하나를 40년 넘게 파괴해 오고 있는 터무니없는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감독 풀비오 마리아니**

The film, shot in 2000 at the border between Pakistan and India in the Himalayas, tells the story of an absurd war that has been devastating one of the planet's most precious areas for over 40 years. **Fulvio Mariani, Director**

크로노셉션

ON

Chronoception

GC 09.30 18:30 PF

France | 2023 | 54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유목민과 고대 실크로드의 발자취를 따라 토마스 델피노, 레아 클로에, 오렐리앙 라디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아시아의 가장 외딴곳 중 하나인 콕샬투 산맥으로 모험을 떠난다.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country's nomadic people and the ancient Silk Road, Thomas Delfino, Léa Klaue, and Aurélien Lardy embark on an adventure to one of the most remote and still unexplored places in Asia: the Kokshaal-Too Mountains.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은 천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경험하는 특별한 방식을 따르며, 22일간의 키르기스스탄 산군 탐험 동안 우리의 주인공을 안내한다. **감독 기욤 브로스트**

There are a thousand ways to tell a story. This one follows a different way of experiencing time, one that guides our protagonists all throughout the twenty-two-day expedition in the mountains of Kyrgyzstan. **Guillaume Broust, Director**

© www.jeremy-bernard.com

기욤 브로스트

독립영화감독으로 아웃도어 다큐멘터리 전문이다. 20년이 넘는 경험으로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스키, 산악영화를 제작했으며 독특한 영화적 스타일을 만들었다.

Guillaume Broust

Guillaume, an independent director since 2018, specializes in outdoor documentari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he has produced films on climbing, paragliding, skiing, and mountaineering, creating a unique cinematic style.

GC 09.28 11:00 TALK

히말라야 쏘롱라, 5,416m

Himalayas Thorong La, 5,416m

Korea | 2020 | 55min | Color | Documentary

평균 연령 68세의 네 사람-강대철, 송귀화, 이송, 나관주-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을 가운데에 두고 한 바퀴 휘도는 '안나푸르나 라운딩'에 나선다. 총 111km로, 총 5박 6일이 소요되는 길. 차메 마을에서 트레킹을 시작한 일행은 오색 타르초가 바람에 휘날리며 쏘롱라로 향하는 대장정을 함께 의지하며 자신들의 한계에 재도전한다.

Four people with an average age of 68 embark on the "Annapurna Rounding", a circuit around the Annapurna mountains in the Himalayas. A total of 111km, it will take 5 nights and 6 days. They start trekking in Chame and challenge their limits relying on each other through the long journey to Thorong La, where the colourful Tharchog flutters in the wind.

60대의 히말라야 트레킹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관심과 준비로 무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상앨범 산」 에피소드 2편이 송귀화 산악인의 토크 프로그램 전 상영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rekking in the Himalayas is not easy even for young people, however, they prove that it can be done by fortifying with interest and preparation though they are in their 60s. Two episodes of *Video Album Mountain* will be screened before the talk program. **Jinna Lee, Programmer**

김석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KBS 「도전지구탐험대」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KBS 「영상앨범 산」 프로그램에 촬영과 연출을 맡고 있다. 그간 6대륙의 주요 산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만들어왔고, 서아시아 산들을 화면에 담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Kim Seok-won

He directed *Challenge Earth Exploration Team*(1996~2005) and has worked as the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of *Video Album Mountain*(2005~). He created programs while travelling to major mountains on six continents, and his remaining task is to capture the mountains of West Asia on the screen.

에베레스트 1924 - 2024

산 1
Mountain 1

AC3 09.27 14:00

Everest Revisited 1924 - 2024

UK | 2024 | 41min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에베레스트 1924 - 2024>는 에베레스트 학자와 산악인들의 인터뷰를 비롯한 광범위한 역사적 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 유명한 원정으로부터 100년 후의 등반가들과 네팔인들에게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Everest Revisited 1924 - 2024, uses extensive historical footage, as well as interviews with Everest scholars and mountaineers, to tell the story of the 1924 Everest expedition and to ask questions about what the mountain means to climbers and Nepalis 100 years on from this famous expedition.

조지 맬러리와 샌디 어반이 목숨을 잃은 1924년의 원정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배급 담당자 아담 버터워스**

The project seeks to reevaluate the world's highest mountain 100 years on from the famous 1924 expedition on which George Mallory & Sandy Irvine lost their lives in pursuit of the summit. **Adam Butterworth, Distributor**

존 포터, 돔 부시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돔 부시는 브랜드와 단체를 위한 매력적인 캐릭터 주도형 영화 제작에 열정을 쏟고 있다. 존 포터는 켄달산악영화제의 공동 창립자로 오랫동안 영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John Porter, Dom Bush

Dom Bush has won many awards for his work and is passionate about creating engaging character-led films for brands and organisations. John Porter has had a long interest in film, having co-founded the UK's premier mountain film festival - Kendal Mountain Festival.

AC3 09.27 14:00

재탄생

산 1
Mountain 1

Continuum

USA, Canada | 2023 | 23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는 137개의 재킷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여섯 명의 프로 운동선수들이 재활용 텐트를 치고 상징적인 겨울 여행지에서 고난도 스키와 스노보드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재활용 상품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아크테릭스 선수 로빈 반 진, 미셸 파커, 루시 삭바우어, 엘레나 하이트, 테이텀 모노드, 스펜서 오브라이언이 출연한다.

137 jackets destined for the landfill are given another chance at a life in the mountains. Six professional athletes take a remade tent on a winter journey showcasing not only high level skiing and snowboarding in iconic winter destinations, but also, exploring what's possible for remade goods in the outdoors and beyond.

일반적인 스키, 스노보드 활강 영화와는 다르게 환경보호와 업사이클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클라이머 아시마 시라이시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Unlike typical skiing or snowboarding films, it delivers messag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upcycling and gives a glimpse of Ashima Shiraishi. **Jinna Lee, Programmer**

미셸 파커, 로빈 반 진, 애런 블랏

프로 스키어 미셸은 미국 프리스키 오픈, X게임, 레드불 콜드 러시에서 경쟁했다. 로빈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출신의 프로 스노보더다. 블랏은 산에서의 촬영으로 그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Michelle Parker, Robin Van Gyn, Aaron Blatt

Michelle is a pro-skier. She has subsequently competed in the U.S. Freeskiing open, X-games and Red Bull Cold Rush. Robin is a professional snowboarder from Victoria B.C. Blatt maintains his footing & photography in the mountains.

AC3 09.28 17:00 Q&A

사솔의 오디세이

산 2
Mountain 2

Sasol Odyssey

Korea | 2024 | 29min | Color | Documentary

사솔 선수는 작년 선수권 대회에서 발목 부상을 입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수술과 재활을 통해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는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훈련에 임하여, 이전과는 다른 기량으로도 등반이 그녀에게 큰 즐거움임을 강조한다. <사솔의 오디세이> 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영상은 그녀의 비움과 채움의 연속된 여정을 담고 있다.

Sa Sol, an athlete, faced difficulties after sustaining an ankle injury at last year's championship. However, through surgery and rehabilitation, she regained her strength and is now aiming for the Olympics. Despite training in an imperfect condition, she emphasizes finding great joy in her altered capabilities. *Sasol Odyssey* captures her journey of emptiness and fulfillment.

운동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 그 심적 무게는 일반인이 쉽게 가늠할 수 없다. 유년 시절부터 혼자 서울에 올라와 홀로서기를 할 만큼 자립심이 강했던 사솔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는 등반 여정 중 한 부분을 렌즈에 담았다. **감독 신동철**

A devastating injury to an athlete, and its psychological weight, is something that the average person finds hard to fathom. From a young age, she displayed a strong sense of independence, moving to Seoul alone and possessing a resilient mindset. Through her positive thinking, she navigates through adversity in her climbing journey, a story we captured through our lens. **Shin Dong-chul, Director**

신동철

1993년생 서울 출생.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산에 다니며 여러가지 경험을 쌓은 후 라이튼 클라이밍을 운영하며 등반 관련 영상제작, Gym 루트세팅, 등반장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Shin Dong-chul

Born in Seoul in 1993. Since childhood, he has accumulated various experiences climbing mountains with his father. Currently, he operates Lighten Climbing, where he produces climbing-related videos, puts together gym programs, and creates climbing gear, among other activities.

AC3 09.28 17:00 Q&A

마지막 빛

산 2
Mountain 2

Last Ray

Korea | 2022 | 30min | Color | Documentary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바위 등반을 통해 클라이밍을 시작하여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영은 5.15a(9a+)의 루트를 도전하기 위해 스페인의 마르갈레프로 원정 등반을 떠나게 된다. <마지막 빛>은 그가 도전하는 루트의 이름 First Ley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프로젝트이며 '마지막 빛'이라는 의미로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등반 인생을 위한 열정을 보여준 이민영 선수의 희망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Starting rock climbing with his father from a young age, Lee Min-young is now a professional climber in South Korea. He is embarking on an expedition to Margalef, Spain, to challenge a 5.15a(9a+) route. The project, *Last Ray* inspired by the name of the route "First Ley" signifies "the last light." It represents Lee's hopeful challenge, demonstrating his passion for his climbing career regardless of the outcome.

등반가에게 새로운 도전은 삶의 한 줄기 빛과도 같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빛을 잃어가는 많은 등반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밝히며 나아가는 한 등반가의 희망과 열정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았다. **감독 신동철**

For climbers, new challenges are like a ray of light in life. Amidst possibly losing one's shine when faced with the harsh realities, one climber illuminates his own path with hope and passion. This journey is captured through the lens showcasing his inspiring and heartfelt challenge. **Shin Dong-chul, Director**

신동철

1993년생 서울 출생.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산에 다니며 여러가지 경험을 쌓은 후 라이튼 클라이밍을 운영하며 등반 관련 영상제작, Gym 루트세팅, 등반장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Shin Dong-chul

Born in Seoul in 1993. Since childhood, he has accumulated various experiences climbing mountains with his father. Currently, he operates Lighten Climbing, where he produces climbing-related videos, puts together gym programs, and creates climbing gear, among other activities.

탈론과 리키의 도전

산 3
Mountain 3

GC 10.01 13:30

Slides on the Mountain

Canada | 2023 | 3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이 영화는 릴왓 네이션 형제인 탈론(17)과 리키(15)가 산에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러 떠나는 모습을 따라간다. 겨우내 형제를 따라다니는 동안 그들의 독특한 개성이 빛을 발하고, 멘토와 릴왓 어른들은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릴왓 청소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준다.

Slides on the Mountain follows Talon and Riki, two brothers from the Lil'wat Nation, as they decide to ski Ts'zil and set off to learn the skills they need to ride the mountain safely. Their unique personalities shine as we follow them through the winter while their mentors and Lil'wat elders shed light on why it's so significant for Lil'wat youth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mountains so deeply entrenched in their culture.

이 영화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릴왓 퍼스트네이션 두 형제의 스키 등반과 여정을 조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퍼스트네이션의 문화를 이어가고 지키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film is not only a journey and tracking the skiing ascent of two brothers from the Lil'wat Nation, but is also a process of education to preserve and protect their culture. **Jinna Lee, Programmer**

세스 길리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스쿼미시 출신. 감독이자 촬영감독이며 일평생 스키어, 등반가, 다큐멘터리 덕후였다. 최근 몇 년간 내셔널지오그래픽, 아크테릭스, 캐나다관광청, REI, 텔러스의 작품을 연출하고 촬영했다.

Seth Gillis

Seth is a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from Squamish, BC. He is also a lifelong skier, climber, and documentary nerd. In recent years he's shot and directed stories for organizations like National Geographic, Arc'teryx, Destination Canada, REI, and Telus.

GC 10.01 13:30

우크라이나의 클라이머

산 3
Mountain 3

Reel Rock: Climbing Never Die

USA | 2024 | 38min | Color | Documentary

클라이밍 기자인 맷 그룸은 등반과 애국심으로 뭉쳤지만 전쟁으로 지울 수 없는 변화를 겪은 단체를 찾아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Climbing journalist Matt Groom journeys deep into war-torn Ukraine to discover a community held together by climbing and patriotism, but indelibly changed by war.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은 2024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비극의 현장에서도 클라이밍을 향한 열정과 노력은 계속된다는 증거를 담아낸 영화. 어떤 상황에서도 스포츠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은 남다른 개인의 성취보다도 위대하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t serves as a testament that passion and effort for climbing continues even in Ukraine, which is still at war. The efforts of those who continue the sports in any situation are greater than any individual achievement. **Jinna Lee, Programmer**

맷 그룸, 닉 로젠

맷 그룸은 영화감독, 편집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광고 연출도 겸하고 있다. 닉 로젠은 릴락 시리즈 프로덕션의 제작 파트너로, 2005년부터 릴락 시리즈에 참여, 다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오고 있다.

Matt Groom, Nick Rosen

Matt Groom has worked as a filmmaker, editor, and producer, as well as commercial work within the industry. Nick Rosen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Reel Rock. Nick began working with Reel Rock in 2005, and since then has created feature films and TV programs.

nelsonsports.co.kr
No Place Too Far.
SCARPA®

자연
Nature

9TH
ULSAN
ULJU
MOUNTAIN
umff FILM
FESTIVAL

올해 자연 섹션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남성들의 스포츠 키르기스스탄의 부즈카시 팀을 이끄는 아티르큘의 모습이 소개된 <대장부 아티르큘>, 왕정국가였던 부탄에 민주주의를 알리는 첫 선거가 시작되면서 변화되는 삶의 조건과 그 안에서 지켜질 가치에 대해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총을 든 스님> 등은 우리 삶과 주변 환경 사이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해녀 직업을 이어가는 주인공 재연의 극복과 회귀의 이야기 <바다의 딸>과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생존자 안토니에타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터치로 담아낸 <열일곱>, 극단적 기후변화에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세 여인의 삶을 담은 <디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전통,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is year's Nature section focuses on the stories of people struggling to survive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women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ere are films that prompt us to reflect on the complex and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our liv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where Atirkül leads a buzkashi -a real man's sport- team in Kyrgyzstan; *The Monk and the Gun*, a multi-layered presentation of the shifting conditions of life and values that must be upheld as Bhutan holds its first democratic election.
We can also reflect on our history, traditions and life through films such as: *Daughter of the Sea*, about Jae-yeon and her life as a haenyeo (traditional Korean diver); *Seventeen*, which uses animation to talk about Antonietta, a surviving Italian partisan from World War II; and *Dhye Dreams*, about the lives of three women striving to survive the extreme climate changes.

AC1 09.27 13:00
AC3 09.30 17:00

대장부 아티르큘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Kyrgyzstan, France, Czech Republic | 2023 | 6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부즈카시는 수 세기에 걸쳐 인기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승마 스포츠다. 진취적인 여성 아티르큘은 이 강인한 남성의 세계에 들어와 자신의 부즈카시 팀을 꾸린다.

Buzkashi has been a popular equestrian sport in Central Asia for centuries. It is played only by men. Atirkül, a woman with an enterprising spirit, enters this tough masculine world to form her own buzkashi team.

쾌활한 말 애호가 아티르큘은 민족지학적 통찰력과 개인적 결의를 엮어 자신만의 부즈카시 팀을 구성함으로써 성별 규범에 도전한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한 여성을 보여준다. **감독 자닐 주숩잔**

Atirkül, a resilient horse lover, defies gender norms by forming her own buzkashi team, blending ethnographic insights with personal determination. This film shot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showcases a woman pursuing her dreams in a traditionally male domain.
Janyl Jusupjan, Director

자닐 주숩잔
키르기스스탄 출신. 카자흐스탄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자유유럽방송국(RFE)의 키르기스스탄 부서 편집자로 일했다.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다.

Janyl Jusupjan
Janyl Jusupjan is from Kyrgyzstan. After studying literature in Kazakhstan, she worked as an editor at Radio Free Europe's Kyrgyz Department. Since 2015, she has been making independent feature documentary films with a focus on her Central Asia region.

총을 든 스님

The Monk and the Gun

Bhutan, USA, France, Taiwan | 2023 | 107min | Color | Fiction

UC 09.29 11:30

2006년 부탄은 현대화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다. 당국은 모의 선거를 조직하여 투표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탄의 시골로 여행을 떠난 선거 관리자는 한 승려가 선거일에 비밀스러운 의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In 2006, Bhutan becomes the last country to connect to the internet and television, embracing modernization and democracy. To teach the people how to vote, the authorities organize a mock election, but the locals seem unconvinced. Traveling to rural Bhutan, the election supervisor discovers that a monk is planning a mysterious ceremony for the election day.

관객들은 <총을 든 스님>에서 대다수의 시골 사람들이 순수함에 의해 움직이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시골과 도시의 이야기를 대조할 때 더욱 부각된다.
감독 파우 초이닝 도르지

With *The Monk and the Gun*, the audience will see that many of the rural characters in the story, who are driven and motivated by innocence are highlighted even more when we contrast the story between the rural and urban. **Pawo Choyning Dorji, Director**

파우 초이닝 도르지
부탄의 영화감독이자 사진가, 작가. 감독 데뷔작이었던 <교실 안의 야크>는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Pawo Choyning Dorji
A writer, photographer, and filmmaker from the Kingdom of Bhutan. His directorial debut, *Lunana: A Yak in the Classroom*, was invited to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was nominated for the International Feature Film at the 2022 Academy Awards.

GC 09.28 13:30

바다의 딸

자연 Nature

Daughter of the Sea

USA | 2023 | 1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극심한 우울증과 싸우던 재연은 그녀의 고향인 한국의 마라도로 돌아와 해녀인 그녀의 가족을 찾아간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구하는, 조상과 자연의 연관성을 발견한다.

Battling deep depression, Jae-youn returns to her roots on the island of Marado, South Korea, to visit her family of female free divers known as haenyeo. To her surprise, she finds a connection to nature and her ancestors that literally saves her life.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제주해녀문화는 이미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이다. 주인공 재연이 대를 이어 물질을 이어가는 것은, 그 계기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이어지는 소중한 연결점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Culture of Jeju Haenyeo,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ready recognized for its preservation value. It is a valuable connection to continue our traditional way of life that Jae-youn became a Haenyeo for generations, regardless of the situation and reason.
Jinna Lee, Programmer

니콜 고믈리, 낸시 권

니콜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이자 사진작가, 수중 촬영기사로 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낸시는 한국 출생으로 10살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녀의 작품은 TV 방송부터 장편 영화, 에미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하다.

Nicole Gormley, Nancy Kwon

Nicole is a documentary filmmaker, photographer, and underwater shooter, who inspires people to rethink our relationship to nature. Nancy was born in South Korea and moved to USA when she was 10. Her projects encompass television, films, and Emmy-nominated documentaries.

열일곱

자연 Nature

Seventeen

Switzerland | 2023 | 17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식량, 의약품, 무기와 탄약. 전쟁 중, 어린 안토니에타는 이 모든 것을 무거운 배낭에 넣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속의 동지들에게 밤을 틈타 운반했다. 저항군에 대한 기억이 자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그녀는 침묵을 깬다.

Food, medicine, weapons, and ammunition. During the war, the young Antonietta transported all this at night in a heavy backpack to her partisan group in the mountains at great risk. She breaks her silence about this time because she fears that her memories of the resistance will die with her.

안토니에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살아남은 이탈리아 저항군 중 한 명이다. 90세가 된 그녀는 집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감독 토마스 호라트

Antonietta is one of the last surviving resistance fighters from World War II in Italy. At the age of 90 years, she wasn't able to leave the house: ways had to be found to tell her story.
Thomas Horat, Director

GC 09.28 13:30

토마스 호라트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화 제작자. 독학으로 영화를 배웠다. 장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독으로 활동하며 단편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때때로 프로듀서를 맡기도 한다.

Thomas Horat

An awarded self-taught filmmaker who works as a director on short and feature-length documentary films and sometimes he wears the hat of a producer in order to support short films.

GC 09.28 13:30 TALK

디예의 시간

Dhye Dreams

자연 Nature ON

Nepal | 2023 | 2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기후 변화로 네팔 어퍼무스탕의 외딴 티베트 마을이 메말라버렸다. <디예의 시간>은 운명과 싸우는 세 여인의 삶을 긴밀하게 보여주는 28분짜리 다큐멘터리다. 그들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맞서는 고립된 히말라야 마을의 회복력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조명한다.

Climate change has desiccated the landscape in the remote Tibetan villages of Upper Mustang, Nepal. *Dhye Dreams* is a 28-minute documentary that intimately explores the lives of three women fighting against their fate. Their stories highlight the resilience and struggle for the survival of isolated Himalayan villages battling against dramatic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직면한 어퍼무스탕의 여인들에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환경, 문화, 성별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파괴적이고 쉽게 잊히는 영향력과 침묵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이 범세계적 이야기는 힘을 실어주고 연결해 주고자 한다. **감독 샨타 네팔리**

Inspired by Upper Mustang's women facing climate change, my film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environment, culture, and gender. It highlights silenced voices and the devastating, often forgotten, impact on traditions. This global story seeks to empower and connect.
Shanta Nepali, Director

샨타 네팔리

2023년 봄, 어퍼무스탕의 기후 문제에 영감을 받아 여성의 관점과 소외된 목소리를 강조하는 영화를 시작했다. 달리트 영화제작자로서 상호 연계된 사회문제와 여성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후 변화의 문화적 영향을 탐구한다.

Shanta Nepali

In spring 2023, inspired by Upper Mustang's climate issues, she began a film highlighting women's perspectives and marginalized voices. As a Dalit filmmaker, her work explores climate change's cultural impact, focusing on interconnected social issues and women's vulnerabilities.

항아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선물!
ROSÉEL RE+
항아리 속에서 점점 더 순해지고 풍부해지는
로지앤엘만의 차별화된 **발효숙성액**
roséeL
ROSÉEL RE+ EYE CREAM
REJUVENATE YOUR SKIN WITH PREMIUM-FORMULA
20 G / 0.71 OZ.

인간
Human

올해 인간 섹션은 사회의 변화와 전통/현재의 공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문명의 급변에 영향을 받거나,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 가족'을 소재로 한 극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산업 사회에 대한 슬픈 코미디 <모던 타임즈>는 진수영시네마앙상블의 재즈 연주와 함께 소개되고, <퍼펙트 데이즈>에서 보이는 카세트테이프와 필름 카메라는 주인공의 일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동반자입니다. <수영제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소재로 한, 시대의 변화에서 현재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부탄의 행복 조사원들이 만난 현재 부탄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와 삶의 이야기 <행복 검침 왔습니다!>는 급변하는 사회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통 대가족의 구성원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변화를 알 수 있는 <장손>과 울주 언양/삼남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욕심과 소년의 성장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여름이 지나가면>,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 배우의 연기 하모니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풍>, 수화해설버전으로 상영하는 엄마와 딸의 판타지적 만남과 이별을 다룬 <3일의 휴가>는 가족의 의미와 그 결속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This year's Human section focuses on the stories of people living in a changing society with tradition and the present intermingling. The section introduces feature films about the impact of rapid shifts in technology and civilization to the modern society, as well as those with themes about "Korea and Family" where tradition and present coexist.

Charlie Chaplin's *Modern Times*, a sad comedy about the industrial society, will be accompanied by a live performance by the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In *Perfect Days*, cassette tapes and a film camera are the protagonist's partner in his perfect day. Reflecting on the impact of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yeong Bakery* is a story about gentrification, of people trying to fight change, and *Agent of Happiness* is a story about the lives and happiness levels of the Bhutanese people as observed by Bhutan's happiness surveyors.

There are also films that make us reflect on the meaning of family and the changing familial bonds: *House of the Seasons*, which portrays the history and changes in Korea through the members of a traditional extended family; *When This Summer is Over*, set against the backdrop of Ulju Eonyang and Samnam, intricately combines a mother's desire with a boy's coming of age story; *Picnic*, which raises various issues of family and society through the acting harmony of Na Moon-hee, Kim Yeong-ok, and Park Keun-hyong; and *Our Season* (with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 fantasy-like meeting and parting of a mother and daughter.

9TH ULSAN ULJU MOUNTAIN umff FILM FESTIVAL

GC 09.27 16:00 BF

3일의 휴가

Our Season

Korea | 2023 | 105min | Color | Fiction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 복자는 하늘에서 3일간의 휴가를 받아 규칙 안내를 맡은 신입 가이드와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미국 명문 대학교수인 자랑스러운 딸을 볼 생각에 설레던 마음도 잠시, 돌연 자신이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와 백반 장사를 시작한 진주의 모습에 당황한다. 속 타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는 진주는 자신을 찾아온 단짝 미진과 엄마의 레시피를 찾아가고, 낯익은 요리를 보자 서로의 추억이 되살아나는데…

On the 3rd year of her death, Bok-ja receives a 3-day vacation and comes down to earth with a rookie guide. Bok-ja was embarrassed that her daughter Jin-ju had returned to her country house and started a small restaurant, not becoming a professor. unaware of how upset Bok-ja is, Jin-ju tries to find out her mother's recipes with her best friend Mi-jin. When seeing a familiar dish, they recall memories of each other.

지금 같은 시대에 위로가 될 작품이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지나쳤던 감정들을 다룬 이야기에 관객들이 많은 공감을 느끼길 바란다. **감독 육상효**

This is a work that will provide comfort in times like these. I hope that audiences will feel a lot of empathy for the stories that deal with the emotions we have neglected or overlooked.
Yuk Sang-hyo, Director

육상효

<장미빛 인생>, <축제>, <화장>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달마야, 서울 가자>, <방가? 방가!>, <나의 특별한 형제> 등을 연출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Yuk Sang-hyo

The screenwriter of *Rosy Life, Festival*, and *Rivivre*. He also directed films such as *Dalmaya Seoul Gaja*, *He's on Duty*, and *Inseperable Bros*. He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AKOFIC Awards, The Blue Dragon Awards and the Baeksang Arts Awards.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

GC 09.28 19:00 PF
AC4 09.29 19:30 PF

USA | 1936 | 87min | B&W | Fiction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못 조이는 일을 하던 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조여버리는 강박 관념에 빠져 정신 병원까지 가게 된다. 퇴원 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다 시위 군중에 휩싸여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풀려난 찰리는 빵을 훔친 소녀를 도와준다. 소녀와 함께 살 근사한 집을 사기 위해 여러 일을 해보지만 번번히 소동으로 막을 내린다. 찰리와 소녀는 떠돌이가 되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Charlie, who works all day at the conveyor belt factory, is obsessed with tightening everything he sees and is admitted to a hospital. After being discharged, he caught in a protest crowd and taken to prison, and Charlie, who is released, helps the girl who stole bread. He tries many jobs, but it ends with a lot of commotion. Charlie and the girl become wanderers, but they don't give up hope.

1927년 이후 유성영화가 주류를 형성하던 시기, 무성영화 스타일의 연출을 고수하던 찰리 채플린의 역작 중 한 편이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 찰리,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했지만, 현실에서 영화 기술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현실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is one of the masterpieces of Charlie Chaplin who still stuck to the directing style of silent films during a period when sound films became the mainstream after 1927. The director played the main role, Charlie who couldn't adapt to changes and resembles himself in real life. **Jinna Lee, Programmer**

찰리 채플린

영국의 희극배우, 영화감독, 작곡가로 무성영화 시대의 한 획을 그었으며,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를 통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기를 이끌기도 했다. <키드>,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등 대표작들은 21세기 현재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Charlie Chaplin

British comedian, filmmaker, and composer, he marked a milestone in the silent film era and led the Hollywood studio era through United Artists. His films, including *The Kid*, *Modern Times*, and *The Great Dictator*, are highly regarded in the 21st century.

AC3 09.28 14:00 Q&A

소풍
Picnic

Korea | 2023 | 115min | Color | Fiction

친구 금선이 불쑥 찾아오자 은심은 금선과 함께 고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좋아했던 태호를 만나고 잊고 지낸 오랜 추억들이 하나 둘 살아난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네 친구 할 끼야." 어쩌면 마지막 소풍이 시작된다.

After a surprise visit from her friend Geum-sun, Eun-sim is headed to her hometown with Geum-sun. There, she catches up with Tae-ho who had feelings for her when they were teenagers. Her long-lost memories come to life one by one. "If I were born again, I'd still be your friend." This could be the start of one last picnic.

한국에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가족의 해체, 노인 문제, 지역 개발-를 배경으로, 관록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연기의 하모니가 중첩되어 반전의 결말까지 선사하는, 잘 버무려진 한상 차림. **프로그래머 이정진**

Against the backdrop of a range of problems existing in Korean society such as the dissolution of families, issues facing the elderly,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the harmony of acting by the seasoned actor/actress is well-mixed that's also aided by a twist at the end.
Jinna Lee, Programmer

김용균

1969년생. 장편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촬영감독이며 <와니와 준하>로 감독 데뷔했다. 이후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더 웹툰: 예고살인>, <괴담 만찬>을 연출했다.

Kim Yong-gyun

Born in 1969. Kim worked as a cinematographer for the feature film *Mother, Your Son* and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first feature, *Wanee and Junha*. Subsequently, he directed films like *The Red Shoes*, *The Sword with No Name*, *Killer Toon*, and *Tastes of Horror*.

수영제과
Suyeong Bakery

AC3 09.28 19:00 Q&A

Korea | 2024 | 9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모 제과 제빵 대기업의 인턴 면접에서 떨어진 초보 파티시에 소화는 부산으로 낙향한다. 부산 수영의 동네 빵집 수영제과를 망하게 하고 그곳에 마리호텔과 김마리 베이커리를 오픈하려는 프로젝트에 소화를 위장 취업시키는 유명 파티시에 김마리. 평소 동경하던 유명 파티시에 김마리의 온갖 회유에 따라 소화는 수영제과를 망하게 하려 기괴한 사건들을 기획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 동네 빵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So-howa leaves an internship interview at a baking company and goes back to Busan. Famous patisserie Kim Ma-ri puts So-howa on a project to ruin Suyeong Bakery and open Mari Hotel and Kim Mari Bakery there under cover. So-howa creates a project to ruin Suyeong Bakery on the orders of the respected patisserie Kim Ma-ri, but as it progresses, she realizes the preciousness of the local bakery.

<수영제과>는 일상 속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자 기획했다. 퇴근길에 사 온 달콤한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수영제과>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가면 관객들의 입가에 작은 미소 하나가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감독 정성욱**

Suyeong Bakery is designed to portray everyday stories in a light and fun way. I hope that when the last scene of *Suyeong Bakery* passes like a bite of sweet cream bread, a small smile will be put on the audience. **Jung Seong-wook, Director**

정성욱

2005년 전수일 감독의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을 시작으로 <이웃사람>, <그림자들의 섬>, <괴물들>, <파미르> 등 다수의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였다.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 <내 마음에 불꽃이 있어>를 연출했다.

Jung Seong-wook

Born in Busan, Jung started shooting feature films and documentaries set in Busan. *Time Between Dogs and Wolves*, *The Neighbors*, *The Island of Shadows*, *Wretches*, and *Pamir* are his most representative films. He also directed *My Dear Diary* that secured an invitation to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C1 09.28 19:00 Q&A

여름이 지나가면

When This Summer is Over

Korea | 2024 | 115min | Color | Fiction

기준의 새 운동화가 사라진다. 왠지 신발 도둑은 영문 형제일 것만 같다.

Ki-jun's new sneakers go missing. Somehow, it seems like the Young-mun brothers are to blame.

상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감독 장병기**

I wanted to reveal the difference in common sense. **Jang Byung-ki, Director**

장병기

1986년 창원 출생.

Jang Byung-ki

Born in Changwon, South Korea, 1986.

장손

House of the Seasons

AC2 09.28 19:30 Q&A

Korea | 2023 | 121min | Color | Fiction

무더운 여름,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안의 장손인 성진을 포함한 온 가족이 고향집으로 모여든다. 성진의 아버지는 가업인 두부 공장을 물려받았고 가족들은 공장일을 돕고 있다. 평화로워 보이던 가족들은 제사가 끝나고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그 와중에 성진은 가업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It's summer, and the whole Kim family have gathered in Daegu for the ancestral rites. This includes Seong-jin, the eldest grandson of the family, whose father has taken on the family business: a tofu factory. After the rites, family tensions start to rise and Seong-jin drops the bombshell that he won't be taking on the family business.

사라져 가는 것들, 살아갈 것들. **감독 오정민**

Things that leave, things that live on. **Oh Jung-min, Director**

오정민

1989년 대구 출생.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단편 <연지>(2016), <림>(2018), <CUT>(2018), <백일>(2018), <성인식>(2018)을 연출하였다. <장손>은 감독의 첫 장편이다.

Oh Jung-min

Jung-min was born in 1989 in Daegu. He studied filmmaking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AFA). He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Yeonji* (2016), *LIM* (2018), *CUT* (2018), *100 Days* (2018), and *Coming of Age* (2018). *House of the Seasons* (2023) is his debut feature film.

GC 09.29 18:00 PF

퍼펙트 데이즈

Perfect Days

Japan, Germany | 2023 | 125min | Color | Fiction

히라야마는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는 단순한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듯하다. 굉장히 잘 짜인 반복적인 일상 외에는 음악과 책에 대한 열정을 즐기고, 그가 좋아하는 나무들의 사진을 찍는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거듭될수록 점차 드러나는 그의 과거.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찾는 아름다움에 대한 시적인 성찰과 깊은 감동을 보여준다.

Hirayama seems utterly content with his simple life as a cleaner of toilets in Tokyo. Outside of his very structured everyday routine he enjoys his passion for music and for books. And he loves trees and takes photos of them. A series of unexpected encounters gradually reveal more of his past. A deeply moving and poetic reflection on finding beauty in the everyday world around us.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신작. 영화 외화면적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의 사연을 뒤로 한 채, 우리들의 젊은 날을 채웠던 다양한 팝 넘버와 야쿠쇼 코지의 연기로 4:3 화면을 꽉 채운 영화. **프로그래머 이정진**

A new film directed by the master director Wim Wenders. Beyond the protagonist's various stories which can be sensed off-screen, this film is filled fully with the acting by Yakusho Koji and numerous pop numbers which filled our young days. **Jinna Lee, Programmer**

빔 벤더스

1945년 출생. 1970년대 뉴저먼시네마의 주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현대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Wim Wenders

Wim Wenders (born 1945) came to international prominence as one of the pioneers of New German Cinema during the 1970's and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in contemporary film.

행복 검침 왔습니다!

Agent of Happiness

UC 09.30 19:00 Q&A

Bhutan, Hungary | 2024 | 94min | Color | Documentary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부탄에서는 이를 위해 국민총행복지수를 발명했고 앰버는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는 행복 검침원이다. 그는 40세에도 여전히 나이 드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는 것을 꿈꾸는 절망적인 낭만주의자, 바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행복 검침원이다.

How can you measure happiness? The country of Bhutan invented Gross National Happiness to do just that, and Amber is one of the agents who travels door to door to meet people and measure how happy they really are. He is still living with his elderly mother at the age of 40, but is nevertheless a hopeless romantic who dreams of finding love: a happiness agent who is in search of his own happiness.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환경에서 벌어지는 달콤 씁쓸한 이야기.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예술가로서의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감독 아룬 바타라이, 도로티야 주르보**

Agent of Happiness is a bittersweet tale that takes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is still enigmatic. We believe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produce stories with uplifting, heart-warming potential in difficult times, that this is one of our responsibilities as artists.
Arun Bhattarai & Dorottya Zurbó, Directors

아룬 바타라이, 도로티야 주르보

아룬은 감독이자 촬영감독, 공동 프로듀서로 부탄에서 몇 안 되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인 중 한 명이다. 공동 감독인 도로티야는 영화제작과 더불어 유럽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Arun Bhattarai, Dorottya Zurb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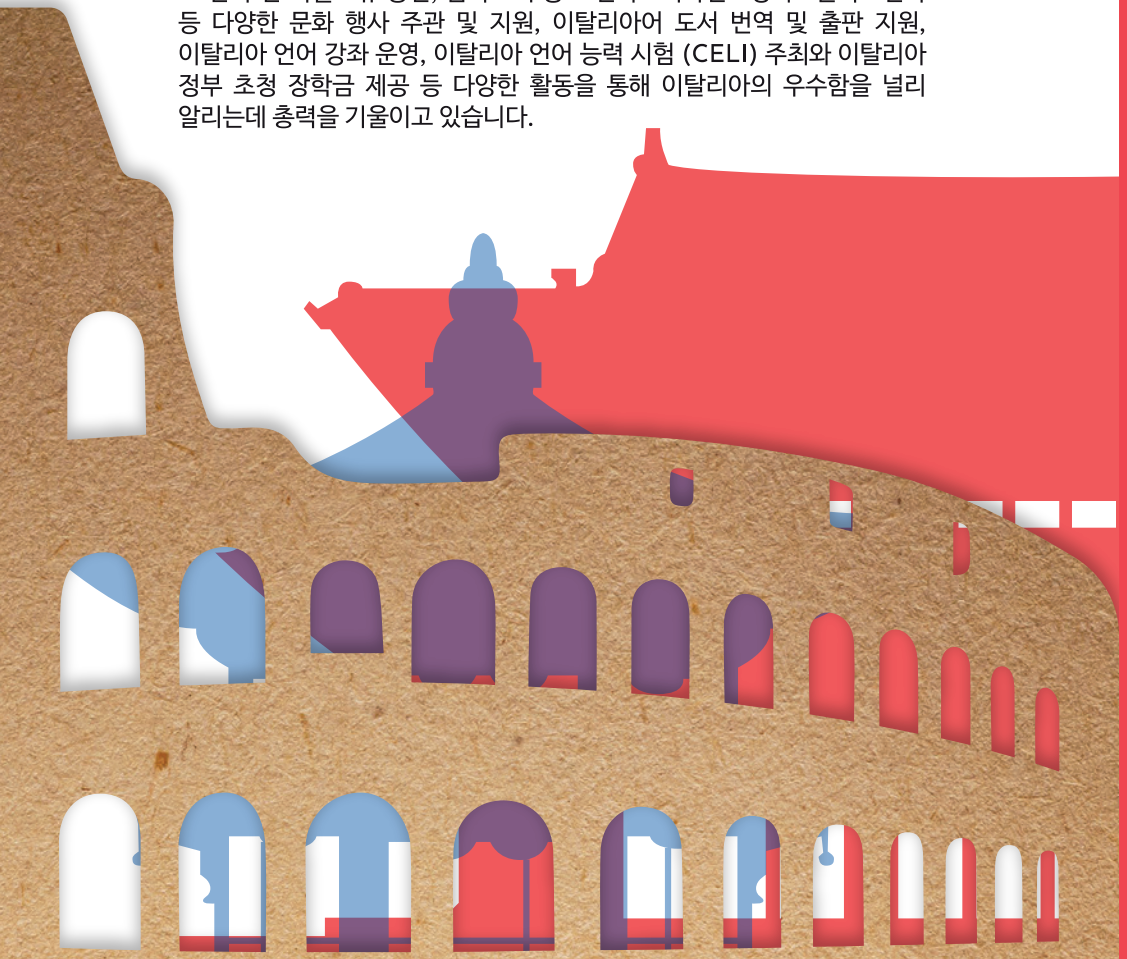
Arun is a director, cinematographer, and co-producer. He is one of the few independent documentary filmmakers in Bhutan. Dorottya is a co-director of the film. Besides filmmaking, she has been teaching at the prestigious DocNomads Joint Master program in Europe.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SEOUL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소속으로서 5대륙 주요 도시에 설립된 84개 문화원 중 하나로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에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의 협력 하에 이탈리아 - 한국 간 학술교류 증진, 음악 • 무용 • 연극 • 디자인 • 영화 • 문학 • 건축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주관 및 지원, 이탈리아어 도서 번역 및 출판 지원, 이탈리아 언어 강좌 운영, 이탈리아 언어 능력 시험 (CELI) 주최와 이탈리아 정부 초청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탈리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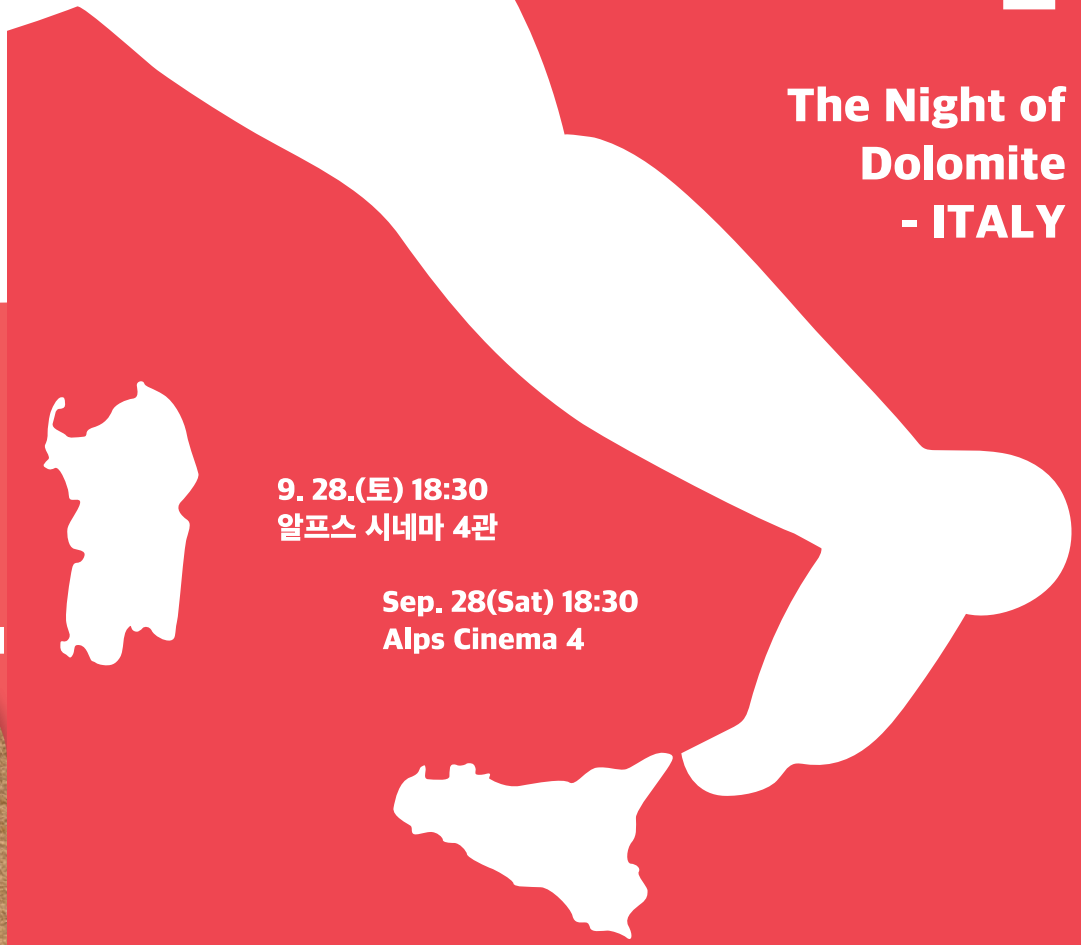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tel. 02 796 0634 | 02 797 7792
website. iicseoul.esteri.it
e-mail. segreteria.iicseoul@esteri.it

facebook.com/iicseoul1
instagram.com/iicseoul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Seoul

돌로미티 - 이탈리아의 밤

The Night of Dolomite - ITALY



9. 28.(토) 18:30
알프스 시네마 4관

Sep. 28(Sat) 18:30
Alps Cinema 4

공연
빈센조 렌티니 테너
전희연 피아니스트

상영작
<엑스칼리버>

진행
이정진 UMFF 프로그래머
아드리아나 마리아 두엘로 배우

Performance
Vincenzo Lentini Tenor
Heeyeon JEON Pianist

Screening Flim
Excalibur

Moderator
Jinna Lee Programmer of UMFF
Adriana Maria Duello Actress

올해의 산
Guest Country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인사말

친애하고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맞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이 훌륭한 행사는 산과 모험, 탐험, 자연, 환경을 다룬 영화와 문화를 소개하고 장려합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함께 모이는 가운데 올해 주빈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웅장한 돌로미티 산맥을 집중 조명하게 된 것은 명예로운 특권입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돌로미티는 숨 막히는 아름다움과 독특한 지질학적 구조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돌로미티는 이탈리아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제작자와 모험가, 자연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돌로미티의 험준한 봉우리와 고요한 계곡, 다양한 생태계는 인간의 용기와 회복력,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다룬 이야기들의 완벽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탐구하는 특별한 섹션을 선보이며 돌로미티의 매혹적인 풍경과 그 안에 구현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취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보존의 시급함을 상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영남알프스뿐 아니라 울산대공원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악영화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영화의 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치유와 위안을 주는 영화제의 사명을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소개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산악 풍경들을 직접 탐험하고 기록한 영화인, 모험가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주최 측과 영화인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모험정신과 자연의 경이로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문화적 유대감을 기념합시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 및 패널 토론은 환경인식과 환경운동을 장려하는 영화제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연 세계를 탐험하고, 아끼며, 보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이 산의 청정한 아름다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되새겨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럽의 알프스 자락,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The Dolomite)은 2026년 밀라노와 함께 동계올림픽 개최지이면서, 200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이탈리아 산악문화의 시작점이자 본고장이라 할 만한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탈리아산악회, 트렌토산악영화제와 토리노산악박물관이 있습니다.

올해의 산 섹션에서는 총 12편의 영화가 소개되는데, 이탈리아의 산악전통을 바탕으로 등반과 탐험의 현재, 그리고 산과 더불어 사는 삶이 녹아 든 8편의 영화가 소개됩니다. 또한 가톨릭의 강한 전통과 가부장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 감독 영화 4편을 통해 이탈리아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돌로미티 - 이탈리아
Dolomite - ITALY

Greetings - Michela Linda Magrì, Director of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Distinguished, honorable, dear friends! I am honored to address you today as the Director of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at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This remarkable event, the first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South Korea, is dedicated to presenting and promoting films and culture that celebrate the mountains, adventure, exploration, nature, and the environment.

As we gather in the beautiful landscapes of Ulju, Ulsan Metropolitan City, from the 27th of September to the 1st of October 2024, it is a special privilege to highlight this year's guest of honor: the majestic Dolomite Mountains of Italy. Known for their breathtaking beauty and unique geological formations, the Dolomites are a symbol of natural splendor an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Dolomites are not only a treasure of Italy but also a source of inspiration for filmmakers, adventurers, and nature enthusiasts around the world. Their rugged peaks, serene valleys, and diverse ecosystems offer a perfect backdrop for stories of human courage, resilience, and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nature and culture.

This year's festival showcases an extraordinary selection of films that explore these themes, providing a window into the enchanting landscapes of the Dolomites and the rich cultural heritage they embody. Through these films, we hope to inspire a deeper appreciation for the natural world and the urgent need to preserve it for future generations.

UMFF continues to grow and evolve, and we are thrilled to see the festival expand its reach with screenings not only in the Yeongnam Alps but also at the Ulsan Grand Park. This expansion enhances accessibility and allows more people to experience the magic of mountain cinema.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s proud to support this festival and its mission to bring healing and comfort through the power of film and the beauty of nature. Moreover, we are excited about the new interactive sessions that have been introduced this year. These sessions will allow attendees to engage directly with filmmakers and adventurers who have firsthand experience in exploring and documenting the world's most awe-inspiring mountain landscapes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organizers of the UMFF, the filmmakers, and all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making this event a success. Let us celebrate the spirit of adventure, the wonders of nature, and the cultural ties that unite us. The inclusion of workshops and panel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and conservation efforts also underscores the festival's commitment to promoting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 May this festival inspire us all to explore, cherish, and protect our natural world.

Let us take this opportunity to reflect on our role in safeguarding the environment and ensuring that future generations can continue to enjoy the pristine beauty of the mountains. Grazie mille.

Nestled in the Alps, the Dolomite Mountains in northern Italy was designated as a UNESCO Natural heritage site in 2009 and will host the 2026 Winter Olympics along with Milan. It is considered to be the birthplace and the heart of Italy's mountain culture. And at its core are the Club Alpino Italiano(CAI), Trento Film Festival, and the Museo Nazionale Della Montagna Cai-Torino.

This year's Guest Country section features 12 films, and 8 of them are rooted on Italy's rich mountain traditions. There are also 4 films by female directors who are raising their voices within a culture still strongly influenced by Catholic tradition and patriarchy. We hope they will provide insight into Italy's diverse aspects.

AC3 09.30 14:00

볼라레

Flying

Italy | 2024 | 100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어느 날 안나 B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인생 전체가 비행공포증에 영향을 받았고 그녀의 경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공한 여배우지만 비행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해외의 많은 역할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딸 세레나가 캘리포니아 유학을 결정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안나 B는 어쩔 수 없이 피우미치노 공항의 문턱을 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다. 각자 두려움이라는 짐을 안은 채 기꺼이 비행공포증을 극복한 다른 미지의 여행자들도 같은 장소로 향한다.

Anna B's life has been affected by aerophobia. She is a successful actress but has turned down many roles abroad because of flying. Now, her daughter has decided to study in California. Obsessed with the idea of not being a good mother, Anna B determined to cross the dreaded threshold of the airport and to head to a class, with mysterious travelers with their own fears.

마르게리타 부이는 우리의 큰 가장 두려움을 마주 볼 필요성과 인간의 약점에 대하여 일부 자전적면서 부드러운 코미디를 쓰고 연출한다. **해외 세일즈 담당 마르게리타 마텔리**

Margherita Buy writes and directs a partially autobiographical and tender comedy on human weaknesses and the necessity to face our biggest fears.
Margherita Martelli, International Sales Coordinator

마르게리타 부이

이탈리아 배우이자 감독이며 작가 겸 극본가. 2015년 난니 모레티 감독의 <나의 어머니>로 다비드 디 도나텔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비드 디 도나텔로와 나스트로 디아르젠토를 포함해 13개의 상을 수상했다.

Margherita Buy

Margherita Buy is an Italian actress, director, writer, and screenwriter. In 2015, she received the award for Best Actress at the David di Donatello Awards for her performance in Nanni Moretti's *Mia madre*. She won 13 awards, including Nastri D'Argento.

엑스칼리버

Excalibur

AC4 09.28 18:30 TALK PF

Italy | 2023 | 29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40도 경사의 벽에 작은 홀드와 완벽한 라인. 이것이 '엑스칼리버'다. 스테파노 기솔피는 트렌티노에 있는 그의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이 루트에 오르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2년을 프로젝트에 전념한 끝에 스테파노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이자 세계에서 가장 힘든 루트 중 하나인 엑스칼리버(9b+)의 초등에 성공한다.

A perfect line with tiny holds on a 40-degree wall: this is 'Excalibur'. Stefano Ghisolfi accepted the challenge to climb this route, which is only a few steps from his home in Trentino. After two years of dedication to the project, Stefano succeeded in making the first ascent of what is now the most difficult route in Italy and one of the hardest in the world: Excalibur 9b+.

이탈리아에서 가장 어렵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루트 중 하나인 엑스칼리버. 기술적 어려움을 넘어, 그의 집 근처에서 이뤄진 이 도전을 통해 스테파노의 성찰적 여정을 탐구하고 선수 협력이 어떻게 스포츠클라이밍 주축의 미래를 주도하는지 강조했다.
감독 안드레아 반디넬리

Excalibur is Italy's hardest and one of the world's toughest routes. Beyond its technical difficulty, we explored Stefano's introspective journey with this challenging project near his home and highlighted how athlete collaboration drives the future of elite sport climbing.
Andrea Bandinelli, Director

안드레아 반디넬리, 디에고 보렐로, 니콜로 콘테르노

아르코의 젊은 영화인 셋으로 구성된 Crimp Films는 스포츠클라이밍 전문으로 2022년 설립됐다. 2022년 8월 플라탕에르에서 시작된 스테파노 기솔피와의 인연은 이탈리아의 가장 어려운 루트를 오르는 영화로까지 이어졌다.

Andrea Bandinelli, Diego Borello, Niccolò Conterno

Crimp Films, a team of three young filmmakers based in Arco and specializing in sport climbing, was founded in 2022. Their collaboration with athlete Stefano Ghisolfi began in Flatanger in August 2022, leading to a film on Italy's hardest route.

GC 10.01 18:30

여덟 개의 산

The Eight Mountains

Italy, Belgium, France | 2022 | 147min | Color | Fiction

도시에 사는 피에트로와 산에 남은 유일한 아이 브루노. 알프스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두 소년은 자연을 누비며 우정을 나눈다. 그 후 성인이 된 피에트로는 아버지 조반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산으로 돌아오고 브루노와 재회한다.

In the summer of 1984, Pietro, an 11-year-old from Turin, came to a village called Grana in the Italian Alps. There Pietro meets Bruno, the last kid remaining in the village and they quickly become friends. 15 years later, One winter night, 31-year-old Pietro receives a call that his father has died. He returns to the mountains and finds Bruno in Grana.

우리는 작은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서사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 영화는 모든 생명의 연약함과 강인함에 대한 찬가이다.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산이든.
감독 펠릭스 반 그뢰닝엔, 샤를로트 반더미르히

We wanted to make an epic film, told in tiny gestures. An ode to the fragility and strength of every single living being, be it a human being, an animal, a plant, or a mountain.
Felix van Groeningen & Charlotte Vandermeersch, Directors

펠릭스 반 그뢰닝엔, 샤를로트 반더미르히

펠릭스 반 그뢰닝엔은 벨기에 출생으로 겐트왕립예술아카데미에서 시청각예술을 전공했다. 샤를로트 반더미르히는 배우이자 가수이며, 영화감독이다. 연극을 전공했으며 피아노와 성악에도 조예가 깊다.

Felix van Groeningen, Charlotte Vandermeersch

Felix van Groeningen is a Belgian filmmaker who was trained in audiovisual arts at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of Ghent. Charlotte Vandermeersch is an actress, singer, and director. She studied Dramatic Art and was trained in piano and singing.

오직 물과 바람만이

It's Just Water and Wind

AC3 09.27 23:59

AC3 09.28 11:00 TALK

Italy | 2022 | 5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바다와 사막, 빙하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탐험가 알렉스 벨리니의 삶과 모험.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내면의 그림자에 맞서며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한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의 환경 탐사까지 벨리니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연대기.

The life and adventures of the explorer Alex Bellini, who has traversed oceans, deserts, glaciers, and continents, pushing his limits, confronting his inner shadows, and seeking a path beyond the pitfalls of the human condition. The film chronicles Bellini's remarkable journey from his early years to his latest environmental explorations.

알렉스 벨리니가 미국 횡단 트레일이나 태평양 보트 횡단을 떠났던 이유, 그리고 또 다른 탐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이 영화에 전부 담아내긴 부족하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t is not enough to show via only this film why Alex Bellini traversed oceans and across America, and why he is preparing for other explorations. So the festival arranged a program to share his story directly. **Jinna Lee, Programmer**

루카 로시니

영화감독이자 TV 리포터 겸 진행자. 전후 발칸반도에 관한 여러 다큐멘터리의 감독을 맡았으며, 이탈리아의 공중파와 민영 TV의 토크쇼에서 국제, 정치 문제를 다루는 리포터로 일했다.

Luca Rosini

A filmmaker, TV reporter, and host. He directed many documentaries about post-war in the Balkans. Then he worked as a TV reporter on talk shows for public service and private television in Italy, covering both current political and international affairs.

© Enrico De Luigi

AC1 09.30 13:00

허밍버드

The Hummingbird

Italy, France | 2022 | 126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허밍버드, 마르코 카레라는 우연과 상실, 사랑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영화는 70년대부터 현대까지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회상의 힘으로 흘러간다. 해변에서 마르코는 이뤄지지도 끝나지도 않는 평생의 사랑 루이사 라테스를 만난다. 원초적인 삶의 힘에 관한 영화인 <허밍버드>는 환상과 행복을 무기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고된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Marco Carrera, the hummingbird, lives a life of coincidences, loss, and love. The story shifts fluidly from the 70s to the present. Marco's lifelong, unfulfilled love for Luisa Lattes shapes his journey. *The Hummingbird* explores life's enduring force and the struggle to endure the intolerable with illusion and happiness.

이 영화는 허밍버드로 알려진 마르코 카레라의 이야기다. 운명적인 우연과 상실, 사랑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행복과 환호를 무기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위한 그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해외 세일즈 담당 마르게리타 마르텔리**

The film tells the story of Marco Carrera, known as the Hummingbird, his life of fateful coincidences, loss, and love, and his struggle to withstand the intolerable by wielding the weapons of happiness and good cheer. **Margherita Martelli, International Sales Coordinator**

프란체스카 아르키부지

이탈리아의 배우이자 감독, 작가, 극본가, 조감독. 1994년 <그레이트 펌킨>으로 나스트로 디아르젠토 최우수각본상을 수상했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4번의 다비드 디 도나텔로상과 나스트로 디아르젠토상을 수상했다.

Francesca Archibugi

Francesca is an Italian actress, director, writer, screenwriter, and assistant director. In 1994, she received the award for Best Original Story at the Nastri d'Argento for the film, *The Great Pumpkin*. She won 4 awards: David di Donatello and Nastri d'Argento.

홈 프론트

The Home Front - A Journey in Italy with Domenico Quirico

Italy | 2021 | 11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AC2 09.30 16:30

네 도시 이야기.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A tale of four cities. Told through the lives of those who seem to have lost all their chances and those who work to broaden the field of their possibilities.

우리나라에 대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미스터리일 수 있다. 도메니코 퀴리코와 함께 영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난 이 여행은 내가 미처 몰랐던 영역에 대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감독 파올라 피아첸자**

I'm not sure I always understand my country. Italy can be a mystery even to those who live there. Taking this trip, in the company of Domenico Quirico, meeting the protagonists of the stories told in the film, perhaps threw some light on territories unknown to me.
Paola Piacenza, Director

파올라 피아첸자

영화제작자이자 기자. 국경을 따라 <연료통의 나라>,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를 촬영했다. 종군기자 도메니코 퀴리코와 함께한 <심연에서 온 그림자>는 2016년 베니스국제영화제 베니스데이즈 부문 폐막작이었다.

Paola Piacenza

Filmmaker and journalist, Paola Piacenza filmed along borders *The Land of Jerry Cans* (2009), *In no Language in the World* (2011), *In a Free State* (2012). *The War Within*, with the war correspondent Domenico Quirico, was the closing film of the Venice Days 2016.

AC2 09.28 10:30 Q&A

아이스 빌더

돌로미티 - 이탈리아 1
Dolomite - ITALY 1

The Ice Builders

Italy | 2024 | 1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히말라야산맥의 외딴 고산 사막 잔스카 계곡. 이 지역의 주민들은 봄이 되면 녹아 물을 제공해 주는 빙하에 항상 의존해왔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맞선 불평등한 투쟁에서, 라다크 사람들은 봄의 물 부족을 해결하고 지하수 재충전을 위해 인공 빙하를 건설한다.

In the Himalayan mountains, in the remote high-altitude desert valley of Zanskar, the local population has always depended on glaciers, which provided the water for life when they melted in spring. Today, in an unequal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the people of Ladakh construct artificial glaciers to combat the lack of water in spring and contribute towards groundwater recharge.

우리는 서사적으로 더 확장된 장편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 단편은 지구의 온도계이기도 한 이 지역의 자연과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담았다.
감독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토마소 바르바로

This short film(while we are working on a more narratively open feature film) is for us a first reflection of the urgency of a situation that is drastically changing the natural and climatic balance of those areas, which are the thermometers of planet Earth.
Francesco Clerici & Tommaso Barbaro, Directors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토마소 바르바로

프란체스코 클레리치는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자 대학교수로 그의 작품들은 저명한 영화제와 박물관에서 상영되었다. 토마소 바르바로는 음향 편집자이자 음향 디자이너로 루키노비스콘티영화학교를 졸업했다.

Francesco Clerici, Tommaso Barbaro

Francesco Clerici is an award-winning director and university professor whose works have been screened in the emminent festivals and museums. Tommaso Barbaro, a sound editor and sound designer, obtained a diploma from the Civica Scuola di Cinema Luchino Visconti.

숲 속의 저녁

돌로미티 - 이탈리아 1
Dolomite - ITALY 1

AC2 09.28 10:30 Q&A

Even Tide

Switzerland, Italy | 2023 | 12min | Color, B&W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어느 미래, 어느 숲속.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남겨둔 태양광 카메라 장비들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작동한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죽었다. 지구상 거의 모든 인간이 죽고 동물만 남았다. 종의 종말을 맞닥뜨린 한 남자가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처음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 카메라는 계속 촬영 중이다.

In an unspecified future, in unspecified woods, some solar-powered camera devices, left by documentary filmmakers, are activated with motion sensors. The documentary filmmakers are dead, almost all humans on the planet are dead, and the animals are alive. A man, now facing the end of his species, sends a voicemail to his best friend for the first time. The camera devices keep rolling.

작품의 영어 제목인 Even Tide는 저녁(evening)을 뜻하는 고대 영어 æfentīd에서 유래한 중세 영어다. **감독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Even Tide is from Middle English, "eventide", from Old English, "æfentīd". Archaic word for "evening". **Francesco Clerici, Director**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자 대학교수. 밀라노대학교에서 역사와 예술비평을 전공했다. 2015년 데뷔작 <손의 제스처>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Francesco Clerici

An award-winning director and university professor, Clerici graduated in History and Art Criticism at the Università Statale in Milan. In 2015, *Hand Gesture*, his first work, won the FIPRESCI prize at Berlin Film Festival.

AC1 09.30 16:00

산악가이드 토니 고비

돌로미티 - 이탈리아 2
Dolomite - ITALY 2

The Trail of Toni - Toni Gobbi from Citizen to Mountain Guide

Italy | 2023 | 84min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토니 고비(1914-1970)로 알려진 이탈리아 유명 산악인이자 산악 가이드 안토니오에 대한 다큐멘터리. 비전과 결의로 산을 향한 열정을 따르며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삼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유산을 남긴 한 남자의 보편적인 이야기다.

The Trail of Toni - Toni Gobbi from Citizen to Mountain Guide is a documentary on Antonio, known as Toni, Gobbi (1914-1970), a renowned Italian mountaineer and mountain guide. It is a universal story of a man who followed his passion for the mountains with vision and determination, making it his life and leaving a legacy that, over 50 years later, withstands the test of time.

나의 기원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의 점들을 연결해가며 나의 할아버지 토니 고비라는 인물을 파헤쳐 보고 싶었다. **프로듀서 겸 공동 작가 올리비에로 고비**

I wanted to discover the character of my grandfather Toni Gobbi, opening a window into my origins and trying to connect the dots of my life. **Oliviero Gobbi, Producer & Co-author**

안토니오 보콜라

1967년 나폴리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활동 중이다. 여러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시리즈, 브랜드 콘텐츠의 감독, 작가, 극본가다. 이탈리아영화아카데미의 구성원이며 이탈리아감독조합 AIR3의 회원이다.

Antonio Bocola

Antonio Bocola was born in Naples in 1967. Based in Milan, he is a director, author, and screenwriter, known for numerous documentaries, feature films, series, and branded content. He is a member of the Academy of Italian Cinema and AIR3, the association of Italian directors.

라스트 스키어

돌로미티 - 이탈리아 2
Dolomite - ITALY 2

ON

AC1 09.30 16:00

The Last Skiers

Italy | 2023 | 1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스키를 배웠던 슬로프가 노랗게 메마른 언덕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 한 세대의 이탈리아 스키어들이 전하는 자연의 연약함에 대한 귀중한 진술.

A precious statement on the fragility of nature, told by a generation of Italian skiers who have seen the slopes they learned to ski on turn into arid, yellow hills.

이 다큐멘터리는 한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이탈리아의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이들이 코모에서 스키를 탔던 1990년대는 스키 리조트가 영구 폐쇄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 폐쇄는 큰 흐름의 일부에 불과하며, 249개의 이탈리아 스키장이 기후 위기로 문을 닫았다. **감독 베로니카 시체리**

This documentary highlights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in Italy through the stories of a generation. The protagonists skied in Como in the 1990s, just before the ski resorts closed permanently. This closure is part of a larger trend, with 249 Italian ski resorts abandoned due to the climate crisis. **Veronica Ciceri, Director**

베로니카 시체리

수상 경력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영화 제작자로 런던과 밀라노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광고 분야의 미술감독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UCL대학에서 민족지학 및 다큐멘터리 영화학 석사를 취득했다.

Veronica Ciceri

Veronica is an award-winning creative director and filmmaker based in Milan and London. She began as an art director in advertising and, in 2022, earned an MA in Ethnographic and Documentary Filmmaking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with distinction.

AC2 09.30 13:30

빈센트

돌로미티 - 이탈리아 3
Dolomite - ITALY 3

Vincent

Italy | 2023 | 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프란체스코 레이, 노에미 피사노

노에미와 프란체스코는 삶과 일 모두에서 동반자다. 작은 독립영화사에서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고 개인 프로젝트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빈센트>는 공동 감독으로서의 첫 단편 다큐멘터리다.

Francesco Rey, Noemi Pisano

Noemi and Francesco are a couple in life and work. Opportunities arise for them to work together on small independent productions, and the desire to challenge themselves with a personal project emerges. *Vincent* is their first documentary short film as co-directors.

빈센트는 자신의 삶을 SNS에 공유하는 젊은 산골 농부다. 현대 문명과 전통 사이에 끼인 그는 가업의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뒤를 이어야 한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엮이는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 산산이 조각난 꿈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이야기이자 세상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개척하기 위해 싸우는 젊은이의 이야기.

Vincent is a young mountain farmer who shares his life on social media. Caught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he is forced to step into someone else's shoes,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family business. It's a journey filled with challenges, where life and death weave together constantly. A story of shattered dreams making way for new opportunities, a young man fighting to carve out his own place in the world.

현대와 전통의 대조를 넘어 더 많은 주제를 담았다. 삶과 죽음 사이의 숙제, 어른이 되는 것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맡아야 할 필요성. **감독 프란체스코 레이, 노에미 피사노**

Beyond the contrast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there is way more to explore: the delicate thread between life and death, the challenges of becoming adults, and the need to take on unexpected responsibilities. **Francesco Rey & Noemi Pisano, Directors**

기다림의 시간

돌로미티 - 이탈리아 3
Dolomite - ITALY 3

AC2 09.30 13:30

Waiting Time

Italy | 2023 | 76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목련나무 그늘 아래, 한 무리의 임산부들이 매주 모인다. 임산부들 사이, 노련한 조산사 테레사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동그랗게 둘러앉은 이 여성들은 임박한 자녀의 탄생과 엄마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Under the shade of a Magnolia tree, a group of pregnant women gathers weekly. Among them is Teresa, an experienced midwife who listens to them attentively. Sitting in a circle, the women reflect on the impending birth of their children and their own emerging roles as mothers.

<기다림의 시간>은 오늘날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출산에 대한 성찰이며 한 여자에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반영했다. 이 영화는 둥글게 모여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삶 속으로 여행한다. **감독 클라우디아 브리고네**

Waiting Time is a reflection on birth, on what it means to be a parent today, and on the path that turns a woman into a mother and the psychological and cultural aspects of this journey. The film travels into the lives of these women who come together in a circle and remain connected. **Claudia Brignone, Director**

클라우디아 브리고네

나폴리 출생.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국제 영화제에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녀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다. 2023년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상영된 <프로치다>의 편집자로 협력했다.

Claudia Brignone

Born in Naples, Brignone is a documentary director whose works were selected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aiting Time* is her third documentary. She collaborated as editor for *Procida* presented out of competition at the 2023 Locarno Film Festival, with special mention for the Ricola Prize 2023.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

지난 1년 간 한국독립영화의 성취와 경향을 소개하는 코리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4편의 장편과 9편의 단편을 선보입니다. 올해 한국독립영화에는 유독 계절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거나, 한 계절의 처음과 끝을 담은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한 계절이 지나고 남긴 여운이 진하게 밀려오기도 하고, 다가올 계절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계절의 시간과 기억을 담아낸 영화들에는 지금 여기를 버티는 힘과, 다음 계절을, 그 계절이 가져올 어떤 변화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한 계절을 살아내며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의 이 계절은 다음 계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여기 도래한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영화제가 열릴 가을을 기다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사계절을 고스란히 견뎌온 이 영화들이 울주에서 여러분을 만나 풍성해질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aiting for the next season

The Korean Wave section will showcase 4 feature films and 9 short films representing the achievements and trends of Korean independent films from the past year. There were noticeably many Korean independent films this year with titles that include seasons, or that captured the beginning and end of a season. At the ending of a film, the lingering emotions of a passing season and the longing for the approaching season would wash over us. These films talk about the time and memories of a season – the strength to endure the present, and the hope for the changes the next season will bring. We imagine the future and head towards it. The present is a journey toward the next season, and perhaps, the present is that next season. I, too, am writing this in the middle of a scorching summer, awaiting the fall when the festival will take place. The films that have endured through the last four seasons await you in Ulju to enrich its fall.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GC 09.28 16:00 Q&A PF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

Bok-soon's One-day Class

Korea | 2023 | 38min | Color | Fiction

제주 할매 복순은 자신의 생일에 아들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하지만 아들은 오지 못하게 된다. 남아있는 음식을 나눠줄 요량으로 찾은 요가원에서 얼떨결에 원데이 클래스를 듣게 된다.

Bok-soon, an old lady living in Jeju, prepares food while waiting for her son to come over on her birthday, but he ends up not showing. The next day, she visits a local yoga center to share the leftovers, and unexpectedly takes a one-day yoga class.

넓은 밭을 홀로 일구는 제주 할머니를 보면서 그녀의 삶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여생이 온전히 본인을 위해 충만하길 바라며 이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 최범찬**

Looking at an old lady working alone in the fields in Jeju, I thought about her life and health. This film started from a wish that the rest of our grandmothers' lives would be one of fulfilment. **Choi Beom-chan, Director**

최범찬

프랑스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다. 국문과를 졸업 후 영화 제작 현장에 뛰어들었고, 값진 경험을 얻었다. 몇 편의 시나리오와 연출 작업을 했고, 여전히 영화 만드는 일을 진행 중이다.

Choi Beom-chan

Born in France, Choi was raised in Daejeon and majored in Korean literature. 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short and feature films, while he has worked on a few scenarios and continues to work as a director.

부모 바보

Heritage

AC1 09.30 19:00 Q&A

Korea | 2023 | 101min | Color | Fiction

사회복지사인 진현은 지각을 일삼는 사회복무요원 영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영진은 왜인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어느 날 진현은 영진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진을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 준다. 복지관을 다니고 있는 순례는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에서 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아 사회복지사인 진현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한다.

Jin-hyun, a social worker, is vexed because Young-jin, a conscript serv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is chronically late. One day, Jin-hyun finds out that Young-jin is homeless and lets him crash at his studio for a while. Meanwhile, Jin-hyun encounters elderly Soon-rye at the welfare center. During her regular visits to the center, she clings to Jin-hyun to spill out her distressed situation.

쫓아가듯 생겨난 기형적인 천륜 관계들,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제도의 아이러니. 무책임한 해결 방안을 탁상 다리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가려진 제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감독 이종수**

Myriads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s have rushedly multiplied under social pressure induced by the overarching filial piety. Nevertheless, the essence of life is revealed as those who vainly discuss porous systems, which could also be slipping through the net under the surface.
Lee Jong-su, Director

이종수

1990년 출생.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부모 바보>는 이종수 감독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다.

Lee Jong-su

Born in 1990, Lee Jong-su majored in contemporary art. *Heritage* is his first feature film.

GC 09.29 11:00 Q&A

해야 할 일

Work to Do

Korea | 2024 | 101min | Color | Fiction

한양중공업의 입사 4년 차 대리 강준희는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는다. 하고 싶진 않지만, 인사팀은 구조조정의 담당자가 되어 자신과 친한 동료들을 잘라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Kang Joon-hee, a fourth-year assistant manager at Hanyang Heavy Industries gets assigned to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Although reluctant to do so, the team becomes in charge of the restructuring and faces the dilemma of laying off his office buddies.

구조조정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시대 노동환경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감독 박홍준**

I want to share with the audience the story about the nature of our time's labor environment through the eyes of individuals from various layers surrounding a restructuring process.
Park Hong-jun, Director

박홍준

직장 생활을 하며 단편 <이삿날>을 연출하여 부산독립영화제, 인디포럼 등 여러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해야 할 일>은 감독이 실제 중공업 회사의 인사팀에서 4년 6개월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작품이다.

Park Hong-jun

Park Hong-jun, while working full-time at a company, directed *Moving Day*, a short film invited to several film festivals. *Work to Do* is based on his real-life experience of working for four and a half years at a human resources department of a heavy industry company.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Hansel: Two School Skirts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GC 09.27 18:30 Q&A PF
AC2 09.29 16:30

Korea | 2024 | 29min | Color | Fiction

허구한 날 벌칙으로 노래를 시키는 음악 수업 전, 한슬은 준비물인 리코더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 아이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한슬은 리코더를 가져오기 위해 무작정 집으로 뛰어가지만, 요실금이 있는 탓에 오줌이 점점 새어 나온다.

Shortly before the start of music class, where the teacher forces the students to sing as a punishment, Han-sel realizes that she has forgotten to bring her recorder. For Han-sel, the idea of singing in front of her classmates is worse than death, so she rushes home to get her recorder. But due to her urinary incontinence, she starts peeing little by little on the way.

'긴장'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가는 여정.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걸 힘들어하는 인물이 가장 두려운 순간을 직면하고, '생각보다 별일 아니구나' 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감독 임지선**

I wanted to tell a story about someone who is having a hard time being herself, facing her scariest moments, and in the end realizing, "It's not as bad as I thought.".
Lim Ji-sun, Director

임지선

1992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재학 중. 단편 <노이즈>를 연출했고, 독립장편 <성적표의 김민영>을 공동 연출했다.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Lim Ji-sun

Born in 1992, Lim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directed the short *Noise* and co-directed her first feature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Her 2024 film *Hansel: Two School Skirts*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GC 09.27 18:30 PF
AC2 09.29 16:30 Q&A

개구리는 죽는다

The Frogs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Korea | 2024 | 3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여러 직원들 사이, 유난히 바쁜 공무원 김하진 씨. 탑처럼 쌓인 우편들과 끊임없는 민원들 모두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양이지만 동료, 상사할 것 없이 당연하듯 그녀를 방관하고 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없지만 계속되는 구박과 비판들, 심지어 협박까지. 하진은 점차 왠지 모를 불안함에 잠식이 되어간다. 2019년 7월 18일, 울국 시청 공무원 김하진 씨의 이야기.

Ha-jin is dealing with tons of mail and civil complaints all by herself, while her coworkers don't even bother to help and take it for granted. Although Ha-jin hasn't done anything wrong or made any mistakes, the continuous scolding, criticism, and even threats, gradually consume her with an inexplicable sense of anxiety. This is a story of the civil servant, Ms. Ha-jin Kim in 2019.

인간은 모두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행동과 말에도 힘이 담깁니다. 하지만 힘에는 당연하듯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힘'에 대해 그리고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 김형철**

Every human has powers. Even small words and actions carry their own power and responsibility. It's time for us to take a look at the kind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we have for ourselves. **Kim Hyeong-cheol, Director**

김형철

2000년생.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영상연출과 출신으로 고교 시절 SF 단편 <안개 낀 도시>를 만들며 주목받았다. 이후 뮤직비디오, 브랜드 필름, 패션 필름 등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작품들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Kim Hyeong-cheol

Born in 2000,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Film Directing at Korea Animation High School, Kim gained attention for creating the short SF *The Fog Shrouded City*. Since then, he has been expanding his scope across various genres, including music videos, brand films, and fashion films.

완벽한 정산

Perfect Settlement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GC 09.27 18:30 PF
AC2 09.29 16:30

Korea | 2024 | 18min | Color | Fiction

사치와 허세를 부리며 돈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 동료들,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관리부 영숙. 이런 영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장은 영숙에게 거짓된 정산을 강요한다. 영숙은 자신의 정직한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정산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동화될 것인가... 이제 관리부 영숙의 정산이 시작된다.

Co-workers who take money for granted and are too blinded with luxury and bluffing. Then there is Young-sook from the management department that gets teased and does not get along with her coworkers. The department head forces her to accept a false settlement. Young-sook is on the line of whether she will stick to her honest morals, or will she accept this 'request' and become one of them?

정직함이 중요하지 않은 요즘. 돈을 쉽게 벌려 하고 그 돈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바보처럼 보이는 현대사회. 그런 부류들에 휩쓸리듯 동화되는 모습을 개성 있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감독 박인덕**

These days, honesty doesn't matter. People's desire to make money easily and show it off. If you don't follow like that, you'll be behind others and look like a fool. I wanted to express the assimilation as if I were swept away by those categories with a unique story.
Park In-deok, Director

박인덕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감독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CF를 연출하였다. 단편영화 <완벽한 정산>은 첫 번째 연출작이다.

Park In-deok

As a director majoring in animation, Park directed various brands of CFs. The short film *Perfect Settlement* is the first production.

AC2 09.28 16:30 Q&A

겨울나기

Wintering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Korea | 2024 | 66min | Color | Fiction

어디서나 애매한 나이의 평범한 서른 중반의 한 여자, '연'.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A story about a woman in her mid-thirties, of an ambiguous age, and the things that come to her.

어느 애매한 지점에 놓인 사람들에게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 세대, 문화들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에 용기를 주고 싶었다. 아픈 문화는 정성을 다해 정리하고 새로운 자기 문화에 묵묵히 걸어 나가는 '연'처럼 우리에게 마주한 것을 바라본다. **감독 장준영**

I wanted to give people who are in an ambiguous position the courage to organize the people, generations, and cultures that are slowly disappearing and prepare to accept the new things that are coming. We look at what confronts us like 'Yeon', who carefully organizes painful cultures and quietly walks into her new culture. **Jang Jun-young, Director**

장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전문사에서 연출을 전공했고, <히로>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한국단편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겨울나기>는 첫 장편작이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Jang Jun-young

Jang majored in directing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was invited to the competition section for the Korean short at the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HERO*. *Wintering* is her first feature and was invited to the 25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D_영길엄마

ID_Younggil's Mum

코리안 웨이브 2
Korea Wave 2

AC2 09.28 16:30 Q&A

Korea | 2024 | 25min | Color | Fiction

40대 가장 영길. 영길의 엄마 덕자가 죽었다. 삶에 치여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던 영길은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덕자의 집을 정리하러 아들 준수와 함께 향한다. 그곳에서 덕자가 하던 메타버스 게임을 발견하고, 덕자가 살아생전 가고 싶던 곳을 맵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길과 준수는 덕자가 진정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딘지 알기 위해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Young-gil's mother Deok-ja died. Young-gil, who was so busy that he did nothing to his mother, submitted a death report and left with his son Jun-soo to clean up her house. Then, he discovered the meta-bus game that Deok-ja was playing, and you can see that she made a map of the place she wanted to go before her death. Young-gil and Jun-soo start the game to find out where Deok-ja really wanted to go.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욕망을 메타버스 게임에서 충족시키며 대리 만족을 느낀다. 그러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게임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 아닌 ID를 남기는 것. 그렇게 떠나간 사람의 모습을 진정 마주하며 그들을 깨닫고 떠나보낼 수 있다.
감독 이윤석

In the digital age, people can satisfy their desires that they couldn't fulfill in real life with a metaverse game. Then, our true selves are found in the game. People die and leave their game ID, not their name. You can truly face the figures of those who have left and realize them.
Lee Yun-seok, Director

이윤석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현재 한양대학원 연극영화과 영화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1년 <수, 의 동선>, 2022년 <우린 동산에서 왔어>를 연출했다.

Lee Yun-seok

Lee majored in Film Directing at Sungkyul University's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and am currently enrolled in the master's program in Film at Hany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Theater and Film. Directed *The Line of Sleep* in 2021 and *We're from the Eden* in 2022.

AC2 09.29 19:30 Q&A

8월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in Summer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Korea | 2023 | 30min | Color | Fiction

결혼을 앞둔 은수는 어린 시절 헤어진 아빠를 만나기 위해 강릉에 간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와 동행한다.

Eun-soo, who is about to get married, goes to Gangneung to meet her estranged father from her childhood. On the way, she coincidentally travels with a taxi driver she meets.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감독 이가홍**

To move on to the next chapter in lif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must face.
Lee Ga-hong, Director

이가홍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동대학 전문사에 재학 중이다. 단편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2018), <광장>(2021), <네가 사랑한 것들을 기억할게>(2021)를 만들었다.

Lee Ga-hong

Lee studied film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made the short films, *I Should Have Killed That Bastard*(2018), *The Square*(2021), and *I Will Always Love You*(2021).

서신교환

Letters Unreeling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Korea | 2024 | 62min | Color | Fiction

영화감독 소형은 곧 조업이 중지되는 광업소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현장을 돕는다.

Director So-hyoung assists with a documentary shoot at a mining site that is about to cease operations.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감독 김현정**

It was intended to inspire courage. **Kim Hyun-jung,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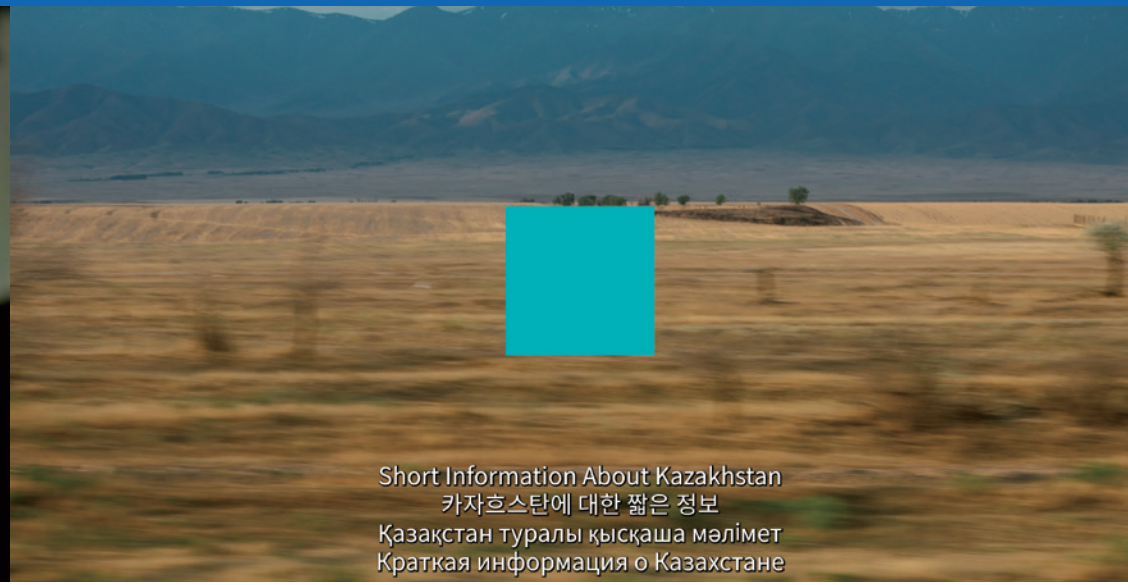
AC2 09.29 19:30 Q&A

김현정

지역에서 영화를 쓰고 만들고 있습니다.

Kim Hyun-jung

Writing and directing movies in local areas.



AC4 09.30 18:00 Q&A

이력

Resume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Korea | 2023 | 29min | Color | Fiction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혜림은 사람을 대신할 무인계산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엄마 강심은 재취업을 위해 무인발급기의 사용법을 알아야만 한다.

Hye-rim, who works as a mart cashier, says she doesn't need an unmanned cashier to replace people, but her mother, Kang-sim, must know how to use the automatic issuing machine to get a job again.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를 배제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도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감독 이승준

Advances in technology exclude those who have fallen behind, but it is not inevitable nor should it be. **Lee Seung-jun, Director**

이승준

<잉걸>(2015), <물꽃>(2017), <세상을 구한 여자>(2019), <도움 닿기>(2022)를 연출했다.

Lee Seung-jun

Lee directed short films *The Ember*(2015), *Submerged*(2017), *The Woman Who Saved the World*(2019), and *Running Touch*(2022).

트랙_잉

Track_ing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Korea, Kazakhstan | 2024 | 23min | Color | Documentary, Experimental

500 곱하기 500 픽셀 크기의 네모들이 트래킹을 시작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를 달리는 기차 이미지. 임의의 데이터들은 분석 대상이 되고, 네모들은 동작 이미지에서 의미를 생성/출력한다. 케이팝, 유목민, 고려인, 멀미, 우주개척. 논리와 내러티브는 부재하다. 데이터 조각들의 의미는 그것들의 병치와 조립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에 아주 익숙하다.

A set of 500*500 pixel boxes begins tracking a group of images of a train running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The boxes generate outputs: K-pop, nomad, motion sickness, Koryo-saram, and space trip. Logical explanation and narrative are absent. The meanings of the data pieces can only be inferred by their juxtaposition and assembly. And we are very much used to it.

AI 엔진은 어떻게든 정보를 뱉어낸다. 그 결과물은 때때로 기이하다. 모호한 글, 엇나갔지만 설득력 있는 그림. 그것은 미완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오류일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임의성과 무작위성의 감각의 평행선은 아닐까.
감독 이찬열, 조한나, 삼갈 락힘, 알리 티니베코프

AI engines can yield outputs from whatever random data they are fed. Often, they come up with uncanny results. Is this due to an incomplete algorithm? Or is it a depiction of the sense of randomness we encounter among the myriad of data?
Lee Chan-yeol, Cho Han-na, Samgar Rakym & Ali Tynybekov, Directors

AC4 09.30 18:00 Q&A

이찬열, 조한나, 삼갈 락힘, 알리 티니베코프

팀 2K.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감독은 양국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다큐멘터리 워크숍에서 <트랙_잉>을 제작했다.

Lee Chan-yeol, Cho Han-na, Samgar Rakym, Ali Tynybekov

Chan-yeol, Han-na, Samgar, and Ali are directors based in Korea and Kazakhstan. They co-directed *Track_ing* as Team 2K at a documentary workshop commemorating the two countries'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AC4 09.30 18:00 Q&A

마이디어

MYDEAR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김소희, 전도희
김소희는 천안에서 태어났고, 전도희는 원주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모두 숭실대학교를 졸업했다.

Kim So-hee, Jeon Do-hee
Kim So-hee was born in Cheonan, and Jeon Do-hee was born in Wonju. Both graduated from Soongsil University.

2027년,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 졸업반 학생 가을은 팀으로 진행되는 졸업 작품 참여 여부를 묻는 교수의 질문에 고민에 빠진다. 한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AI 어플 '마이디어'에 관심이 생긴 가을. '-지금 마이디어와 대화해 보세요.' 가을은 자막 기능을 실행해 어플 속 남자와 대화를 한다. 남자와 대화하며 가을은 자주 웃게 된다.

2027, hearing impairment Ga-eul(25 years old, female) is troubled by her professor asking whether to participate in graduation works conducted as a team. Ga-eul is interested in the AI application 'MYDEAR'. '- Talk to MYDEAR now.' On the cell phone screen, there is a man who looks like his age in Ga-eul. Ga-eul runs the app's subtitle function to talk to the man.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배려를 넘어 배움으로. **감독 김소희, 전도희**

Over the barrier, with your heart. Beyond consideration, by learning.
Kim So-hee & Jeon Do-hee, Directors

italian Style

NOMINATION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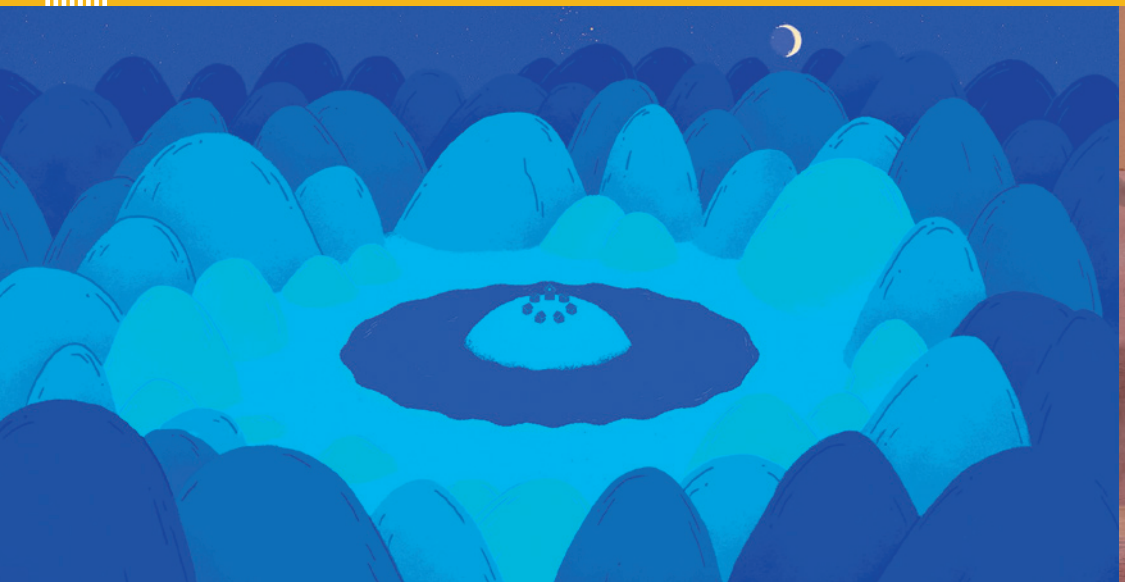
노미네이션 코리아 www.nominationkorea.com
주소 : 서울시 강남대로 10길 69, 2층 / 문의 : 02-2058-1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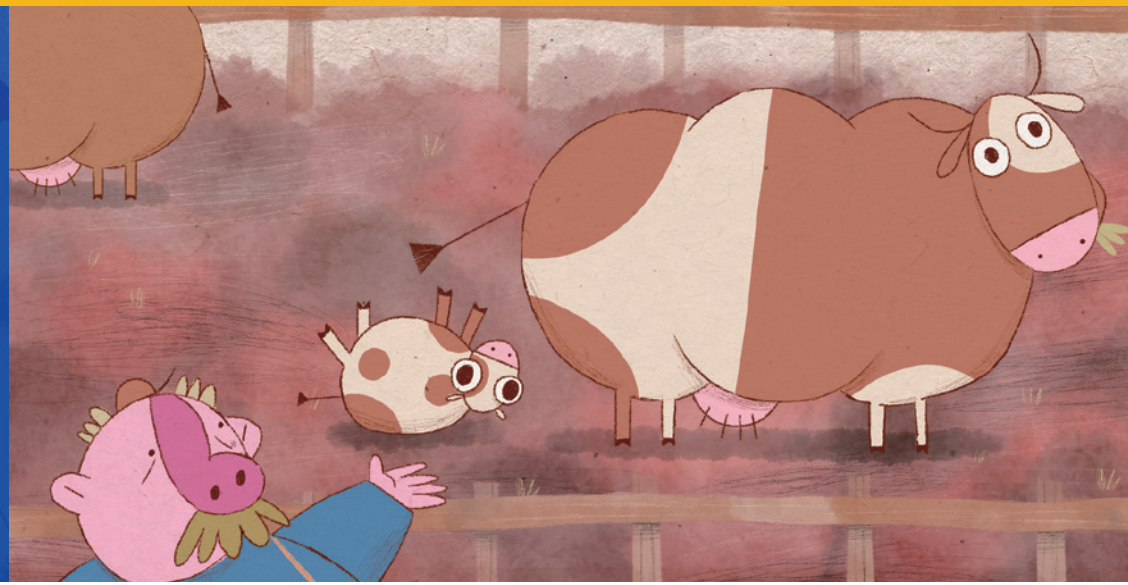
투게더
Together

올해의 투게더는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아지는, 청명한 산의 기억을 담은 영화로 알차게 꾸려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관객들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8편의 이야기들은 산과 자연의 돌봄 속에 자신의 꾸밈없는 모습을 온전히 받아 들이고, 주변의 아픈 마음들을 챙기며, 새롭게 만나게 될 미래를 상상합니다.
때론 거침없는 행보도 서슴지 않습니다. 독재정치와 전쟁의 참상 속에서 무너지는 터전을 지키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영화 안팎을 누비는 가장 용감한 히어로들 입니다.
올해 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울주지역 학교와 함께하는 영화읽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건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해석해 보는, 교육적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9월에 만나는 움프, 우리 모두 영남알프스에서 반갑게 인사해요!

This year's Together was curated to bring you films that will make you feel good with the memories of radiant mountains. The 18 family-friendly films talk about those embracing themselves for who they are under the care of mountains and nature, caring for those in pain, and imagining a new future.
At times, they don't hesitate to take bold steps. Children protecting their crumbling homes amidst the horrors of dictatorship and war are the bravest of heroes both in and out of the films.
We will once again feature the film reading program this year in collaboration with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schools of Ulsan and Ulju. The program will help us listen to the voices of the films and interpret those films through individual perspectives. See you in September for UMFF at Yeongnam Alps!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umff
FESTIVAL





AC1 09.27 10:00
GC 09.30 13:00

루스와 바위거인

투게더 1
Together 1

Luce and the Rock

Belgium, France, Netherlands | 2022 | 13min | Color | Animation

루스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드러눕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 문조차 열 수 없게 됐고, 루스는 화가 나 소리친다. 저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대체 여기 왜 온 거야?

One day, out of nowhere, a giant Rock lies in the middle of the peaceful little village where Luce lives. The villagers can't even open the door to their houses anymore! Luce is angry: go away Rock, you don't belong here! And why are you here anyway?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편협의 시선을 멋지게 뒤집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발상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머 장다나**

By changing our perspective slightly, we can all be friends! This animation packed with cute and lovely ideas overturns the biased viewpoint. **Jang Da-na, Programmer**

브릿 라에즈

브릿의 작품은 우리 안의 동심에 호소한다. 단편 <캐서린>으로 전 세계 200개의 영화제에서 50개의 상을 받았고 두 번째 단편 <루스와 바위거인>을 완성했으며 특별 시리즈와 동화책을 집필 중이다.

Britt Raes

In her work, Britt appeals to the child alive in each of us. Her short *Catherine* traveled to 200 festivals worldwide, collecting 50 prizes. Having completed her second short *Luce and the Rock*, Britt is writing a special series and a children's book.

내 이름은 에드가

투게더 1
Together 1

AC1 09.27 10:00
GC 09.30 13:00

My Name Is Edgar and I Have a Cow

Czech Republic, Slovakia | 2023 | 8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도축장으로 관광 여행을 가던 중 만난 갓 태어난 송아지 때문에 에드가의 평범한 삶은 혼란에 빠진다. 그 송아지가 슈니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에드가는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간다. 송아지가 소가 되어 아끼는 물건들을 부수자 에드가의 삶은 뒤바뀐다. 에드가는 그의 결정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한다.

Edgar's ordinary life is disrupted by a newborn calf he sees on a tourist trip to a slaughterhouse. He takes it home after finding out that the calf would become a schnitzel. His life is turned upside down when the calf turns into a cow and breaks things, he holds dear. Edgar realizes that his decision wasn't the best and decides to make a radical solution.

세상의 편견을 가뿐히 뛰어넘어 한 개인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 대한 소박한 단상. **프로그래머 장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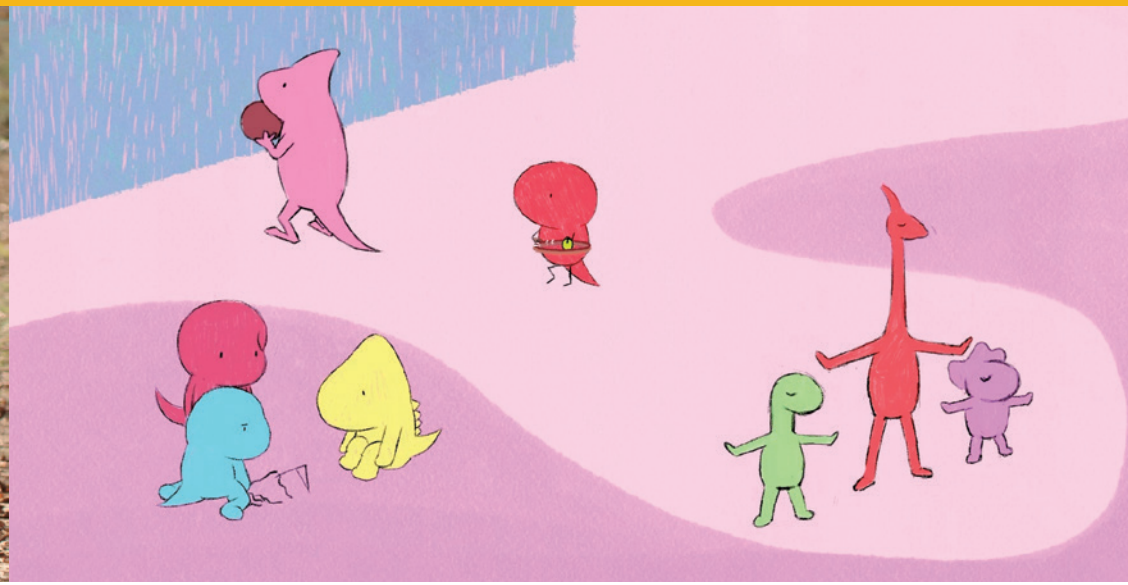
It tells the story of precious beings who overcome the prejudice of others and become everything to someone. It is a thought fragment about cherishing as well.
Jang Da-na, programmer.

필립 디비악

슬로바키아의 영화감독이자 애니메이터. 아이의 눈을 통해 보이는 중요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전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한 성공적인 단편 영화들을 촬영했다.

Filip Diviak

Filip is a Slovak film director and animator. His main interest is to tell stories concerning important social topics, as seen through the eyes of a child. He has shot several successful short films that have won awards at festivals around the globe.



AC1 09.27 10:00 Q&A
GC 09.30 13:00 Q&A

피뢰침!

투게더 1
Together 1

Wish Tree

Korea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전교생이 3명인 시골 분교에 다니는 유록. 학교가 폐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곤 번개 칠 때 소원을 빌면 이뤄지는 소원 나무에 소원을 빌기로 한다. 하지만 번개는 커녕 비조차 내리지 않는 마을. 유록과 친구들은 번개를 부를 방법을 찾는다.

Yu-rok attends a rural school with three students. When he learns that schools will close, he decides to make a wish upon a tree that comes true when lightning strikes. However, Yu-rok and his friends find a way to call lightning strikes.

어른들의 가치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보고 싶었다. **감독 황혜원**

I wanted to write a story with the hearts of children growing in the values of adults.
Hwang Hye-won, Director

황혜원

2001년 서울 출생.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 재학 중이다.

Hwang Hye-won

Born in Seoul in 2001. Hwang is studying at Sungkyul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랠리

투게더 1
Together 1

Rally

Korea | 2022 | 5min | Color | Animation

AC1 09.27 10:00 Q&A
GC 09.30 13:00 Q&A

벽을 친구 삼아 혼자 테니스를 치던 주인공 티라노는 브라키를 만나게 된다. 함께 테니스를 치지만 랠리가 이어지지 않고, 공을 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브라키는 자꾸 넘어진다. 티라노는 브라키가 다치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써보지만 결국 테니스를 치는 것은 티라노 혼자였고, 브라키는 다른 공룡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가버린다. 과연 둘은 다시 랠리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Tyrano, who was playing tennis alone, meets Brachi. They tried to play tennis together, but Brachi keeps falling while trying to hit the ball. Tyrano tries everything he can to prevent Brachi from getting hurt. But the more Tyrano struggles, the less interested Brachi is in playing tennis. Will they be a good partner to each other?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맞추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모든 과정이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티라노와 브라키처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을 배려하고 알아갈 수 있는 틈을 열어준다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 노묘정**

This is a story about how to build the right balance in a relationship. It is not one person investing most of the energy but it is two individuals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Noh Myo-jung, Director**

노묘정

1993년 서울 출생. 2014년도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 2020년에 졸업하였다. 주식회사 포유류즈라는 이름의 회사로 창업을 하여 대표로 재직 중이다.

Noh Myo-jung

1993 Born in Seoul, South Korea. Noh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in Art Design in 2020. She is working at FORURUZ.inc as a founder and artist.

AC2 09.27 10:30
UC 09.28 11:30 TALK
GC 09.30 11:00 TALK PF

브릿지
The Bridge

투게더 2
Together 2

Korea | 2023 | 6min | Color | Animation

평화로운 어느 숲, 높은 절벽 위의 골렘이 눈을 뜬다. 우연히 숲 속 동물들에게 절벽 사이를 오갈 수 있게끔 도와주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때, 한 사건이 일어난다.

High on the cliffs in the peaceful forest, Golem opens its eyes. Then accidentally, Golem becomes a bridge for the forest animals to travel between the cliffs. One day, the event happens.

커다란 절벽 사이에 낀 바위 사진을 보고 '중간에 낀 바위가 살아 움직인다면?'이라는 재미있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바위가 동물들에게 다리 역할을 하며 겪게 되는 갈등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주인공과 숲 속 동물 사이의 갈등을 자연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감독 김소현**

The scenario was based on an interesting thought, 'What if the rock becomes alive and moves?'. Harmony between the inanimate protagonist and the forest animals that was facilitated by mother nature was demonstrated in *The Bridge*. The story was based on contemplation on the possible conflicts that may occur between a rock that acts as a bridge and the forest animals. **Kim So-hyun, Director**

김소현

2000년 광주광역시 출생. 2019년도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23년에 졸업하였다.

Kim So-hyun

2000 Born in Gwangju, South Korea. 2023 Graduated from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of Animation.

성탄절의 불상사
Christmas at Bulsangsa

투게더 2
Together 2

AC2 09.27 10:30 Q&A
UC 09.28 11:30
GC 09.30 11:00 PF

Korea | 2024 | 14min | Color | Fiction

절 불상사에는 어린 두 자매 믿음과 소망이 살고 있다. 어느 날 티비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본 이후로 소망은 언니 믿음을 귀찮게 하기 시작한다.

Two young sisters named Mi-deum and So-mang live in Bulsangsa Temple up in the mountains. One day, after seeing Santa Claus on television, So-mang starts nagging her sister Mi-deum. While So-mang wishes for Santa Claus to visit the temple for Christmas, Mi-deum prays to Buddha for a different wish.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다. **감독 진정민**

I wanted to build a small bridge through which we could look at the world with a loving perspective. **Jin Jeong-min, Director**

진정민

2000년생.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했다.

Jin Jeong-min

Born in 2000. She majored in video studies at university.

AC2 09.27 10:30
UC 09.28 11:30
GC 09.30 11:00 PF

버드 드론

투게더 2
Together 2

Bird Drone

Australia | 2023 | 9min | Color | Animation

사랑을 찾는 한 외로운 갈매기가 있다. 갈매기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이 제한된 배터리 수명을 가진, 인간이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A lonely seagull looking for love struggles to accept that his newfound object of affection is a human-operated drone with limited battery life.

짝사랑은 너무나 보편적이다.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만들며 짝사랑에 관한 나의 감정과 경험을 활용했고,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관계를 탐구했다. **감독 라데야 제가데바**

Unrequited love is so universal, and this film was a way for me to tap into my own feelings and experiences of one-sided love through non-human character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and unnatural. **Radheya Jegatheva, Director**

라데야 제가데바

호주 영화감독. <버드 드론>은 소니퓨처필름메이커어워드 최종 후보, <더 콰이어트>는 아카데미 최우수단편애니메이션 후보에 올랐다. <페이싱 더 풀>은 BFI퓨처영화제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Radheya Jegatheva

Jegatheva is an Australian filmmaker. His film *Bird Drone* was shortlisted for the Sony Future Filmmaker Awards, and *Pacing the Pool* won Best Short Documentary at the BFI Future FF. His Oscar-qualified film *The Quiet* entered the longlist for Academy Award for Best Short Animation.

카메라 들고, 산으로!

투게더 2
Together 2

Having Fun in the Mountains-Go to Cinsbu to Make a Film

Taiwan | 2023 | 1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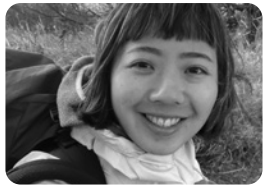
산은 자연 놀이터고 어린이들은 작은 모험가다. 이 산악 모험에서 아이들은 어떤 상상과 경험을 하고 새로운 트레일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까?

The mountains are a natural playground, and children are little adventurers. In this mountain adventure, how do children imagine, experience, and react to new experiences on the trail?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삶은 어느 특정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항상 다양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감독 쿠오 신잉**

As long as we are willing to go on the road, we can realize that life does not have to fit any specific model and we are always capable of creating diverse lives. **Hsin-ying Kuo, Director**

AC2 09.27 10:30
UC 09.28 11:30
GC 09.30 11:00 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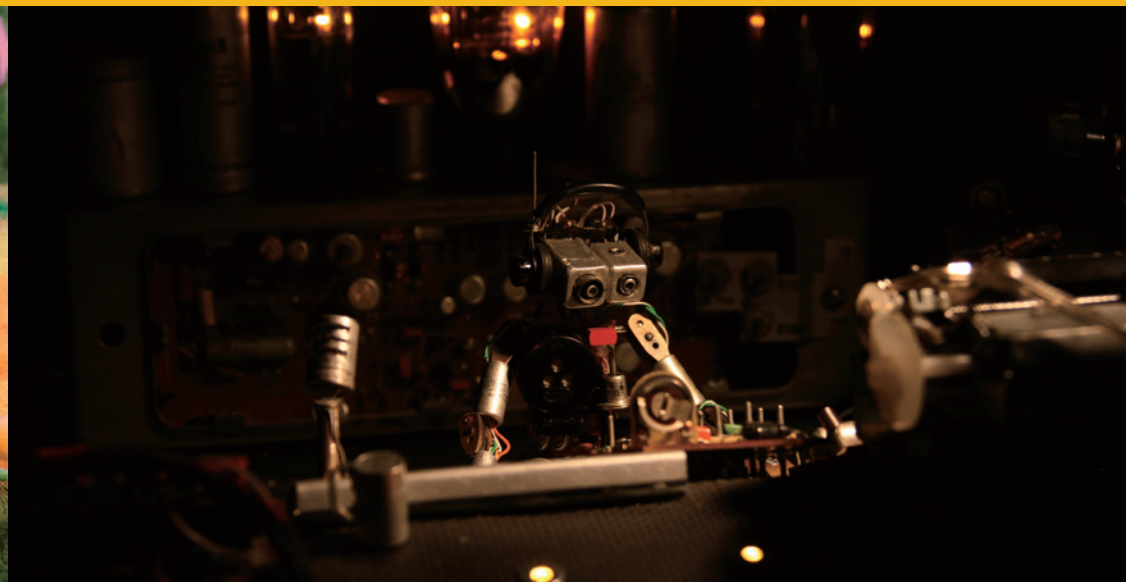


쿠오 신잉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며 뛰어난 감정 포착 능력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와일드토마토를 설립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창적이고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Hsin-ying Kuo

Starting from documentary filmmaking, Kuo is known for her excellent techniques for capturing emotions. In 2020, Wild Tomato Co. was established. Kuo is trying to tell stories about the original and unique appearance of life with various media.



GC 09.27 10:30
UC 09.30 10:00

아토믹 치킨

투게더 3
Together 3

Atomic Chicken

France | 2023 | 6min | Color, B&W | Animation | Korean Premiere

근처의 원자력발전소가 유독가스를 주변 지역에 뿜어내기 시작하자 시골 닭장의 목가적인 일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뀐다. 우스꽝스러운 모험 속 닭들은 수많은 돌연변이에 맞서고 불행의 근원인 발전소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The idyllic daily life of a rural chicken coop is turned upside down overnight when the neighboring nuclear power plant starts spewing its toxic fumes over the surrounding area. The chickens will have to cope with a myriad of mutations and find a way to defeat the power plant at the root of their misfortunes in a cartoonishly comic adventure.

닭의 타고난 어수룩함을 증폭시킨 매우 역동적인 만화를 만듦으로써 이를 풍자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감독 티볼트 에르메뉴스, 루시 리퐁, 솔렌 폴렛, 카푸친 프랫, 모르간 시리엑스, 안나 우글로바

With this project, we wanted to express our love for animation by creating a highly dynamic cartoon that amplifies the natural clumsiness of chickens, pushing it further into the realm of the burlesque.
Thibault Ermenaux, Lucie Lyfoung, Solène Polet, Capucine Prat, Morgane Siriex & Anna Uglova, Directors

티볼트 에르메뉴스, 루시 리퐁, 솔렌 폴렛, 카푸친 프랫, 모르간 시리엑스, 안나 우글로바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학교 École des Nouvelles Images 출신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뭉쳤다. 재밌는 닭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함께 모였다.

Thibault Ermenaux, Lucie Lyfoung, Solène Polet, Capucine Prat, Morgane Siriex, Anna Uglova

They all met during our studies at the École des Nouvelles Images. United by their shared passion for animated cinema, they came together around a simple idea: to create a film about funny chickens.

라디온의 휴가

투게더 3
Together 3

GC 09.27 10:30
UC 09.30 10:00

Radio Interference

Russia | 2024 | 6min | Color | Animation | Asian Premiere

라디오 아나운서로 일하는 로봇 라디온이 하루 휴가를 보낸다.

The robot Radion, who works as a radio announcer, is taking a day off.

이 영화는 60~80년대 실제 라디오 구성요소를 사용했으며, 모스크바 지역과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자연 경관, 파빌리온 세 곳에서 제작되었다. **감독 알렉세이 포치발로프**

The film *Radio Interference* was created using real radio components from the 60-80s, and was filmed in three locations: in the pavilion, and in the natural landscapes of the Krasnodar Territory and the Moscow Region. **Aleksey Pochivalov, Director**

알렉세이 포치발로프

1974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의 예술가로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포슬린 작가이며 복원 전문가다.

Aleksey Pochivalov

Born in 1974 in Moscow, Russia. He is an artist, director, animator, porcelain painter, and restorer.

GC 09.27 10:30 Q&A
UC 09.30 10:00

새옷
New Clothes

투게더 3
Together 3

Korea | 2023 | 8min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8살 민서는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지만, 좋아하는 논길에 들어서며 옷을 더럽히게 된다.

Min-seo, 8 years old, went to school wearing new clothes which her mom bought. However, she got her clothes dirty because she went to the road of rice field.

좋아하는 길을 걸으면 혼은 날지라도 재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감독 문은정**

If you walk on the road you like, you will be happy even though it gives you a hard time.
Moon Eun-jung, Director

문은정
1985년 6월 출생.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잡지사 에디터로 일했고, 충무로 오!재미동에서 영화를 배웠다. 단편영화 <새옷>은 첫 번째 연출작이다.

Moon Eun-jung
Born in 1985, South Korea. S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She has worked in a magazine company as an editor, and studied film in Oh!zemidong, Chungmuro. *New Clothes* is her first film.

쥬세페의 멋진 겨울
Giuseppe

투게더 3
Together 3

GC 09.27 10:30
UC 09.30 10:00

Switzerland | 2022 | 26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작은 고슴도치 쥬세페는 올해 겨울잠을 자고 싶지 않다. 꼭 한 번 눈을 보는 것이 인생 최대 소원이기 때문이다. 내리지 않는 눈을 찾아 멋진 모험을 떠나는 쥬세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

This year, Giuseppe, the little hedgehog, doesn't want to hibernate because his greatest wish is to see snow for once in his life. In search of the snow that is not coming this year, Giuseppe will have a great adventure and make new friends.

우리의 호기심은 때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뒤바꾸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아기 고슴도치와 동물 친구들의 유쾌한 모험담을 그린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머 장다나**

Sometimes, curiosity shows an awesome power to turn the impossible into a possible. It animated the little hedgehog's delightful adventure with animal friends.
Jang Da-na, Programmer

이사벨 파베즈
1974년 스위스 베른 출생. 1994년부터 99년까지 취리히예술대학교 영상영화학부에 재학했으며 1999년 학위를 받았다.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Isabelle Favez
Born in 1974 in Bern, Switzerland, Favez completed her degree in the Film and Video Department at ZHdK(Zürcher Hochschule der Künste) in 1999 and works as 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

GC 09.27 13:30 PF

피네아

투게더 4
Together 4

Pinea

Norway | 2024 | 12min | Color | Animation | Asian Premiere

신비로운 숲속, 마법의 동식물을 그려낸 12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자연의 창조적이고도 파괴적인 순환을 환상적, 초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한다.

Pinea is an 12-minute animated short film that depicts the magical animal- and plant-life inside a mysterious forest, where nature's creative and destructive cycles are portrayed through fantasy and surrealism.

이 애니메이션은 창조적이고도 파괴적인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동화다.
감독 에이릭 헤겐

This animated film is an original fairy-tale based around the creative and destructive cycles of nature. **Eirik Heggen, Director**

에이릭 헤겐
수상 경력에 빛나는 애니메이터이자 감독, 일러스트 작가. 자전적 이야기와 풍부한 상상력의 아트웍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며 상상력과 신비로 가득 찬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한다.

Eirik Heggen
Eirik Heggen is an award-winning animator, director, and illustrator, who creates animated films based on his own stories and imaginative artwork. His illustrations and animations seek to create rich visual imagery, filled with imagination and mystery.

체화

투게더 4
Together 4

Chaehwa

Korea | 2024 | 21min | Color | Fiction

GC 09.27 13:30 Q&A PF

수수께끼의 전학생 다빈이 초등학교에 전학 온다. 여름인데 일광욕을 즐기고, 밥은 물만 마시며 몸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다빈이 산에서 내려온 이후, 세상의 모든 꽃들이 만개한다.

A mysterious child turns up at school. It is not even certain whether the child is a boy or a girl, and the child who only ever drinks water is ostracized. Now the child tries to make everyone else just like the child, and now all the flowers in the world are in full bloom.

저마다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 다채로운 꽃밭이 된 세상을 꿈꿔보았다. **감독 홍승기**

I dreamed of a world where everyone could blossom as their own flower and create a colorful flower garden. **Hong Seung-gi, Director**

홍승기
1998년생. 끝없는 자기부정 속에서 발견되는 자기긍정과 자아실현의 아이러니에 주목한다. 목소리를 상실하거나 가질 수 없는 존재들에게 다시금 목소리를 부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Hong Seung-gi
Born in 1998, Hong's work has given a voice to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speak out or who cannot afford to have one.

GC 09.27 13:30 PF

아빠는 불꽃전문가

투게더 4
Together 4

The Pyrotechnician

Switzerland | 2022 | 15min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최근 아내와 헤어진 라파엘은 6살 난 아들 티모테이에게 그들의 이별을 감히 설명하지 못한다. 티모테이가 엄마의 오랜 부재에 대해 계속 질문해 오자 라파엘은 임기응변으로 정원에서 스위스 공휴일 맞이 파티를 열기로 결정한다. 부재를 꾸며내는 서투른 이야기.

Raphael, recently left by his wife, does not dare to explain their recent separation to his 6-year-old son Timotei. As Timotei keeps asking questions about his mother's prolonged absence, Raphael decides to improvise a big party in the garden on the occasion of the Swiss bank holidays! A clumsy way to make up for the absence.

한 어린이가 가족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까지 겪게 되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 영화는 상실의 아픔을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진중하게 담으며 가족 간 배려와 유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It follows a child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absence from his family. This comical yet rather serious film offer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considerations and bonds between families by sublimating the pain of loss as growth. **Jang Da-na, Programmer**

니키타 트로키

벨기에-스위스 감독. 영화 연출을 전공하며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악셀>, <막심과 마리>, <디스퍼전>을 연출했고 몇 년 후 <아빠는 불꽃전문가>을 만들었다.

Nikita Trocki

A Belgian-Swiss director, she studied fiction directing at the Institute of Diffusion Arts. During her studies, she directed *Axelle*, *Maxime and Marie*, and *Dispersion*, which were shown at various festivals. A few years later, she made the short film *The Pyrotechnician*.

베두인의 꿈

투게더 5
Together 5

A Bedouin Dream

Ireland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아홉 살 이스라와 그녀의 가족이 머물 곳 없이 쫓겨나자 베두인 조상처럼 사막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는 이스라의 꿈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은 근처 숲속의 텐트에서 살게 된다. 이스라는 기뻐하지만 갑자기 떠나야 할 때가 오고 그녀의 전원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만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엄마는 이스라의 베두인 꿈을 부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When nine-year-old Isra and her family are evicted without having anywhere else to stay, her dream of camping in the desert like her Bedouin ancestors inspires her father and they end up living in a tent in a nearby wood. Isra is delighted but, when they have to leave suddenly, her idyll is shattered. Luckily, her mother has a plan to resurrect her Bedouin dream.

21세기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사회적 과제들에 영감을 받아 상상력과 소속감, 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감독 톰 존슨**

Inspired by the social challenges being faced by many in 21st-century Ireland, I wanted to tell a story of imagination, belonging, and the true meaning of home. **Tom Johnson,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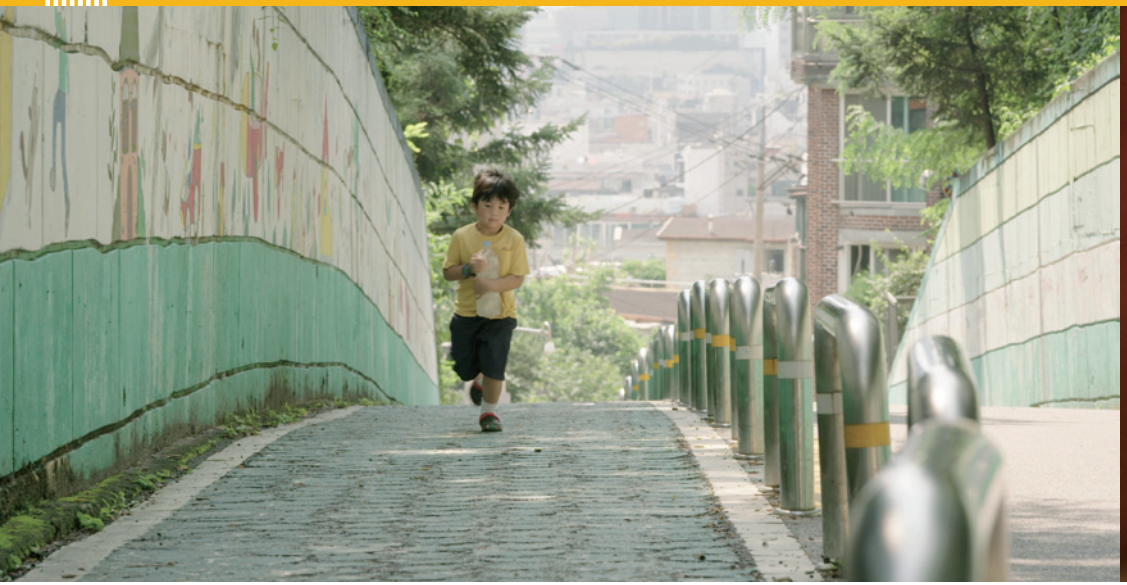
UC 09.30 14:00 PF

톰 존슨

영화 및 방송 콘텐츠의 감독 겸 작가. 다큐멘터리 <아이네 로울러: 암에 맞서서>로 IFTA 시상식 최우수TV감독 후보에 올랐고, <베두인의 꿈>은 여러 영화제에 선정되었다.

Tom Johnson

Tom is a director and writer of high-quality content for film and broadcast. He received an IFTA nomination for Best Television Director for his documentary *Aine Lawlor: Facing Cancer* and his recent film *A Bedouin Dream* has been selected by numerous festivals.



UC 09.30 14:00 Q&A PF

물고기 소년

투게더 5
Together 5

Fisher Boy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무더운 여름, 집으로 돌아온 이수는 갈증을 느껴 할아버지의 물을 전부 마셔 버린다. 결국 물을 찾아 집 밖을 나서게 되는 이수. 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은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

On a hot summer day, a boy comes home thirsty and drinks up all of his grandfather's water, forcing the boy to leave the house to fetch water. He buys a bottle of water and returns home, but on the way, the water gradually disappears.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미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리고 작은 한 아이의 품에 들린 2리터의 크고 투명한 생수병과 생수병에 담긴 송사리 한 마리. 이 두 이미지 사이의 여정을 통해 한 아이의 모험과 상실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감독 남동현**

This story began with two images: a large, transparent 2L water bottle in the arms of a small child, and a tadpole inside the bottle. I wanted to tell the story of a child's adventure and loss through the journey between these two images. **Nam Dong-hyun, Director**

남동현

1991년생. 명지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영화를 연출하기 이전엔 퍼포먼스 공연 '양의 침묵', '사적인 극장' 등을 연출했다. 단편 <물고기 소년>은 감독의 첫 영화 연출작이다.

Nam Dong-hyun

Born in 1991. Nam studied film at university. Before directing a film, he directed performances such as *The Silence of the Sheep* and *Private Theatre*. *Fisher Boy* is the first short film he has directed.

TV가 사라진 세상

투게더 5
Together 5

Things Unheard Of

Türkiye | 2023 | 16min | Color | Fiction

UC 09.30 14:00 PF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TV가 사라진 후, 어린 쿠르드족 소녀는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찾아주려 애쓴다.

A little Kurdish girl tries to put a smile back on her grandmother's face after the disappearance of her television, her only window into the world.

터키 동부 작은 마을, 어머니와 말 못 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10살 난 소녀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 소녀는 억압과 금지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창의성을 잃지 않는다. **감독 라마잔 클루치**

I wanted to tell the hopeful story of 10-year-old Şêvin who lives in a small village in the East of Turkey with her mother and mute grandmother and does not lose her joy and creativity in the adult world which is full of oppression and bans. **Ramazan Kılıç, Director**

라마잔 클루치

1993년 튀르키예 아르 출생. 이스탄불시립대학에서 영화/방송을 공부했다. 그의 작품 <스쿨 버스>는 권위 있는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그는 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연한 <더 모이스쳐>와 2023년 끌레르몽페랑 심사위원특별언급 작품인 <TV가 사라진 세상>을 제작했다.

Ramazan Kılıç

Ramazan(Ağrı, 1993), studied Cinema-TV at Şehir University. His film *The School Bus* competed in prestigious festivals. He produced *The Moisture*, premiering at the 79th Venice Film Festival, and *Things Unheard Of*, which won a Special Jury Mention at Clermont-Ferrand 2023.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9TH
ULSAN
ULJU
MOUNTAIN
umff FILM
FESTIVAL

움프 프로젝트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제작지원인 움프서밋과 일반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움프멘터리로 구성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움프서밋은 매년 그 결과물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고 있으며, 해외 산악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국내 극장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하는 작품은 총 3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경 감독의 두 번째 극영화 장편 <내가 만난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의 진도에 관한 다큐멘터리 <흙의 숨, 진도이야기>, 정형민 감독의 북미 원주민 다큐멘터리 <희망의 발견>, 미래를 배경으로 한 단편 극영화 <한나>와 주인공의 삶에 대한 고민과 영화적 형식의 확장에 대한 고민이 절묘하게 결합한 <정상에서 일어서기>가 소개됩니다.
움프멘터리는 움프와 다큐멘터리의 합성어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 제작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이며, 매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개 후 타 국내 영화제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움프멘터리는 울산의 영화 커뮤니티 커튼콜의 문화기획자로서 솔직한 이야기와, 국악인과 사냥꾼의 인물 다큐, 그리고 미용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소재로 한 다큐까지 총 4편의 단편 다큐멘터리가 소개됩니다.

The UMFF Project is a production support program of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consisting of UMFFsummit (supporting professional filmmakers) and UMFFmentary (supporting documentary production of the general public). Since its inception in 2015, UMFFsummit has presented its films as a world premieres every year, with some films being awarded at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s outside Korea or being released in theaters domestically.
This year, we present 3 feature length and 2 short films. These include director Kim Min-kyung's (based in Busan) second feature film *People I Meet*, director Kim Dae-hyun's documentary on Jindo *A Breath of Earth, Jindo Story*, director Jung Hyung-min's documentary on North American indigenous people *Looking for Hope*, a short film set in the future *Hannah*, and a film that cleverly combines the protagonist's reflections on life with innovative cinematic techniques *All the Days*.
UMFFmentary combines "UMFF"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UMFF and the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offering education and support for film production. Each year, the films premier at UMFF before being showcased at other film festivals in Korea. This year's UMFFmentary includes 4 short documentaries. One features honest stories from the Ulsan based film community "Curtaincall" as a cultural organizer, while another has a unique setting as a theme – a hair salon. There are also character documentaries about a traditional Korean musician and a hunter.

AC1 09.29 10:00 Q&A

내가 만난 사람들

People I Meet

Korea | 2024 | 10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진욱과 수민은 오랜 커플이다. 두 사람은 바다가 있는 어느 시골 펜션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펜션에 젊은 여성 혜나가 입주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 마을에서 떠나야 할 때. 진욱과 수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부서졌을까?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떠오른다. 그리고…

Jin-wook and Su-min are a long-term couple. They decide to live in a rural pension near the ocean for a month. Then one day, a young woman named Hye-na moves into the same pension. A month later, it's time to leave. Is Jin-wook and Su-min's relationship closer? Or will it break - just like the sound when the waves hit a rock? The ending credits of film go up. And...

낯선 하나는 익숙한 여럿을 일깨워 준다. 장편영화 속 또 한 편의 영화를 넣고자 한다.
감독 김민경

The unfamiliarity of when we realize many familiar things. I want to put another film in the feature film. **Kim Min-kyung, Director**

김민경

2020년 첫 장편 <리메인> 이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두 번째 연출작이다. 현재 부산에서 작품 활동과 여러 영화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Kim Min-kyung

After the first feature *Remain* in 2020, *People I Meet* is the second production. Currently, she is engaged in work and various film-related activities in Busan.

AC1 09.29 13:00 Q&A

흙의 숨, 진도이야기

A Breath of Earth, Jindo Story

Korea | 2024 | 65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흙은 숨을 쉰다.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된다. 죽어서 흙이 된 인간은, 흙의 숨을 쉰다. 죽은 자의 땅 진도에서 흙의 숨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호흡했는지 찾아간다.

Soil breathes. Humans die and become soil. Humans who died and became soil breathe a breath of earth. It discovers how a breath of earth breathed with people in the land of the dead, Jindo.

진도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섬인데, 명량에서 전사한 왜군을 묻어 준 왜덕산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로웠다. 오랜 세월 동안 진도의 흙 속에 숨어 있던 이야기들에 숨을 불어넣고자 한다. **감독 김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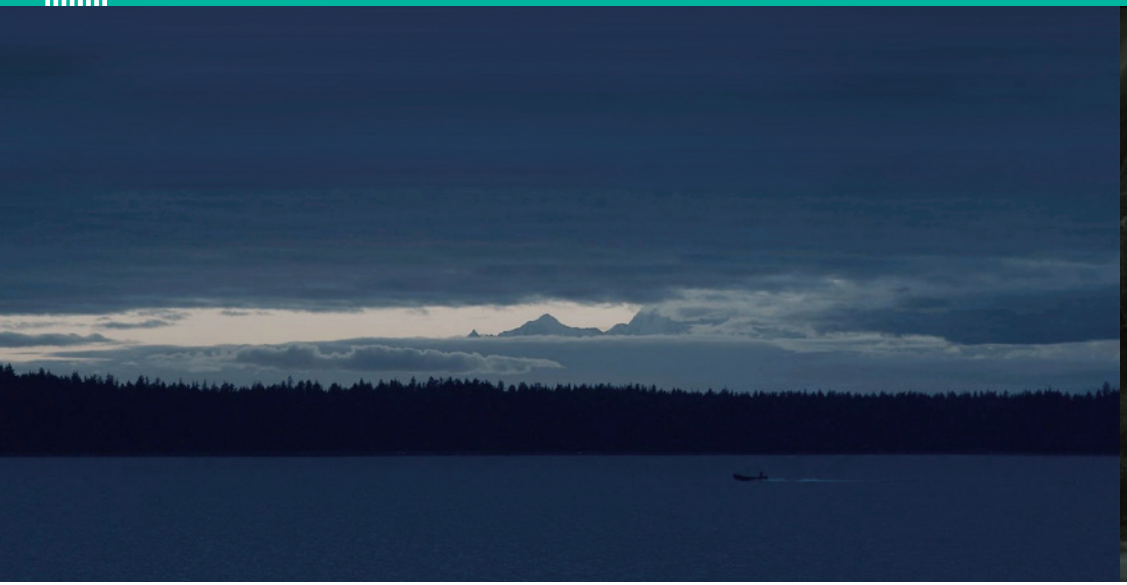
Jindo is an island which has various stories. It was interesting that Japanese soldiers who died in the battle of Myeongnyang were buried in Waedeoksan Mountain. I want to breathe into the stories hidden in the soil of Jindo Island for a long time. **Kim Dae-hyun, Director**

김대현

<지하생활자>, <살인의 강> 등 극영화와 <다방의 푸른꿈>, <시간의 종말>, <코리안 블랙 아이즈>, <정돌이> 등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서울국제독립영화제를 창설했다. 인디라인을 통해서 독립영화 제작과 함께 국내 최초로 단편독립영화를 배급했다.

Kim Dae-hyun

He directed *A Black Christmas Eve*, *Murder River*, *Try to Remember*, *For the End of Time*, *The Korean Black Eyes* and others. He is the festival director of GHFF and founded the SIIFF. He produced and distributed independent films through INDELINE.



AC1 09.29 16:00 Q&A

희망의 발견

Looking for Hope

Korea | 2024 | 101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정형민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지구의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오고 있다. 장편 다큐멘터리 <카일라스 가는 길>은 2020년에 개봉되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Jung Hyung-min

Starting with the Himalayas, he has been recording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remote areas of the Earth. The full-length documentary *Journey to Kailash* was released in 2020 and resonated with audiences.

4년 전, 나는 남동 알래스카의 최북단 마을인 야쿠타트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클링깃 곱사연어 씨족의 원로인 기니낙 아저씨를 따라 원시의 숲과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2023년 가을, 다시 야쿠타트를 찾았다. 나는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절망뿐이라 생각했던 그 땅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Four years ago, I visited Yakutat, the northernmost town in Southeast Alaska. There, I followed uncle Geeneeneik, an elder of the Tlingit Humpback Salmon Clan, through pristine forests and seas. In the fall of 2023, I visited Yakutat again, and I began to record the beautiful world they dreamed of. A flower of hope is blooming in the land where only despair and ruins were thought to remain.

북미 원주민들이 고난의 역사를 딛고 만들어온 희망의 세상은 서구 문명이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가려져 왔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그들의 삶과 철학을 전하고 싶었다. **감독 정형민**

The world of hope that Native Americans have created by overcoming a history of hardship has been hidden behind the huge barrier of Western civilization. I wanted to convey their life and philosophy coexisting with nature for a sustainable earth. **Jung Hyung-min, Director**

움프서밋
UMFFsummit

AC1 09.29 19:00 Q&A

한나

Hannah

Korea | 2024 | 28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2040년, 망가진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였다. 지구의 역사와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각 국적 출신의 두 명이 탐사대로 파견된다. 리더 J와 자발적으로 지원한 K는 한국을 조사하게 된다. 탐사 도중 K는 몰래 자리를 이탈하여 어렸을 적 살던 집으로 향한다.

In the year 2040, humanity, unable to survive on the devastated Earth, migrated to another planet. Two explorers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are dispatched as an expedition team to collect Earth's history and records. The leader J and the volunteer K are tasked with investigating Korea. During the expedition, K secretly leaves and heads towards her childhood home.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감독 박창환**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cannot see the present and cannot move towards the future. They are bound to repeat the past. Just like us now. **Park Chang-hwan, Director**

박창환

1998년, 인천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프로듀싱 전공과정을 졸업했다. 다양한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진행했다. <둥지>(2023)가 첫 번째 연출 작품이며 <한나>는 두 번째 연출 작품이다.

Park Chang-hwan

Born in Incheon, Korea in 1998, Park graduated fro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th a major in video production. He produced various films. *Nest*(2023) is his first film, and *Hannah* is the director's second film.

AC1 09.29 19:00 Q&A

움프서밋
UMFFsummit

정상에서 일어서기

All the Days

Korea | 2024 | 30min | Color | Documentary, Experimental | World Premiere

예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려 한다. 그녀는 친구 소영과 함께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빈집을 찾게 되고, 풀로 덮인 외할머니의 산소를 보기도 한다. 이후 그녀는 작업실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많은 것이 버겁다. 어느 날, 소영이 성빈과 함께 그녀의 작업실에 찾아오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관심과 관점을 주고받는다. 이윽고 예은은 조금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Ye-eun quits her job and becomes a writer. She visits her late maternal grandmother's empty house with her friend So-young and sees her grandmother's grave covered with grown grass. After that, she set up a studio but many things are still difficult. One day, So-young comes to her studio with Sung-bin, and they talk and share their interests and perspectives. Eventually, Ye-eun wakes up to a slightly different morning.

허성완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걸 탐구하고 알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잘 살기 위해 영화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Heo Sung-wan

I want to live well but I don't know what it means clearly. Thus having been a filmmaker, it has allowed me to explore and figure it out. In other words, to live well.

<정상에서 일어서기>는 '지속 가능한 사랑'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감독 허성완

This film was planned and created with consideration of "sustainable love".
Heo Sung-wan, Director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역센터로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12개 지역(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해부터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는
참여의 과정까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센터가 궁금하다면?!
울산센터 홈페이지
울산센터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kcmf_ulsan' 검색
카카오톡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검색

(Tel.) 052-960-7000 (Fax.) 052-960-7099
울산 북구 명촌 10길 78,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움프멘터리
UMFFmentary

검색되지 않는 길입니다
Welcome to New World

Korea | 2024 | 22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AC2 09.30 19:30 Q&A

낮에는 회사를 다니며, 밤에는 독립영화 커뮤니티 '커튼콜'을 운영하던 은정은 어느 날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다. 진급을 하자마자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커튼콜에 집중한다.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째의 어느 날. 재미있게만 느껴지던 활동에서 '나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으로 시작된 불경한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은정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Eun-Jeong, who works for a company by day and manages an independent film community "Curtaincall" at night sees her future at the company one day. She quit her job as she got promoted and then focused on the community. One day after 4 years, she doubted: Am I doing well? and depressed thoughts are continued. Hoping to soothe her anxiety, she visits friends who do similar things to her.

커튼콜과 친구들(배은정, 이지연, 안예진, 엄유미)
멘토: 문창현

Curtaincall and Friends(Bae Eun-jeong, Lee Ji-yeon, Ahn Ye-jin, Eom Yu-mi)
Mentor: Moon Chang-hyeon

움프멘터리
UMFFmentary

웅촌
Ungchon

Korea | 2024 | 19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AC2 09.30 19:30 Q&A

팀 스완(천명준, 선승현)
멘토: 신나리

Team Swan(Cheon Myung-jun, Seon Seung-hyeon)
Mentor: Seen Na-ri

배재근 씨는 사냥개들과 산행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집에서는 60의 가장으로 묵묵히 가정을 돌보지만 사냥개와 함께 산에 오르면 새로운 자아를 만난마냥, 산에 오르는 인물이다. 사냥개들은 어려서부터 생고기를 먹으며 크고 본능을 잃지 않기 위해 배재근 씨와 함께 오른다.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서 사냥할 수 있는 동물도 점점 사라지고, 황폐해진 산을 배재근 씨는 맞이한다.

Bae Jae-geun lives with nature while hiking with hounds. At home, the head of the family in his 60s silently takes care of the family, but he climbs the mountain with a hound as if he met a new self. Hounds eat raw meat from an early age to not lose their instinct. Since nature has been greatly damaged, animals that can hunt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he greets the devastated mountain.

움프멘터리
UMFFmentary

법고창신
Creating the New from the Old

Korea | 2024 | 15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AC2 09.30 19:30 Q&A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김석준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국악인 이지훈을 만나게 된다. 석준은 지훈과 인터뷰를 하며 석준이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듯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과정의 재미를 추구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 documentary filmmaker, Kim Seok-jun met a traditional Korean musician Lee Ji-hoon who is active in the region and is creating his own genre. While Seok-jun is interviewing Ji-hoon, he realizes they have similar concerns about creation and comes to know clearly what he wants. It shows the process of a documentary production by seeking the nature of the proc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o them in creation.

포브(김석준)
멘토: 김도희

Pov(Kim Seok-jun)
Mentor: Kim Do-hee

움프멘터리
UMFFmentary

손님
Guest

Korea | 2024 | 14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AC2 09.30 19:30 Q&A

양앤정(임소정, 양연나)
멘토: 김영조

Yang&Jeong(Lim So-jeong, Yang Yeon-na)
Mentor: Kim Young-jo

미용실은 머리를 하는 공간이다. 울산 중구의 한 미용실. 이곳엔 말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원장님과 손님, 손님과 손님,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정겨운 모습이 보인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미용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Hair salons are places to get one's hair done which is also true of a salon in Jung-gu, Ulsan. There is constant chatter here. The owner and several guests are talking about their own stories but somehow they seem friendly. The hair salon is not just a place for doing hair; it is also filled with funny and sad stories by various people. What else would be told today?

L.prime

생활을 디자인하다

루너벨 모던
새들 브라운

루너벨 모던
어스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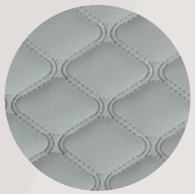
루너벨 모던
하바나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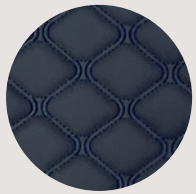
루너벨 모던
보르도 브라운

루너벨 모던
다크 초코 브라운

루너벨 모던
웜 그레이

루너벨 모던
바닐라 베이지


루너벨 모던
글레시어 화이트


루너벨 모던
울트라마린블루

루너벨 모던
세비야 레드

썬이 디
스마트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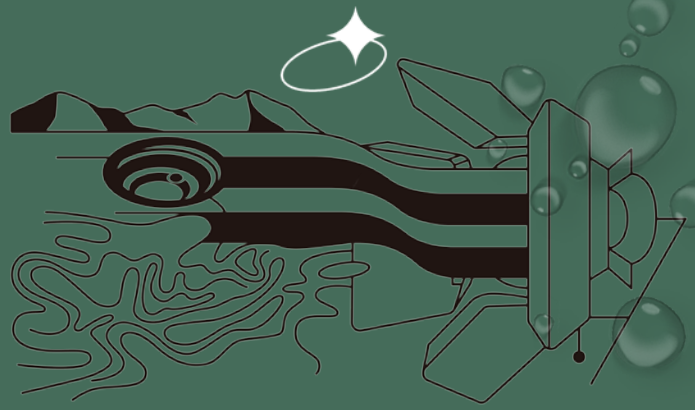
오토다츠
자사몰

오토다츠
스마트스토어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NOWWEATHER

Every thing you can imagine would be real



By cineaste
For cineaste

이야기라는 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문화적 힘이며
영화라는 예술은 이야기라는 거대 산업의 가장 주도적인 매체이다
- 로버트 맥키 <스토리>

우리들을 과거로, 미래로, 다양한 상상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영화는,
문화예술 중 가장 대중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기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체리코끼리에서는
영화인들을 위한 아웃도어 <나우웨더>를 시작했습니다.

언양전통식품

깊이 있고 더 다양한 전통의 맛

<울산 대표 장류 업체 (주)언양전통식품>

100% 국내산 재료만 이용하여 0%의 합성첨가물로
순수하게 담은 장류를 생산합니다.
D.I.Y 셀프 장 담기 키트 생산을 통해
장 담기 보편화에 기여합니다.

메주류 · 장류 · 청류 · 선물세트 · 체험학습 · 소이빈삼동카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267-7 E-mail. kkm11181@naver.com

www.unyangmeju.com

자연을 담은 기업
(주)한 울

"Nature is present for you"

계절이 주는 선물, 바르고 건강한 간식

자연에서 오는 원재료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맛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053-214-5000 E-deli.hanwool.com

즐거움을 따르다

TSINGTAO
PREMIUM BEER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www.dutchstyle.net

국내 최고의 로스터가 로스팅하고 천혜자연의 맑은 물로 추출한

| 프리미엄 더·치·커·피 |

DUTCHStyle™

Premium Dutch Coffee Brand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산, 자연, 인간

산과 함께
산과 함께 살아온 삶을 담아내고, 삶과 함께하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이 베푸는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인간과 함께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Mountain, Nature, Human

Together with Mountain
A life together with the mountain captured, and a mountain together with life spoken of.

Together with Nature
Learn the wisdom nature bestows, to return that wisdom back to nature.

Together with Human
Within nature, we'll search for a way to live together.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Talking in Nature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자연과 인간, 도전과 모험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The 9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resents film about nature and humankind, challenges, and adventures.

아이스 빌더 프로젝트
The Ice Builders Project

인도 히말라야 잔스카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얼음 스투파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living by making ice stoups for the water supply of Zanska in the Indian Himalayas.

< 아이스 빌더 *The Ice Builders* >

* <아이스 빌더>는 '돌로미티 - 이탈리아 1'에서 <숲속의 저녁>과 함께 상영됩니다.

* *The Ice Builders* will be screened as part of 'Dolomite - ITALY 1' with following film: *Even Tide*.

프란체스코 클레리치(감독)

Francesco Clerici(Director)

일시 Date/Time	9. 28.(토) 10:30	Sep. 28(Sat) 10: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탐험에서 환경운동까지
From exploration to environmental movements

대륙 횡단, 극지탐험, 태평양이나 대서양 횡단까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이들,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며 도전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Those who have challenged their limits, from transcontinental, polar expeditions, to transatlantic or Pacific, now continue their challenges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

< 오직 물과 바람만이 *It's Just Water and Wind* >

알렉스 벨리니(탐험가), 홍성택(산악인, 탐험가)

Alexandro Bellini(Explorer), Hong Sung-taek(Mountaineer, Explorer)

일시 Date/Time	9. 28.(토) 11:00	Sep. 28(Sat) 11: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7대륙 최고봉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I'm not satisfied with the highest peaks in seven continents

74세의 나이로 26년간 7대륙 최고봉을 오른 송귀화, 그녀의 노력과 그 과정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나갈 꿈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Song Gui-hwa, who reached the highest peak in seven continents for 26 years at the age of 74, her efforts, processes, and plans for her future dreams.

< 히말라야 쏘롱라, 5,416m *Himalayas Thorong La, 5,416m* >

송귀화(산악인), 문성진(산악인), 정재복(산악인)

Song Gui-hwa(Mountaineer), Moon Seong-jin(Mountaineer), Jeong Jae-bok(Mountaineer)

일시 Date/Time	9. 28.(토) 11:00	Sep. 28(Sat) 11:00
장소 Venue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 This talk program does not offer English interpretation.

한국 젊은 산악인들: 현재와 미래
Korea's Young Mountaineers: present and future

고산등반, 클라이밍, 트레일 러닝, 오지탐사까지, 고전 산악 스포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산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한국 젊은 산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From mountaineering, climbing, trail running to exploration, listen to the honest stories of young Korean mountaineers who are making their own stories with mountains, not limited to classical mountaineering.

이재호(투어컨덕터), 강민수, 허곽창신(몬투라 마운틴패트롤), 이원엽(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부)

Lee Jae-ho(Tour Conductor), Kang Min-soo, Heogwak Cheong-shin(Montura Mountain Patrol), Lee Won-yeob(HUFS Alpine Club)

일시 Date/Time	9. 29.(일) 11:00	Sep. 29(Sun) 11:00
장소 Venue	세미나실	Seminar Room

* This talk program does not offer English interpretation.

아시아의 알피니스트를 기리며
Tribute to Asian Alpinists

21세기 아시아 알피니즘 등반의 역사를 만들어 가던 히라이데 카즈야와 나카지마 켄로가 안타깝게도 지난 7월 27일, K2 서벽 신루트 등반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등반을 담은 영화 <로프> 상영 후, 영화 감독과 일본 산악인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azuya Hiraide and Kenro Nakajima, who were attempting the west face of K2, fell on the 27th of July. And, the rescue operation was called off at 2pm July 30th, 2024. After the screening of their last film *Rope*, the director and a Japanese mountaineer prepared a place to share stories about them.

< 로프 *Rope* >

와다 모에(감독), 테라사와 레이코(산악인), 안치영(산악인)

Moe Wada(Director), Reiko Terasawa(Mountaineer), Ahn Chi-young(Mountaineer)

일시 Date/Time	9. 29.(일) 14:00	Sep. 29(Sun) 14: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 This talk program does not offer English interpretation.

라이브 더빙 극장 Live Dub Theater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더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울산 시민들이 직접 대본 각색 및 더빙 연기 교육에 참여합니다.

A dubbing education program presented by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Ulsan residents worked on the script adaptation and dubbing acting for a few months to present the live dub.

< 브릿지 *The Bridge* >

* <브릿지>는 '투게더 2'에서 <성탄절의 불상사>, <버드 드론>, <카메라 들고, 산으로!>와 함께 상영됩니다.

* *The Bridge* will be screened as part of 'Together 2' with following films: *Christmas at Bulsangsa*, *Bird Drone*, and *Having Fun in the Mountains-Go to Cinsbu to Make a Film*.

일시 Date/Time	9. 28.(토) 11:30	Sep. 28(Sat) 11:30	9. 30.(월) 11:00	Sep. 30(Mon) 11:00
장소 Ven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 This talk program does not offer English interpretation.

국제산악환경포럼 International Forum for Mountain Environment

산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은 외부 영향과 환경 변화에 유달리 취약하여, 기후 변화의 시대, 부실한 쓰레기 처리 대책과 미흡한 환경 관리로 세계의 여러 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을 초빙해, 대한민국 등 동아시아와 히말라야, 알프스 등 전 세계 주요 산악지대의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The ecosystem and natural environments in mountain ranges are exceptionally vulnerable to external disturbance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accelerated devastation is affecting mountains across the world. In this forum, organized by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Mountain Studies, an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are invited to share observations of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mountains of East Asia, the Himalayas, and the Alps, among others, and consider possible solutions.

일시 Date/Time	9. 30.(월) 10:00	Sep. 30(Mon) 10:00
장소 Venue	세미나실	Seminar Room
주최주관 Presented, Organized by	한국산악학회	Korea Society of Mountain Research

국제산악영화협회 총회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Assembly

올해로 창립 24주년이 된 국제산악영화협회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산악영화제 및 산악박물관이 가입한 협의기구로, 산악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7년 가입했고, 현재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총회를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 개최합니다.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IAMF) was set up at the conclusion of a meeting in 2000. Today the IAMF numbers 27 Members: 25 festivals of mountain film and 2 museums, which represent 20 countries of Europe, Asia, North and South America, Oceania. UMFF joined IAMF in 2017 and board member of IAMF as a Asian continent representative. This year's Autumn Assembly will be held in Ulju.

자연에서 노래하다 Singing in Nature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펼쳐지는 영남알프스와 울산대공원을 배경삼아 영화와 음악 그리고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Wi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location, Yeoungnam Alps and Ulsan Grand Park, as the backdrop, this performance program brings film, music, and audience together.

* 해당 영화 예매 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인원 및 예매 확인을 위해 상영 시작 20분 전에 도착 바랍니다.
* 사전 예매 후 잔여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 Ticket holders of the film could watch the performance.
* Please arrive 20 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for reservation confirmation and processing.
* Tickets will be available on-site only if there are seats after advance reservation.

9. 27.(금)
Sep. 27(Fri)

개막식 Opening Ceremony

시간 Time	18:30	장소 Ven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그린카펫 - 오프닝 공연 - 개막식 - 개막작 상영 - 개막 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개막 공연은 개막작 상영 후 25분간 진행됩니다.
The opening ceremony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green carpet, opening performance, opening ceremony, opening film screening, opening performance (the last performance will continue for 25 minutes after the film screening).

오프닝 공연 Opening Performance

올해의 주빈국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테너 빈센조 렌티니. 한때는 뮤지컬 배우이자 오페라 제작자였고, 이후 세계를 순회하며 아이들에게 오페라를 소개하기도 하였던 성악 교사였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이 이곳에 당도하여, 피아니스트 전희연, 울주유스오케스트라 그리고 서울주합창단과 함께 '대지의 찬가' 를 통해 대자연을 노래하며 제9회 영화제의 문을 엽니다.

World-renowned tenor Vincenzo Lentini comes from this year's Guest Country, Italy. Once a musical theater actor and opera producer, he later traveled the world as a vocal teacher, introducing opera to children. His journey has led him here, where he will open the film festival by singing "Canto Della Terra" accompanied by pianist Heeyeon JEON, the Ulju Youth Orchestra, and the Westulju Choir.

개막 공연 Opening Performance

윤복희 Yoon Bock Hee

가수, 작사가, 작곡가, 영화배우, 영화기획가, 영화음악감독, 뮤지컬 배우. '대중음악의 전설'이자 '최초의 디바'. 72년 노래 인생에서 끝없이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영원한 디바.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3명의 친구가 함께 도전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눕체 등정기 <눕체: 정상을 향해>와 함께 도전의 아름다운 여정을 노래합니다.

Singer, songwriter, composer, film actor, film producer, film music director, and musical theater actress. "Popular Music Legend" and "First Diva". She is our eternal diva, who continues to take on challenges despite a 72-year career in music. She sings the beauty of pursuing challenges alongside the film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a story about a seemingly impossible climb that was made successful when three friends joined forces.

<코리안 웨이브 1> + 디쉬크림슨
Korean Wave 1 + DISH CRIMSON

시간 Time	18:30	장소 Venue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영화 상영 후 3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3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3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된 코리안 웨이브 1에서는 올해 주목받는 감독들의 화제작들이 모여있습니다. '성장', '책임', '부정(不正)' 등 여러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인물들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보고있으면 등장인물들을 응원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디쉬 크림슨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Korean Wave 1 is comprised of three short films featuring the most talked-about films by this year's notable directors. The films revolve around various themes such as "growth", "responsibility", and "injustice", portraying characters overcoming problems in their own unique ways. You can't help but root for them as you watch, wondering if these stories might just be about you. Following the screening, let your stress melt away with the explosive energy of DISH CRIMSON.

9. 28.(토) Sep. 28(Sat)

<꿈을 향한 트레일> + SURL X 라쿠나
Trail of Dreams + SURL X Lacuna

시간 Time	15:30	장소 Ven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영화 상영 후 6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6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독일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한 청년, 그는 5000km가 넘는 거리를 오로지 두 발로만 일주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트레일>에서 그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86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복잡한 감정을 스스로 다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SURL과 라쿠나는 이처럼 불가능이라 여기는 모든 새로운 도전을 노래로 응원합니다.

A young man living in a small rural village in Germany had the grand dream of walking over 5,000 km solely on foot. In *Trail of Dreams*, he embarks on an 86-day journey starting in Lima, the capital of Peru, testing his limits, dealing with complex emotions, and showing personal growth. SURL and Lacuna cheer on every new challenge that once seemed impossible with their music.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 +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텟
Bok-soon's One-day Class + Piotr Pawlak Jazztet

시간 Time	16:00	장소 Venue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영화 상영 후 3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3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제주 할망 복순씨의 조심스럽지만 유쾌한 요가 도전기,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산들바람 같은 기분 좋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텟의 경쾌한 재즈 선율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Bok-soon's One-day Class is about a cautious yet delightful yoga challenge by Jeju Island's granny Bok-soon. The film offers a refreshing breeze of emotions to our hearts, accompanied by the beautiful scenery of Jeju. Let yourself be swept away with the lively jazz melodies by the Piotr Pawlak Jazztet. Today, a most special moment unfolds.

<모던 타임즈> + 진수영시네마앙상블
Modern Times +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일시/장소 Date/Time/Venue	9. 28.(토) Sep. 28(Sat) / 19:00 /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9. 29.(일) Sep. 29(Sun) / 19:30 /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매년 무성영화를 새롭게 해석해 움프 관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진수영시네마앙상블. 무성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이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치있게 경고하고 있는 작품 <모던 타임즈>를 현대적 재즈 감성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Every year, the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presents a creative interpretation of silent films to the UMFF audience. They will bring modern jazz to reinterpret the legendary Charlie Chaplin's *Modern Times*, a clever and unique critique on the alienation of individuals in modern society.

9. 29.(일) Sep. 29(Sun)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 십센치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 10cm

시간 Time	17:00	장소 Ven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영화 상영 후 6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6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스코틀랜드 외딴섬, 셰틀랜드 부둣가에 사는 빌리에게 야생 수달이 떠 밀려오고, 그들은 함께 살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는 감성 영화에 이어, '그리움', '쓸쓸함', '정'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 십센치 10cm 의 감성 공연이 이어집니다.

A wild otter washes ashore Shetland, a remote island in Scotland, and ends up living with Billy. The poignant film is a calm portrayal of coexistence between man and nature, and is followed by a poignant performance by 10cm, the acoustic band that sings of "longing," "loneliness," and "love."

<퍼펙트 데이즈> + 스텔라 장
Perfect Days + Stella Jang

시간 Time	18:00	장소 Venue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영화 상영 후 3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3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도쿄의 공공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는 히라야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분재에 물을 주고, 전설적인 팝 넘버를 들으며 일을 갔다오고, 좋아하는 나무 사진을 찍고, 매일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자기전에 책을 읽다 자는 것. 이것이 그의 일상의 전부이자 가장 완벽한 하루입니다. 한 편의 시를 읽은 듯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단순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조명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오늘은 스텔라 장의 아름다운 노래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Hirayama is a public bathroom janitor in Tokyo. Every day, he wakes up at the same time, waters his bonsai, listens to legendary pop numbers, goes to work, takes photos of his favorite trees, eats dinner at the same restaurant, reads a book before bed, and falls asleep. This routine is his entire life, and his perfect day. The film *Perfect Days* reads like a poem, highlighting the beauty of a simple life. What is your day like? Today, create your perfect day with beautiful songs by Stella Jang.

9. 30.(월) Sep. 30(Mon)

<크로노셉션> + 라이캣 크루
Chronoception + likatcrew

시간 Time	18:30	장소 Venue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영화 상영 후 3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30 minutes after film screening.

키르기스어로 "끔찍한 산", "접근할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콕샬투 산맥의 혹독한 날씨와 피라미드처럼 뾰족한 산봉우리에 도전하는 탐험가들. 독특하고 신비로운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음악으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풀어내는 영화 <크로노셉션>과 함께, 다이나믹한 프리스타일 축구 퍼포먼스를 선보일 '라이캣 크루'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Explorers aspire to undertake the harsh weather and pyramid-like peaks of the Kokshaal-Too mountain range, which means "terrible mountain" or "inaccessible mountain" in Kyrgyz. *Chronoception* begins and ends with the mysterious traditional music of Kyrgyzstan. A dynamic freestyle soccer performance by likatcrew will follow.

움프 거리공연
UMFF Street Performance

영화제 곳곳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넌버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는 마임, 신비롭고 매혹적인 선율로 공간을 채우는 음악 연주회까지, 더 다양한 거리공연을 즐겨보세요!

또,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단편영화들과 함께 울주청소년댄스경연대회 '발악'에서 우승한 3개 팀이 짜릿한 여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A variety of non-verbal performances have been prepared to enrich our film festival. Don't miss the diverse array of street performances, including mime acts that speak through movement, enchanting and mesmerizing music performances that fill the space with beautiful melodies!

Take home thrilling memories from screenings of short films bursting with fresh ideas, and exhilarating performances from the three winning teams of the Ulju Youth Dance Competition, "All Dance Competition."

일자 Date	시간 Time	장소 Venue	팀명 Team
9. 27.(금) Sep.27(Fri)	13:30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리버티즈 Liberty'z
	17:30	움프 돔 UMFF Dome	카이크루 CAY CREW
9. 28.(토) Sep.28(Sat)	11:00	움프 돔 UMFF Dome	뮤직팩토리 딜라잇 Music-factory Delight
	13:00	움프 돔 UMFF Dome	이명찬 Lee Myeong-chan
9. 29.(일) Sep.29(Sun)	11:00	움프 돔 UMFF Dome	트리오 디 Trio D
	14:00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휠러스 Wheelers
	16:00	움프 돔 UMFF Dome	바디퍼커션 녹녹 Bodypercussion knock-knock
9. 30.(월) Sep.30(Mon)	11:00	대공원 시네마 Grand Park Cinema	왁갱 Waackgang
	14:00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브레이크네이션 Breaknation
	18:00	움프 돔 UMFF Dome	이지훈과 치배들 LEEJIHUN & CHIBAES
10. 1.(화) Oct. 01(Tue)	17:30	움프 돔 UMFF Dome	오타클 OTAKLE

자연에서 채우다 Playing in Nature

온 가족이 다 함께!

아름다운 영남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친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For the whole family!

Bring vitality back to your tired routine with a variety of experience programs that everyone, young and old, can enjoy amidst the beautiful nature of the Yeongnam Alps!

참가비 Fee	3,000원 3,000 KRW
신청 Registration	영화제 홈페이지(www.umff.kr) 사전 예매 Advance Reservation on the official website(www.umff.kr)

* 원활한 인원 및 예매 내역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arrive 20 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for reservation confirmation and processing.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official website.

춤추자!! 이탈리아 전통 인형극 '마리오네트' 만들기
Let's Dance!! Making 'FLUFFY MARIONETTE'

봉제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자!
직접 만든 마리오네트로 인형극 봉사활동을 하는 울산 영웅 82호 양주식 작가와 함께 우리 아이 애착 인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만들기!

Bring stuffed dolls to life!
Join us to make your child's favorite doll that comes to life as a marionette with Ulsan's Hero No. 82, artist Yang Ju Sik, who volunteers to create puppet shows with his own handmade marionettes.

일시 Date/Time	9. 28.(토) Sep. 28(Sat) / 10:00, 12:30 9. 29.(일) Sep. 29(Sun) / 10:00, 15:30 9. 30.(월) Sep. 30(Mon) / 12:00, 15: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40인	40 people

찾아보자!! 가을밤 별자리 탐사대!
Let's Go!! UMFF STAR RANGER!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이야기!
우주의 움직임과 별자리에 대해 배우고, 가을밤 하늘의 달과 별자리를 직접 확인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울산과학기술원의 천체관측 동아리인 아스트랄이 함께합니다!

A story of the stars dotting the beautiful night sky!
Learn about the movements of the universe and constellations, observe for yourself the moon and constellations in the autumn night sky, and listen to the stories they hold. Joined by the astronomy club ASTRAL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일시 Date/Time	9. 28.(토) Sep. 28(Sat) / 20:00 9. 29.(일) Sep. 29(Sun) / 19:30 9. 30.(월) Sep. 30(Mon) / 19:30	
장소 Venue	산악문화관 3층 옥상	Rooftop 3F, Mountain House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20인	20 people

나무극장 - 업사이클링 나무액자 만들기
WOODTHEATER - Upcycling Wood Frame

플라스틱은 NO!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해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긴 업사이클링 나무 액자를 만들자! 나무극장의 청년 대표 김산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원목 공예 클래스!

No more plastic! Recycle wood being thrown out to create an upcycled wooden picture frame filled with natural beauty! A carbon neutral woodshop class with Kim San, the young founder of Woodtheater!

일시 Date/Time	9. 28.(토) Sep. 28(Sat) / 11:00, 14:30 9. 29.(일) Sep. 29(Sun) / 10:00, 15:00 9. 30.(월) Sep. 30(Mon) / 11:30, 15:30	
장소 Venu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20인	20 people

배성동의 영남알프스 기행
UMFF Mountain Guide

영남알프스만 30년. 배성동 작가가 직접 산 넘고 물 건너며 찾아낸 산행 코스를 함께 걸어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흐르는 코스를 걸으며, 잘 알지만 알지 못했던 영남알프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Thirty years discovering the Yeongnam Alps. Embark on a journey with author Bae Sung-dong as he guides you through the very paths he's unveiled during his extensive trekking across mountains and rivers. Walk along the scenic trails and uncover a hidden side of Yeongnam Alps you didn't know existed.

일시 Date/Time	9. 29.(일) Sep. 29(Sun) / 13:30 9. 30.(월) Sep. 30(Mon) / 10: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소요시간 Duration	홈페이지 참고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official website
참가인원 Participation	30인	30 people

즐기자!! 움프 놀이터!
Yayyy!! UMFF PLAYGROUND!

오르고 뛰어넘고! 안전하고 신나게!

키즈 클라이밍, 움프 힐 오르기, 푹신푹신 인형 숲 놀이터는 물론!
울산대학교 그림 & 봉사 동아리 '그릴터'와 함께하는 낙서 교실까지!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자연과 함께 즐기자!

Climb and leap! Be safe and have fun!

Kids' Climbing, UMFF Hill Climbing, Soft and Plush Doll Forest Playground and doodles class, presented by Grillter!
Enjoy a variety of play facilities that are beneficial for child development, all amidst nature!

* 움프 놀이터는 영화제 기간 중 상시 운영되며,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 This program is open throughout the festival period and no additional fee is required.

자연에서 펼치다 Viewing in Nature

2024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목하는 산의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집니다.

An exhibition of the mountain in focus at this year's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24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하리시 카파디아'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2024 'Harish Kapadia'

UMCA 전시는 '평화의 탐사가'로 알려진 하리시 카파디아(1945-)의 산악 정신을 보다 널리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시는 그가 현장에서 활동하던 40여 년 간의 등정 기록, 산악 분쟁 지역에서 펼쳤던 평화운동과 함께 히말라야 탐사 정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집필한 다양한 저서를 소개합니다. 그의 탐사 열정과 평화를 향한 신념을 통해 많은 갈등과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오늘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The UMCA exhibition aims to further promote the mountaineering spirit of Harish Kapadia, also known as the "explorer for peace". The exhibition showcases over 40 years of his mountaineering records and various books he authored regarding peace initiatives in conflict-ridden mountain regions and his knowledge base about Himalayan expeditions. Through his passion for exploration and commitment to peace, we hope to inspire reflection on the conflict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s that plague our world today.

일시 Date/Time	9. 5.(목) ~ 10. 1.(화) Sep. 5(Thu) – Oct 1(Tue) / 11:00 ~ 18:00
장소 Venue	코아갤러리(등억꽃향 2층) 2F, COA Art Gallery, Querencia

태화강의 발원지 울산

가지산 生 막걸리

3대 60년을 이어온 전통-
가지산 아래 180미터 암반수로 빚고 있는
'가지산 막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387-5 | Tel: 052. 262. 2334 | Fax: 052. 262. 0473

Best&Co
베스트앤코

이탈리아 식품 전문 수입업체

베스트앤코는 이탈리아 장인들의 제품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멜치오리' 블랙/화이트 트러플 오일, '사바티노' 타르투피 트러플제스트,
'라피아만떼' 산마르자노 토마토홀, '벨레이' 유기농 발사믹 글레이즈,
마켓컬리에서 만나보세요~

산마르자노 토마토홀 · 트러플제스트 · 트러플오일 ·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 아몬드버터 · 각종 선물세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 리더스뷰 3층 E14호
Tel. 070-8247-1700

www.bestnco.co.kr

LOVE EUGENE FARM
MILK AND
FRESH PRODUCTS
乳珍牧場
ONLY NATURAL INGREDIENTS
가장 본연의 상태로, 자연 그대로의 우유를 전합니다
YOU'RE SURE, IT'S PURE!
좋은 우유, 우유의 근본(本) BON MILK!
CAFE, CLASSROOM
목장 직영 유제품전문점, 팜클래스 체험을 통해
농촌과 도시를 잇고자 합니다
저온살균목장우유 · 팜플레인요거트 · 울산배요거트 · 팜스트링치즈 · 본밀크 언양카페 · 본치즈어리 · 팜클래스 체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차리로 320 유진밀크팩토리

소월당
울산특산품 배빵으로
맛있는 울산을 선물하세요!
소월당 언양점, KTX울산역점,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www.sowoldang.com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Chairman of Board**
이순걸 Lee Soon-geol

이사 **Board Members**
김교학 Kim Kyo-hak
김달줄 Kim Dal-jul
김대창 Kim Dae-chang
김수연 Kim Su-yeon
김영달 Kim Young-dal
김은영 Kim Eun-young
김인수 Kim In-soo
김진택 Kim Jin-taek
김해숙 Kim Hae-sook
김혜진 Kim Hye-jin
박경례 Park Gyeong-rye
박만영 Park Man-young
박수곤 Park Soo-gon
송삼원 Song Sam-won
송지범 Song Ji-bum
엄홍길 Um Hong-gil
오세필 Oh Se-pil
원경연 Won Gyeong-yeon
유홍섭 Yoo Hong-sub
이상찬 Lee Sang-chan
이순우 Lee Soon-woo
이창세 Lee Chang-se
이춘근 Lee Chun-geun
이태호 Lee Tea-ho
정우식 Jeong Woo-sik
정일근 Chung Il-keun
최현기 Choi Hyun-ki
홍성우 Hong Sung-woo

감사 **Auditor**
이창림 Lee Chang-rim

회원 **Members**
경민정 Kyung Min-jung
김상화 Kim Sang-hwa
김인철 Kim In-chul
배경미 Christine Kyung-mi Pae
배준호 Bae Jun-ho
유문화 Yoo Moon-hwa
장영은 Jang Young-eun
정훈식 Jung Hoon-sik
최정화 Choi Jung-hwa
홍종오 Hong Jong-oh

고문 **Adviser**
이인정 Lee In-jung
정기범 Jung Ki-bum

집행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엄홍길 Um Hong-gil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김은영 Kim Eun-young
김인수 Kim In-soo
박경이 Park Kyung-yi
박만영 Park Man-young
배경미 Christine Kyung-mi Pae
심 영 Sim Young
오만석 Oh Man-seok
이창세 Lee Chang-se
정일근 Chung Il-keun
최창열 Choi Chang-youl
홍종오 Hong Jong-oh

영화제 사무국 **Festival Office**

프로그래머 **Programmer**
이정진 Jinna Lee

객원 프로그래머 **Guest Programmer**
박혜미 Park Hye-mi
장다나 Jang Da-na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홍영주 Hong Yung-joo

스태프 **Staff**
김나영 Kim Na-young
김명현 Kim Myeong-hyeon
김민제 Kim Min-je
김효준 Kim Hyo-jun
박현아 Park Hyeon-ah
손준영 Son Jun-young
송예린 Song Ye-rin
유현주 You Hyun-ju
윤승진 Yun Seung-jin
이미경 Lee Mi-kyoung
이수연 Lee Su-yeon
이예지 Lee Ye-ji
이지후 Lee Ji-hoo
전소현 Chun So-hyun
정선우 Jeong Sun-woo
정해슬 Jung Hae-seul
조민지 Jo Min-ji
추정훈 Choo Jung-hoon
한서정 Han Seo-jung

도움 주신 분들 / 관객리뷰단 Acknowlegement / Audience Reviewer

도움주신 분들

강진석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곽정혜 산악인
권혁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김경민 (주)언양전통식품
김근영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김기호 프리미어모터스(주)
김동수 산악인
김민지 (주)비어케이
김성준 전주국제영화제
김윤 바이오스타줄기세포기술연구원
김재열 농협 서울산금융센터
김재원 (주)콜핑
김지협 (주)WKS글로벌
김형찬 베스트앤코
문동석 뉴시티팜
박선영 (주)써니
박찬진 (주)진미디어
박창수 한국동서발전(주)
배효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손은정 울산시 교육청
송은환 그린F&B
신동환 무주산골영화제
신서현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신우열 (주)써니
오아로 (주)브리타코리아
유수진 한국동서발전(주)
윤성한 프리미어모터스(주)
이가영 (주)콜핑
이수아 소월당
이예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이은영 코아주식회사
이은혜 코아주식회사
이정우 프리미어모터스(주)
이정환 농협 서울산금융센터
이주훈 (주)비어케이
이철빈 넬슨스포츠
이태동 MBC
이혜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이희봉 (주)유에이치텍
이희종 더치스타일
임대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병하 (주)네이처셀
장은석 부산국제영화제
전익범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전창호 주식회사 모티브이펙트
정예지 넬슨스포츠
정인철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정해경 본밀크
조별님 (주)브리타코리아
주영 체리코끼리
최경미 (주)한울
최은미 (주)로지엔엘
최정희 (주)신세계코리아
하지윤 (주)로지엔엘
한승완 가지산막걸리
황주희 한국수력원자력(주)
황준건 (주)써니
황준상 (주)써니
Erika Sfascia 주한이탈리아문화원
Marco Ribetti Museo Nazionale della Montagna “Duca degli Abruzzi”
Michela Linda Magri 주한이탈리아문화원
Ramyata Limbu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Rosanna Stedile Trento Film Festival

관객리뷰단

김윤희 Kim Yun-hee
노상훈 Noh Sang-hoon
노진경 Noh Jin-gyeong
박선지 Park Seon-ji
박성수 Park Seong-su
박세은 Park Se-eun
박환조 Park Hwan-jo
배재록 Bae Jae-rok
신미옥 Shin Mi-ok
오준서 Oh Jun-seo
이상현 Lee Sang-hyeon
이석원 Lee Seok-won
이세연 Lee Se-yeon
이언경 Lee Eon-gyeong
이혜범 Lee Hye-beom
이혜영 Lee Hye-young
이혜인 Lee Hye-in
임미진 Lim Mi-jin
장휘원 Jang Hwi-won
정재인 Jeong Jae-in
조은미 Jo Eun-mi
조현아 Jo Hyeon-a
하정문 Ha Jeong-mun
허수은 Heo Su-eun

상영본 제공처 Official Contacts

500 Days in the Wild
Rebel Sister Productions
500daysinthewild@gmail.com

After the Snowmelt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Agent of Happiness
Cinephil
tal@cinephil.com

All the Days
Studio Dahan
hyunajoha@gmail.com

Ashima
Kenji Tsukamoto
kenji.utah@gmail.com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NEW DOCS
luisa.schwamborn@newdocs.de

Atomic Chicken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Bedouin Dream, A
stop.watch Productions
tom@stopwatch.ie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National Geographic
nadia.ahmadein@natgeo.com

Bird Drone
Radheya Jegatheva
radheyajegatheva@gmail.com

Body of a Line
Henna Taylor Films
hennataylor@gmail.com

Bok-soon's One-day Class
Choi Beom-chan
ordtiger@naver.com

Breath of Earth, Jindo Story, A
Indeline
indeline@gmail.com

Bridge, The
AniSEED
kaniseed@kiafa.org

Chaehwa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Christmas at Bulsangsa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Christmas in Summer
Lee Ga-hong
dearmybom@gmail.com

Chronoception
Picture Organic Clothing
Yann.l@picture-organic-clothing.com

Climbing for Gold
Human Films
weare@humanfilms.be

Continuum
Arc'teryx Presents
Amy.Carleton.External@arcteryx.com

Creating the New from the Old
Kim Seok-jun
whdqls8185@naver.com

Daughter of the Sea
Backroads Pictures
kevin@backroadspictures.com

Dear Mother
Louder Than 11, LLC.
jonglassberg@gmail.com

Dhye Dreams
Voices from the Roof of the World
voicesroofworld@gmail.com

Eight Mountains, The
JINJIN Pictures
jinjinpic@gmail.com

Even Tide
Varicoloured
lc@varicoloured.eu

Everest Revisited 1924 - 2024
Alpine Club
media@alpineclub.org

Excalibur
Crimp Films
banda@crimp-films.com

Fisher Boy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Flying
Fandango Sales
sales@fandango.it

Frogs, The
Kim Hyeong-cheol
ahdrms202@naver.com

Giuseppe
Nadasdy Film
distribution@nadasdyfilm.ch

Great White Whale, The
Michael Dillon
mcdillonfilms@gmail.com

Guest
Lim So-jeong
sojung4934@naver.com

Hannah
Funnycon
film@funnycon.tv

Hansel: Two School Skirts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Having Fun in the Mountains-Go to Cinsbu to Make a Film
Hakka TV
hakkatv2015@gmail.com

Heritage
Borisunamu Film
borisunamu23@gmail.com

Himalayas Thorong La, 5,416m
KBS
uplight@kbsmedia.co.kr

Home Front - A Journey in Italy with Domenico Quirico, The
Paola Piacenza
paolapiacenza0@gmail.com

House of the Seasons
Indiestory Inc.
shorts@indiestory.com

Hummingbird, The
Fandango Sales
sales@fandango.it

Ice Builders, The
Nieminen
distribuzione@nieminenfilm.it

ID_Younggil's Mum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Invisible Summit
InHope Pictures
aladin@inhope.net

It's Just Water and Wind
Rai Documentari
mariangela.borneo@rai.it

Jacques
Paraloeil
distribution@paraloeil.com

Keep It Burning
PETZL
ecaillet@petzl.com

Last Observers, The
Patagonia Films
Monika.McClure@patagonia.com

Last Ray
Lighten Climbing Production
drinkingchul@naver.com

Last Skiers, The
University College London
r.alwyn@ucl.ac.uk

Letters Unreeling
Kim Hyun-jung
merri_j@naver.com

Looking for Hope
Big Tree
bigtreeseoul@gmail.com

Luce and the Rock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Marmolada - Madre Roccia
Sky
michela.saltara.adecco@skytv.it

Modern Times
MK2
intlfest@mk2.com

Monk and the Gun, The
Choix Pictures
choixpictures@hanmail.net

My Name Is Edgar and I Have a Cow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MYDEAR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New Clothes
POST FIN
distribution@postfin.co.kr

New Kind of Wilderness, A
Dr Sales
RISG@dr.dk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L'Endroit
contact@lendroitfilms.com

Our Season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pdfflove@hanmail.net
KOFIC
shinsk@kofic.or.kr

People I Meet
Remain Production
film5665@gmail.com

Perfect Days
t.cast
jhha@tcast.tv

Perfect Settlement
POST FIN
distribution2@postfin.co.kr

Picnic
Rocket Film
emmmk@naver.com

Pinea
Eirik Heggen Animasjon & Illustrasjon
eirikheggen@hotmail.com

Pyrotechnician, The
Louise Productions Lausanne
lausanne@louiseproductions.ch

Radio Interference
SMF Animation Studio
sholud1@gmail.com

Rally
AniSEED
kaniseed@kiafa.org

Recordings of a Weather Camera
Lemonade Films
info@refreshingfilms.com

Reel Rock: Climbing Never Die
Reel Rock
greg@senderfilms.com

Reel Rock: Jirishanca
Reel Rock
greg@senderfilms.com

Reel Rock: With My Heart
Reel Rock
greg@senderfilms.com

Resume
Lee Seung-jun
sin1275@naver.com

Rope
Ruff Films LLC
kohei@rufffilms.co

Sasol Odyssey
Lighten Climbing Production
drinkingchul@naver.com

Seventeen
mythenfilm
thomas@mythenfilm.ch

Shepherd, A
Andana Films
contact@andanafilms.com

Siachen, A War for Ice
Iceberg Film SA
info@icebergfilm.ch

Slides on the Mountain
Arc'teryx Presents
Amy.Carleton.External@arcteryx.com

Snow Leopard
Rediance
jing@rediancefilms.com

Soundscape
Well Travelled Collective
sarah@wearewelltravelled.com

Suyeong Bakery
Hosoo Film
merroo@hanmail.net

Things Unheard Of
Remo Films
info@ramazankilic.com

Track_ing
Lee Chan-yeol
john.jl163@gmail.com

Trail of Dreams
ravir film GbR
maria.ziegler@ravir.de

Trail of Toni - Toni Gobbi from Citizen to Mountain Guide, The
Grivel S.r.l.
Oliviero@grivel.com

Ungchon
Cheon Myung-jun
lexus13@daum.net

Vincent
Francesco Rey
film.francesco.rey@gmail.com

Waiting Time
Amarena Film
amarenafilm@gmail.com

Welcome to New World
Curtaincall
Movie_curtaincall@naver.com

When This Summer is Over
Jang Byung-ki
monte22@naver.com

Wintering
Jang Jun-young
junklimt@naver.com

Wish Tree
Kyungjosa Film
kyungjosafilmsku@gmail.com

Work to Do
Nareun
gts806@gmail.com

etc.
3일의 휴가 92
500일의 다이앤 48
8월의 크리스마스 126
ID_영길엄마 125
TV가 사라진 세상 151

ㄱ
개구리는 죽는다 122
거대한 백경 49
검색되지 않는 길입니다 160
겨울나기 124
기다림의 시간 115
꿈을 향한 트레일 50

ㄴ
내 이름은 에드가 135
내가 만난 사람들 154
눈이 녹은 후에 70
눕체: 정상을 향해 44

ㄷ
대장부 아티르큘 84
디어 마더 66
디예의 시간 88

ㄹ
라디온의 휴가 143
라스트 스키어 113
랠리 137
로프 71
루스와 바위거인 134

ㅁ
마르몰라다 - 마드레 로차 51
마이디어 130
마지막 관찰자 65
마지막 빛 78
모던 타임즈 93
물고기 소년 150

ㅂ
바다의 딸 86
바디 오브 라인 64
버드 드론 140
법고창신 160
베두인의 꿈 149
보이지 않는 봉우리 52
복순씨의 원데이 클라쓰 118
볼라레 104
부모 바보 119
브릿지 138
빈센트 114
빌리 앤 몰리: 사랑해 수달 53

ㅅ
사솔의 오디세이 77
사운드스케이프 59
산악가이드 토니 고비 112
새옷 144
서신교환 127
성탄절의 불상사 139
소풍 94
손님 161
수영제과 95
숲 속의 저녁 111
스노우 레오파드 45
시아첸, 얼음 전쟁 72

ㅇ
아빠는 불꽃전문가 148
아시마 54
아이스 빌더 110
아토믹 치킨 142
양치기 펠릭스 55
어떤 기상관측카메라의 기록 60
에베레스트 1924 - 2024 75
엑스칼리버 105
여덟 개의 산 106
여름이 지나가면 96
열일곱 87
오직 물과 바람만이 107
와일드 패밀리 56
완벽한 정산 123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58
우크라이나의 클라이머 80
웅촌 161
이력 128

ㅈ
자크, 여기 있다 57
장손 97
재탄생 76
정상에서 일어서기 158
쥬세페의 멋진 겨울 145
진심의 여정 62

ㅊ
체화 147
총을 든 스님 85

ㅋ
카메라 들고, 산으로! 141
크로노셉션 73
클라이머 프레데릭 61

ㅌ
탈론과 리키의 도전 79
트랙_잉 129

ㅍ
퍼펙트 데이즈 98
피네아 146
피뢰침! 136

ㅎ
한나 157
해야 할 일 120
행복 검침 왔습니다! 99
허밍버드 108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121
홈 프론트 109
흙의 숨, 진도이야기 155
희망의 발견 156
히리샹카 63
히말라야 쏘롱라, 5,416m 74

작품 색인 Index of Films

etc.

500 Days in the Wild 48

A

After the Snowmelt 70
Agent of Happiness 99
All the Days 158
Ashima 54
Atirkül in the Land of Real Men 84
Atomic Chicken 142

B

Bedouin Dream, A 149
Billy & Molly: An Otter Love Story 53
Bird Drone 140
Body of a Line 64
Bok-soon's One-day Class 118
Breath of Earth, Jindo Story, A 155
Bridge, The 138

C

Chaehwa 147
Christmas at Bulsangsa 139
Christmas in Summer 126
Chronoception 73
Climbing for Gold 61
Continuum 76
Creating the New from the Old 160

D

Daughter of the Sea 86
Dear Mother 66
Dhye Dreams 88

E

Eight Mountains, The 106
Even Tide 111
Everest Revisited 1924 - 2024 75
Excalibur 105

F

Fisher Boy 150
Flying 104
Frogs, The 122

G

Giuseppe 145
Great White Whale, The 49
Guest 161

H

Hannah 157
Hansel: Two School Skirts 121
Having Fun in the Mountains-Go to Cinsbu to Make a Film 141
Heritage 119
Himalayas Thorong La, 5,416m 74
Home Front - A Journey in Italy with Domenico Quirico, The 109
House of the Seasons 97
Hummingbird, The 108

I

Ice Builders, The 110
ID_Younggil's Mum 125
Invisible Summit 52
It's Just Water and Wind 107

J

Jacques 57

K

Keep It Burning 58

L

Last Observers, The 65
Last Ray 78
Last Skiers, The 113
Letters Unreeling 127
Looking for Hope 156
Luce and the Rock 134

M

Marmolada - Madre Roccia 51
Modern Times 93
Monk and the Gun, The 85
My Name Is Edgar and I Have a Cow 135
MYDEAR 130

N

New Clothes 144
New Kind of Wilderness, A 56
Nuptse: Touching the Intangible 44

O

Our Season 92

P

People I Meet 154
Perfect Days 98
Perfect Settlement 123
Picnic 94
Pinea 146
Pyrotechnician, The 148

R

Radio Interference 143
Rally 137
Recordings of a Weather Camera 60
Reel Rock: Climbing Never Die 80
Reel Rock: Jirishanca 63
Reel Rock: With My Heart 62
Resume 128
Rope 71

S

Sasol Odyssey 77
Seventeen 87
Shepherd, A 55
Siachen, A War for Ice 72
Slides on the Mountain 79
Snow Leopard 45
Soundscape 59
Suyeong Bakery 95

T

Things Unheard Of 151
Track_ing 129
Trail of Dreams 50
Trail of Toni - Toni Gobbi from Citizen to Mountain Guide, The 112

U

Ungchon 161

V

Vincent 114

W

Waiting Time 115
Welcome to New World 160
When This Summer is Over 96
Wintering 124
Wish Tree 136
Work to Do 120

감독 색인 Index of Directors

ㄱ
기욤 브로스트 58, 73
김대현 155
김민경 154
김석원 74
김석준 160
김소현 138
김소희 130
김용균 94
김현정 127
김형철 122

ㄴ
남동현 150
낸시 권 86
노묘정 137
노에미 피사노 114
니콜 고믈리 86
니콜로 콘테르노 105
니키타 트로키 148
닉 로젠 80

ㄷ
다이앤 웰란 48
도로티야 주르보 99
도리트 제스너 50
돔 부시 75
디에고 보렐로 105

ㄹ
라데야 제가데바 140
라마잔 클루치 151
로빈 반 진 76
루시 리퐁 142
루이 안케 55
루카 로시니 107
뤄 이산 70
리산드르 르뒥 보도 57

ㅁ
마르게리타 부이 104
마야 칼슨 미켈슨 65
마이클 딜런 49
마테오 마지 51
맷 그룸 80
모르간 시리엑스 142
문은정 144
미셸 파커 76

ㅂ
박인덕 123
박창환 157
박홍준 120
배은정 160
뱅상 그호스 61
베로니카 시체리 113
베른하르트 벵거 60
브릿 라에즈 134
빔 벤더스 98

ㅅ
삼갈 락힘 129
샤를로트 반더미르히 106
샨타 네팔리 88
선승현 161
세스 길리스 79
솔렌 폴렛 142
스테피 로스토스키 50
신동철 77, 78
실예 예븐스모 야콥센 56

ㅇ
아룬 바타라이 99
안나 우글로바 142
안드레아 반디넬리 105
안드레아 코수 62
안예진 160
안토니오 보콜라 112
알렉세이 포치발로프 143
알리 티니베코브 129
애런 블랏 76
양연나 161
엄유미 160
에이릭 헤겐 146
오정민 97
와다 모에 71
육상효 92
이가홍 126
이사벨 파베즈 145
이승준 128
이윤석 125
이종수 119
이지연 160
이찬열 129
임소정 161
임지선 121

ㅈ
자닐 주숩잔 84
장병기 96
장준영 124
전도희 130
정성욱 95
정형민 156
조쉬 로웰 63
조한나 129
존 글래스버그 66
존 포터 75
진정민 139

ㅊ
찰리 채플린 93
찰리 해밀턴 제임스 53
천명준 161
최범찬 118

ㅋ
카푸친 프랫 142
켄지 츠카모토 54
쿠오 신잉 141
크리스티아나 페치 51
클라우디아 브리고네 115

ㅌ
토마소 바르바로 110
토마스 호라트 87
톰 존슨 149
티미 오닐 59
티볼트 에르메뉴스 142

ㅍ
파올라 피아첸자 109
파우 초이닝 도르지 85
판리신 52
페마 체덴 45
펠릭스 반 그뢰닝엔 106
풀비오 마리아니 72
프란체스카 아르키부지 108
프란체스코 레이 114
프란체스코 클레리치 110, 111
피터 모티머 63
필립 디비악 135

ㅎ
허성완 158
헤나 테일러 64
홍승기 147
황혜원 136
휴고 클루조 44

감독 색인 Index of Directors

A
Aaron Blatt 76
Ahn Ye-jin 160
Aleksey Pochivalov 143
Ali Tynybekov 129
Andrea Bandinelli 105
Andrea Cossu 62
Anna Uglova 142
Antonio Bocola 112
Arun Bhattarai 99

B
Bae Eun-jeong 160
Bernhard Wenger 60
Britt Raes 134

C
Capucine Prat 142
Charlie Chaplin 93
Charlie Hamilton-James 53
Charlotte Vandermeersch 106
Cheon Myung-jun 161
Cho Han-na 129
Choi Beom-chan 118
Claudia Brignone 115
Cristiana Pecci 51

D
Dianne Whelan 48
Diego Borello 105
Dom Bush 75
Dorit Jeßner 50
Dorottya Zurbó 99

E
Eirik Heggen 146
Eom Yu-mi 160

F
Fan Lixin 52
Felix van Groeningen 106
Filip Diviak 135
Francesca Archibugi 108
Francesco Clerici 110, 111
Francesco Rey 114
Fulvio Mariani 72

G
Guillaume Broust 58, 73

H
Henna Taylor 64
Heo Sung-wan 158
Hong Seung-gi 147
Hsin-Ying Kuo 141
Hugo Clouzeau 44
Hwang Hye-won 136

I
Isabelle Favez 145

J
Jang Byung-ki 96
Jang Jun-young 124
Janyl Jusupjan 84
Jeon Do-hee 130
Jin Jeong-min 139
John Porter 75
Jon Glassberg 66
Josh Lowell 63
Jung Hyung-min 156
Jung Seong-wook 95

K
Kenji Tsukamoto 54
Kim Dae-hyun 155
Kim Hyeong-cheol 122
Kim Hyun-jung 127
Kim Min-kyung 154
Kim Seok-jun 160
Kim Seok-won 74
Kim So-hee 130
Kim So-hyun 138
Kim Yong-gyun 94

L
Lee Chan-yeol 129
Lee Ga-hong 126
Lee Jong-su 119
Lee Seung-jun 128
Lee Yun-seok 125
Lee Ji-yeon 160
Lim Ji-sun 121
Lim So-jeong 161
Louis Hanquet 55
Luca Rosini 107
Lucie Lyfoung 142
Lysandre Leduc Boudreau 57

M
Maja Karlsson Mikkelsen 65
Margherita Buy 104
Matt Groom 80
Matteo Maggi 51
Michael Dillon 49
Michelle Parker 76
Moe Wada 71
Moon Eun-jung 144
Morgane Siriex 142

N
Nam Dong-hyun 150
Nancy Kwon 86
Niccolò Conterno 105
Nick Rosen 80
Nicole Gormley 86
Nikita Trocki 148
Noemi Pisano 114
Noh Myo-jung 137

O
Oh Jung-min 97

P
Paola Piacenza 109
Park Chang-hwan 157
Park Hong-jun 120
Park In-deok 123
Pawo Choyning Dorji 85
Pema Tseden 45
Peter Mortimer 63

R
Radheya Jegatheva 140
Ramazan Kılıç 151
Robin Van Gyn 76

S
Samgar Rakym 129
Seon Seung-hyeon 161
Seth Gillis 79
Shanta Nepali 88
Shin Dong-chul 77, 78
Silje Evensmo Jacobsen 56
Solène Polet 142
Steffi Rostoski 50

T
Thibault Ermenaux 142
Thomas Horat 87
Timmy ONeill 59
Tom Johnson 149
Tommaso Barbaro 110

V
Veronica Ciceri 113
Vincent Groos 61

W
Wim Wenders 98

Y
Yang Yeon-na 161
Yi-Shan Lo 70
Yuk Sang-hyo 92

발행인 **Publisher**
엄홍길 Um Hong-gil

책임편집 **Chief Editor**
이정진 Jinna Lee

편집 및 콘텐츠 관리 **Editor & Contents Admin**
송예린 Song Ye-rin
정선우 Jeong Sun-woo

콘텐츠 및 교정 **Contents & Proofreaders**
김나영 Kim Na-young
박혜미 Park Hye-mi
유현주 You Hyun-ju
윤승진 Yun Seung-jin
이수연 Lee Su-yeon
장다나 Jang Da-na
전소현 Chun So-hyun
조민지 Jo Min-ji

번역 **Translation**
박송이 Vivian Park
이서하 Lee Seo-ha

감수 **English Proofreading**
제이슨 베셔베이스 Jason Bechevaise

디자인 **Designed by**
디자인노리 DESIGN NORI

인쇄 **Printed by**
동인AP AP Dongin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사단법인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4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영상체험관 B1
B1 Experience House, 103-8 Alpeuseuoncheon 5-gil, Ulju-gun, Ulsan, Korea 44952
TEL. +82 52 248 6450 | FAX. +82 52 248 6455 | www.umff.kr

* 본 책자는 8월 12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is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Aug. 12th, please check out the latest information or any change at official website.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안심, 등심보다 귀한 진심, 한우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정성으로 키운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KOREAN BEEF HANWOO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Biostar Nature Cell

네이처셀 특허 기술로 만든

발효홍삼K

Fermented Red Ginseng K

Vegan Vegan

· 영국 비건소사이어티 인증
· 한국 비건인증원 인증

발효홍삼에 부재료를 더한 건강한 맛

특허받은 발효홍삼
면역력 증진

다진 인삼
피로개선 효과

차가버섯
항산화 작용

CHECK POINT 1

☑ 9증9포(九蒸九曝) 발효홍삼

한약재를 수증기로 푹 찌고 햇볕에 완전히 말리는 과정을 9번 거듭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특허받은 발효홍삼을 사용

[특허증]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홍삼의 제조방법 10-2052530호

☑ 풍기인삼·금산인삼 사용

기후적 자연조건이 완벽한, 무공해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풍기인삼·금산인삼 사용

CHECK POINT 2

☑ 시베리아 자작나무의 명약 **차가버섯**을 보강

☑ 칠곡군 **350m 천연 암반수**로 제조

☑ **갈아넣은 생인삼**으로 씹히는 식감이 일품

☑ 단맛은 그대로, **칼로리는 30% 감소**

☑ 한국비건인증원 및 영국비건소사이어티 인증

구매 안내 02-6978-9593 / 054-971-0851 www.biostarshop.com

BTR

THE BETTER GOLF LIFE

GOLF

24FW NEW ITEM

언제나 편하고 스타일리쉬하게! 일상 속 골프웨어 비티알

전속모델
은가은

BVT4183W

루니엘

COLOR | L-GREEN
SIZE | 90 - 105

가을용 여성 카라 티셔츠.
부드러운 약 기모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여주고,
에리 겉부분에 프릴 조직과 에리,
앞파이에 흰색 컬러로 배색 포인트를 주었다.

www.btr.kr www.ebtr.co.kr www.instagram.com/btr_golfwear www.facebook.com/2014btr

umff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KR